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하길 바라지 말라.
순종해주면 마음이 교만해지나니
뜻과 맞지 않은 사람으로 숲을 삼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6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9월 15일)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고통 없는 세상 기원하며… 조계사는 10월 14일 중양절을 맞아 제10회 조계사 국화향기나눔전 '생명평화와 감사의 중양절 국화수륙재'를 봉행했다. 가을국화로 장엄한 조계사 도량에서 열린 이날 수륙재에서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모든 생명을 위로하고 전쟁 · 기아 · 질병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기원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절터 복원 · 명상…'메타버스' 빠진 불교

불교계 '메타버스' 기반 콘텐츠 · 플랫폼 개발 잇달아

보원사, 보원사지 복원 공모에
'마인 크래프트' 활용해 화제돼
월정사, 메타버스 명상 플랫폼
'청소년명상축전' 등서 선보여
동국대도 명상 플랫폼 개발 중

"메타버스, MZ세대 포교 필수
새로운 플랫폼 활용 적극성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가 달라졌다. 산 속에서 은둔하며 수행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가상현실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며 적극적인 포교 · 수행 콘텐츠를 개발하고 선보이고 있다. I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한발 늦었던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대표적인 것이 '메타버스(Metaverse)' 활용 사례다. 가공, 추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인 '메타버스'는 자신을 대신하는 아바타가 생산 활동과 사회생활 등 일상을 영위하는 3차원 가상세계, 일종의 '가상 속 현실 세계'를 의미한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포교 사례의 대표는 서산 보원사(주지 정경)이다. 보원사는 비디오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 보원사지 복원 대회와 공모전을 개최했다. 제11회 내포 가야산 산사예술제의 일환으로 7월 25일과 8월 1일 열린 복원 대회에는 서산지역 학생부터 전국 종립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경연을 벌였다.

김선임 보원사 종무실장은 "보원사는 보원사지를 활용한 영화제, 영화공모전을 청소년 대상으로 꾸준히 해왔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변화가 필요했고, 최근 MZ세대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를 활용해 보원사지의 역사와 가치를 전하는 사업을 구상하게 됐다"고 기획 취지를 밝혔다.

이어 "내포 가야산에는 23개의 절터가 있다. 이를 가상 현실 속에서 복원하는 대회와 공모전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는 자체적으로 메타버스 명상 플랫폼을 개발해 8월 12일 열린 강원도 세계청소년명상주간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10월 8일 개막한 오대산 문화축전에서는 학생 백 일장 등의 행사와 월정사 화엄선문화연구소 제1회 국제명상세미나를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월정사의 메타버스 명상 플랫폼은 뇌파측정기와 HMD(머리 착용 디스플레이)를 착용하고 요가, 명상들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월정사 기획국장 월엄 스님은 "오대산 월정사는 명상 수행을 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다. 이를 MZ세대와 세계인에게 알리기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명상 플랫폼을 개발하게 됐다"면서 "월정사의 메타버스 명상 플랫폼은 내년도 베타 버전을 선보이려 했는데, 메타버스 기술이 나날이 진보하고 있어 많은 부분을 보완해 내후년에 플랫폼을 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종립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메타버스를 기반한 명상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R&D기획연구에 나섰다.

동국대는 '비대면 사회에서 MZ 세대의 정신건강 관리 · 회복을 위한 메타버스 디지털 솔루션'에 관한 연구를 진행키로 했으며, 이를 전담할 '명상메타버스플랫폼기획연구단'(단장 김관규)도 출범했다.

이번 기획연구는 '명상'을 정신의학 및 AI 어댑티브 기술 기반의 메타버스와 융합시킨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연구단은 △메타버스 기반 개인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 회복 솔루션 개발 △뇌과학 기반 심신치유 콘텐츠 제작 및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 심신 치유 솔루션의 임상 연구 및 플랫폼화 △심신 치유 · 예방의 글로벌 리딩용 의료모델 개발 등의 연구를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단장을 맡은 김관규 동국대 연구부총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하게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면서 MZ세대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메타버스 기반 개인 맞춤형 심신 건강 치유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메타버스 기반 포교 · 명상 콘텐츠 활용과 개발에 전문가들은 높은 평가를 내렸다. 다만, 섣부른 투자보다는 공공 콘텐츠와 플랫폼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을 제언했다.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포교 콘텐츠 개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과 불교와의 간극에 있다"며 "재원을 성급히 투여하기 보다는 공공 콘텐츠과 플랫폼들을 원활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시대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도 "MZ세대 포교를 위해서는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포교콘텐츠 개발은 필수적이다. 서산 보원사의 '보원사지 복원 대회 · 공모전'은 매우 확장성이 좋은 콘텐츠"라며 "향후 메타버스와 뉴미디어 등을 활용한 다양한 공모전을 통해 MZ세대가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의 피카소' 중광 스님 미술관 제주 건립 본격화

제주도, 중광미술관 건립위원회 발족

김종규 이사장 등 위원 위촉
저지문화지구에 부지 마련
지상2층 · 지하2층 규모로
2025년 미술관 개관 예정

'한국의 피카소'로 불리는 중광 스님의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미술관이 제주도립으로 건립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8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가칭 중광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건립추진위)'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

건립추진위는 위촉직으로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을 비롯한 도내 · 외 인사 11명과 당연직으로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건립추진위는 향후 미술관 건립에 관한 자문 및 중광 스님 작품 수집 활동 등을 하게 된다.

제주도가 중광미술관을 건립하게 된 것은 이호재 가나아트센터 대표이사가 중광 스님 작품 432점을 기증하면서 부터다. 이에 제주도는 7월 1일 기증자인 가나아트센터와 제주도, 제주도의회 간 중광 스님 미술품 기증 협약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중광미술관이 건립되는 곳은 제주 저지문화지구, 일명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이다. 제주도는 저지문화지구에 부지를 마련하고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로 미술관을 건립한 예정이다. 현재 중광미술관 개관은 오는 2025년이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오늘 위촉식은 2025년 미술관 개관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라며 "미술관 건립에 앞서 중광스님에 대해 남다른 조예와 애정을 지닌 전문가 여러분께서 작품 전시와 수집 방향 등에 대한 지혜를 나눠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철저한 미술관 건립 준비와 함께 위원님들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중광 스님의 작품세계를 세계에서 가장 잘 구현해내는 대한민국 대표 공공미술관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문화예술의 섬' 제주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립추진위는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방식과 작품 수집 활동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건립추진위원장으로 현을생 서귀포시 문화도시추진위원장을 선출했다.

건립추진위원으로 위촉된 김종규 이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광 스님은 수행자이면서도 다양한 예술분야를 섭렵하고 뛰어난 작품세계를 보였다. 스님의 작품 세계를 한자리서 만날 수 있는 미술관이 스님의 고향인 제주에 건립되는 것은 기쁜 일"이라며 "앞으로 중광미술관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으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하귀 출신인 중광 스님(1934~2002)은 1960년 경남 통도사에서 출가했지만 불교 계율에 얽매이지 않는 기행 때문에 1979년 승적을 박탈됐다.

1977년 영국 왕립 아시아학회에 참석해 '나는 걸레'라는 자작시를 낭송한 후 '걸레스님'으로 불렸다. 실제 그는 스스로 '걸레'라고 칭할 만큼 승속(僧俗)의 경계 없이 살았다. 형식과 틀에 구애 받지 않는 작품 세계는 '한국의 피카소'라는 별칭을 안겼다. 2000년 서울 가나아트센터에서 마지막 전시인 '괜히 왔다 간다'를 열고 2002년 3월 양산 통도사에서 입적했다. **신성민 기자**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포교원 공동 주최 대중공사 4 · 5면

2021년 한국불교학회 추계특별학술대회


구하대종사

영축산의 구하 천보와 오대산의 한암 중원


한암대종사

근현대 한국불교를 이끌어 온 영축산 통도사 구하(九河, 1872~1965) 대종사와 오대산의 한암(漢巖, 1876~1951) 대종사, 그리고 경봉, 탄허, 월하, 만화 선사 등 두 산문의 불교 지성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조망하는 학술세미나에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장소 : 동국대학교 혜화관 2층 218호 고순청세미나실 ■ 일시 :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오후 13:00~18:30 ■ 문의 : 02)2263-1973 한국불교학회

■ 발표주제와 순서 및 시간

· **개회사** : 고 영 섭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장)
· **치 사** : 중봉 성파 (제15교구 통도사 방장), 자산 성우 (동국대학교 이사장)
· **축 사** : 이산 현문 (제15교구 통도사 교구장), 퇴우 정념 (제4교구 월정사 교구장)
윤 성 이 (동국대학교 총장)

■ 발표장소 교통편 안내

· **장 소** : 동국대학교 혜화관 2층 218호 고순청세미나실
· **주 소** : 서울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 **교통편** :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6번출구, 언덕으로 끝까지 올라와서 (엘리베이터 이용) 좌측에 있는 2개의 건물을 지나서 오른쪽에 있는 5층 큰 건물(혜화관)
버스 장충동(동국대 입구) 지선버스 7212. 간선버스 144, 301, 420, 407

〈제1부〉 사회 : 김지연 (한국불교학회 총무이사)

13:10~13:40	九河와 漢岩의 관계 검토 **이원석**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13:40~14:10	漢岩의 통도사 인연과 石潭有性 **염중섭** (자현스님,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14:10~14:40	九河의 독립운동 자료, 개요와 성격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
14:40~15:10	漢岩의 종단 인식과 조계종의 성립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15:10~15:40	九河의 통도사 개혁과 그 현대 불교사적 의의 **최두헌** (통도사성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휴 식 (20분)	

〈제2부〉 사회 : 최원섭 (한국불교학회 대외협력이사)

15:40~16:10	漢岩과 鏡峰의 서간문 법거량 **윤창화** (민족사 대표)
16:10~16:40	九河의 문집과 통도사지 간행의 불교사적 의의 **김순석** (안동국학진흥원 박물관장)
16:40~17:10	근현대 오대산 삼화상 어록과 증언록 간행의 불교사적 가치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 불교문예학과 교수)
17:10~17:40	6.25 당시 통도사의 야전병원과 호국불교 역할 **이성수** (불교신문 취재부장)
17:40~18:10	경봉과 탄허의 인연과 서간문 **서왕모** (정도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
총 평 : 고영섭 (한국불교학회장)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통도사,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관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

“도제 권리제한, 탈종단 가속화 부작용만”

연좌제 논란 ‘도제 권리제한’ 완화될까

선학원정상위, 10월 12일 공청회
“권리제한 해제 타당” 한 목소리
“입법 취지와 달리 실익은 없어”

교육원도 “개정논의 환영”입장
“권리자 · 관리자 확대” 요청도
주경 스님 “순차적 추진” 약속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는 10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도제 권리제한 완화를 위한 법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이 현재 시행 중인 미등록법인 도제에 대한 권리제한 조치는 애초 ‘법인관리법’에 근거해 종단 등록을 통한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였지만, 오히려 탈종단화를 가속화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미등록법인 · 사암에 대한 권리제한 조치가 관리자 · 권리자를 넘어 도제 스님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여론이 확대되는 가운데, 처음으로 이에 대한 종도들의 여론을 모으는 공론의 장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스님들은 “법 개정을 통해 도제 권리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으며, 나아가 “도제를 넘어 관리자와 권리자에까지 폭을 넓혀야 한다”고 요청했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금곡)가 10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도제 권리제한 완화를 위한 법개정 공청회’는 11월 중앙종회 정기회를 앞두고 미등록 사설사암 · 법인의 권리인, 관리인의 도제권리를 제한하는 ‘법인관리법’ 등 관련법의 개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조계종과 오랜 갈등을 빚어 온 재단법인 선학원 문제가 핵심사안인 만큼, 선학원 도제 비율이 높은 비구니 스님들의 관심이 높았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 상임위원장 주경 스님은 발제를 통해 법인법 제정의 역사와 입법취지를 짚고 그동안 제기돼 온 개정 여론을 밝혔다. 주경 스님에 따르면 법인법은 2013년 처음 제정돼 2014년 구체화됐다. 애초 삼보정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원칙에 따라 미등록법인 · 사찰에 대한 종단등록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특히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가 탈종단 행보를 강화하면서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사찰의 유지와 조계종 승적 중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결국 본의 아니게 탈종단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토론자로 나선 심원 스님(선학원미래포럼)은 권리제한 완화 조치에 대해 “적극 찬성”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 이유에 대해 △선학원 도제는 곧 조계종으로 출가한 스님이며 △권리제한은 현대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연좌제’로서 적법하지 않고 △권리제한을 처음 시행했던 취지에서 볼 때 실익이 없다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승려교육을 총괄하는 조계종 교육원 역시 개정안에 대한 환영입장을 명확히 했다. 교육부장 서봉 스님은 “미등록법인 및 사찰의 도제들이 교육과 수행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법과 승가고시법 개정뿐 아니라, 승려연수교육 및 안거 등 권리제한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백에 대해서는 회복에 대한 추가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히 비구니 스님들의 의견이 강하게 피력됐다. 전국비구니회 소속 비구니 스님 6000명 가운데 10%가 선학원 도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전국비구니회 총무부장 현진 스님(선학원정상화추진위 소위원회 위원)은 “대다수 선학원 도제들이 조계종으로 출가해 종단에서 교육받고 종단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출가 당시는 물론, 조계종과의 갈등이 불거지기 전에는 조계종과 선학원이 다르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며 “은사 스님이 종단에 미등록했다는 이유로 도제들이 권리를 제한 받는 것은 명백한 연좌제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도제들에 대한 권리제한 완화를 넘어, 분원장 등 권리자 · 관리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대해 주경 스님은 “도제들에 대한 권리제한 조치가 법개정으로 현실화된다면, 이후부터는 권리인과 관리자로 확대조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학원 폐쇄적 운영 · 횡포, 막을 방안 있나



정인진 변호사, 법적방안 모색

사자상승 · 종교법인법 등
설립정신 회복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해결방안은 없어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가 최근 정관상 자격 없는 성범죄 전력의 前 이사장 법진 스님을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함에 따라, 선학원 탈종단화와 폐쇄적인 운영 심화에 따른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바른 정인진 변호사가 선학원의 문제점의 짚고, 초기의 설립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고찰했다.

정인진 변호사는 10월 12일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가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학술연찬회에서 ‘선학원 초기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입법론 등의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근래 들어 선학원은 조계종과 절연하고 자신을 독자적 종단에 가까운 조직으로 바꿔 나아가고 있다”며 “또 재단법인의 법적 운영법리에 기대어 이사회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속 사찰과 승려, 단위종교단체 등에 대한 자의적 처분과 횡포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변호사는 “불교단체든 다른 단체든 재단법인 이사회가 어떤 인물의 독재적 지배 아래 놓이거나, 혹은 폐쇄적 운영에 빠질 때 운영에 대한 견제방법이 없다”며 “특히 이런 상황은 후임 이사도 이사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폐쇄상을 낳는 조건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선학원이 초기 설립정신을 회복하고 이사회의 일탈행위와 전횡에 대한 유효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찰한 정 변호사는, 그 방안으로 선학원 설립에 관여한 조계종이나 사찰 또는 승려가 △불가에서의 사자상승 종법 △설립자로서 권리나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과 △국가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선학원 운영을 바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 세 가지를 짚으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애초 이사회가 설립취지에 위배된 의사결정을 할 경우, 이를 견제하거나 이사회 구성을 바꿀 수 있는 기관이나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며 “다만 재단에 소속된 사찰 또는 개인은 이사회 의결에 대해 그 효력이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경우, 예를 들어 사고사찰 지정의 결의, 창건주 권한 박탈의 결의 등에 대해서는 이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전통문화 보존 · 관리에 노력해 달라”

원행 스님, 김대현 종무실장에 당부

김대현 문체부 종무실장이 10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이날 김 종무실장에게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불교 현안들을 잘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중요한 자리에 소임을 맡아 책임이 크다”며 “소중한 문화재와 성보들이 잘 보존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실장은 “전통문화 보존 관리를 위해 현안과 사업 예산 등 전반적인 부분을 잘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김 실장은 종립학교인 보문중고를 졸업했으며, 문체부와 문화재청, 세계관광기구 등을 오가며 정책경험을 쌓은 문화행정 전문가로 알려졌다.

자리에는 총무부장 금곡 스님, 기획실장 삼혜 스님, 문화부장 성공 스님 등이 배석했다.

송지희 기자

문화재 관람 ‘통행세’ 매도에 반발 확산

정청래 발언에 사과촉구
종회의장단과 해인사 등
잇따라 비판성명 발표해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통행세’로 매도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중앙종회 의장단과 중앙신도회 등이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는 10월 12일 중앙종회 의장단 · 상임분과위원장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종단 명예를 훼손한 데 따른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중앙종회는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통행세’라고 지칭하는 등 마치 사찰이 국민들에게 ‘통행세’를 갈취하는 사기꾼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국가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이자, 문화와 관련한 정책과 법안을 입안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개탄했다. 이어 “입법 책임을 지는 국회의원이라면 그 책임을 불교계에 전가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기 전에 국가적 차원의 문화재 보호정책과 민족문화 계승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과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불교계의 노력을 폄하하고 사부대중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도 10월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마치 사찰의 문화재구역 입장료 징수를 떳떳하지 못한 부정행위로 매도하고 불교계 전체를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중앙신도회는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는 국립공원 지정의 근거인 공원법 제정에 앞서 문화재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징수해 왔다”며 “오히려 일방적인 국가행정으로 온갖 비난과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던 것은 불교계였으며, 전통사찰들이 국립공원에 강제 편입되면서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사찰 운영과 보존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불자들은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사실을 바로잡고 사찰을 비롯한 불교계 전체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정청래 의원에게 이 발언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와 해인사신도회는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해인사를 봉이 김선달로 왜곡하고 매도했다”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해인사는 “정 의원은 ‘문화재관람료’를 ‘사찰입장료’로 잘못 알고 사찰 통행세라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사찰입장료’를 받는 곳은 없다”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음이 명백한 사실임을 왜곡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해인사는 홍류동 입구 초입부터 가야산 정상까지의 약 1000만 평에 달하는 ‘가야산 해인사 일원’ 모두가 ‘명승62로’ 지정돼 있다. 때문에 가야산과 해인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명승구역에 입장하는 것에 따른 ‘문화재관람료’를 내는 것이지 ‘해인사 사찰입장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해인총림과 해인사 교구 말사 등 해인사 교구 사부대중은 정청래 의원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10·27 법난

제41주년 추념법회

지난 1980년 10월 27일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은 군인과 경찰 등 3만여 명의 공권력이 전국 5천여 개 사찰을 군홧발로 짓밟고 2천여 스님과 불교관계자들을 연행하고 고문한 한국불교 근현대사에 있어서 최대의 수난사입니다.

올해로 ‘10·27법난’이 자행된 지 어느덧 4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역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우리는 그 고통의 역사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불법적이고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10·27법난’의 아픔을 역사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이에 ‘10·27법난 제41주년 추념법회’를 봉행합니다.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최대 수난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날의 아픔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 10·27법난 추념법회 10월 27일 (수)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공연장

문의 | 02-2011-1829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초청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합니다.
※ 추념법회는 유튜브로 생중계 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후위기 극복’ 불교계 움직임 활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사노위, 10월 14일
‘기후정의 촉구 행진’ 진행
불교환경연대는 백일기도
염원 모으고 인식 확산도
불교사회연구소 · 환경위
‘불교계실천’ 주제 세미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10월 14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행진에 나섰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불교계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구공동체를 위해 대중 인식을 확산시키고 일상의 전환을 이끌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들이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향한 우려가 깊은 상황에서 나타난 변화이기에 더욱 유의미하다는 평가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은 10월 14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행진에 나섰다.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조정 등 실질적인 탄소중립 대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다.

행진은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몽 스님과 위원 시경 · 동신 · 여등 스님을 비롯해 발전비정규진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학생기후행동, 농민의 길 등이 함께한 가운데, 서울 조계사 일주문에서 종각역,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실을 거쳐 서울역사박물관 입구까지 이어졌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탄소중립위원회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10.14기후정의행동’에 참석했다.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은 “지금 우리에게 닥친 기후변화의 위기는 단순히 환경 · 생태 문제가 아닌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문제”라며 “국민을 기망하는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 기업의 그린워싱을 비판하며, 기후정의에 대한 각성과 전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님의 자비와 생명존중사상을 토대로 기후정의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는 10월 23일부터 2022년 1월 30일까지 ‘기후위기, 멈추고 돌아보는 100일 기도’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불교환경연대 20주년을 맞아 활동가들과 회원, 임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염원을 모아내겠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주년 기념행사를 연기한 대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적인 법석을 준비한 셈이다.

불교환경연대는 “기후문제는 환경문제 만이 아닌 인류의 생존의 문제이고, 민주적으로 조화롭게 살 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봐야 할 문제”라며 “불교환경연대를 넘어 불교계 전체로 확대되고 전 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력을 다지기 위해 100일 기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도는 기후위기를 위한 원력에 함께 하고자 하는 누구나 동참할 수 있으며, 100일간 매일 아침 6시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화상미팅 프로그램 ZOOM을 활용해 각자의 일상 속에서 공동으로 정진할 계획이다.

기도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발심을 다지고 실천으로 회향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 5계와 10대실천서원을 합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의 ‘지구와 자연을 생각하는 환경명상절 108배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108배를 함께 한다. 108배가 어려울 경우 절 대신 사경으로 이어진다. 하루에 1천원이상 보시도 실천한다. 보시금은 불교기후행동기금으로 사용되며 100일 기도 회향일인 22년 1월 30일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와 함께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 조계사 앞에서 신공항반대전국공동행동과 연대한 가운데 ‘전국 신공항반대 1만명 서명운동’과 불교기후행동에서 주최하는 ‘불교동기후행동 피켓 시위’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실천의 일환이다. 02)720-1654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와 환경위원회(위원장 무관)는 종단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기후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10월 28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기후변화와 불교실천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다.

신승철 생태적지혜연구소 협동조합 이사장이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회 대응 현황’을, 민정희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이 ‘국제시민사회 및 한국사회 대응 현황’을,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이 ‘한국사회 종교계의 대응 현황’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서재영 성균관대 초빙교수가 ‘기후위기 극복과 전환사회를 위한 불교의 사유와 전통’을, 유정길 녹색불교연구소 소장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불교의 실천과 전개’ 주제발제에 나선다.

종합토론은 기후변화와 대응, 불교실천과제 등 2개 분야로, 참석자 전원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열린 토론으로 진행된다.

세미나 참석을 원할 경우 10월 21일 오후 5시까지 소속, 이름, 연락처를 기재해 전화 또는 문자(010-7144-1794)로 신청하면 된다.

“〈직지〉 본질 알릴 불교계 노력 절실하다”

청주 혜은사 주지 덕산 스님

개인 원력으로 10여 년간
〈직지〉 우리말번역 · 강의
시공 초월한 진리 가르침
불교계 관심 저조 아쉬워



“〈직지심체요절〉은 신심을 고취시키는 종교적인 서적이 아닙니다. 종교를 넘어 누구나, 어디서나 삶의 깨달음을 직관적으로 이끌어 줄 시공을 초월하는 진리가 담겨있어요. 불자들 뿐 아니라 모든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르침이기에, 이를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원력으로 〈직지〉의 우리말번역서를 출간하고 10여년간 이를 토대로 강의를 진행해 온 청주 혜은사 주지 덕산스님은 “불교계조차 〈직지〉의 본질을 드러내는데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진리의 가르침이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덕산 스님은 근대 한국불교 선지식인 청화 스님의 상좌다. 수행에 매진하던 중 우연히 〈직지〉를 만났고 선적 언어로 표현된 진리의 깊이에 매료됐다. 깨달음을 증득한 선지식들의 문답 속에는 진리가 생생하게 살아 숨 쉬고 있었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가르침이 가득했다.

“〈직지〉는 깨달음에 대한 禪의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다만 선문답 속에서 드러나는 선적인 표현들을 대중적으로 쉽게 표현해 내는 것이 대단히 어렵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덕산 스님은 2010년부터 직지를 2010년 〈직지심경 강의(클리어마인드)〉를 발간했다. 〈직지〉에 대한 대중강의서로는 처음이다. 스님은 책 출간을 시작으로 대중들을 위한 〈직지〉 강의를 시작했다. 세계 最古 금속활자로만 알려진 까닭에, 〈직지〉에 대한 관심도 적었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대중들에게 이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였다.

〈직지〉는 선불교의 정수를 담아낸 책으로,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을 위한 일종의 지침서다. 〈불조직지심체요절〉의 간략한 내용에 백운화상이 과거 7불과 인도 28조사, 중국 110선사의 방대한 게 · 송 · 찬 · 가 · 명 · 서 · 법어 · 문답 등을 추려 담았다. 부처님과 조사들의 언어에 담긴 선의 요체 중에서도 핵심인 셈이다. 문제는 선적인 표현의 대중화였다. 깊이를 담아내면서도 쉽고 대중적인 언어로 이를 풀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스님이 〈돈오의 길 직지심경(담앤북스)〉을 발간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세계에 그 가르침을 알리기 위해 영문판도 출간했다.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르침이 〈직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신념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우리말로도 풀이가 쉽지 않은 내용을 영어로 담아내는 작업은 너무나도 어려웠다.

덕산 스님은 “단순 번역이 아니라 〈직지〉의 내용을 주제로 한 연구가 정말로 필요하다”며 “사상적 측면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대중들에게 전해진다면,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훨씬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청주시에도 수차례 〈직지〉의 내용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지만, 종교색을 이유로 현실화되지 못했다”며 “그러나 〈직지〉는 불교를 넘어 ‘시공을 초월한 진리’이기에 불교계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통한 확산을 이끈다면 한국불교의 세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템플 · 사찰음식 통한 공공외교 활성화”

문화사업단 · 외교부, 10월 13일 업무협약 체결

국제기구 · 주한공관 등에
템플스테이 등 적극 홍보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과 외교부(장관 정의용)가 협약을 맺고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통한 공공외교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문화사업단은 외교부와 10월 13일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문화사업단 운영위원장인 원행 스님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토대로 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홍보 및 공공외교 활성화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원행 스님은 “외교부와의 업무협약으로 템플스테이, 사찰음식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전 세계에 더욱 활발하게 홍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 드라마, 영화, K-POP 등 다양한 플랫폼과 분야에서 한국 콘텐츠 인기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통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임이 증명됐다. 전 세계인들이 한국 전통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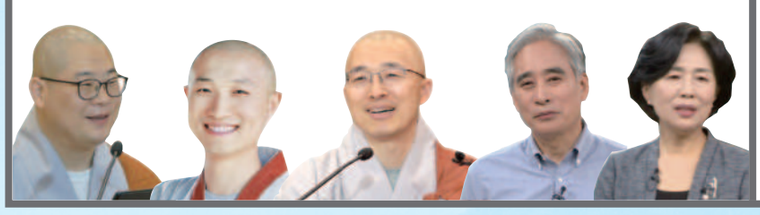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문화사업단과 외교부는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불교문화 콘텐츠를 통한 국내외 공공외교 활성화에 협력을 추진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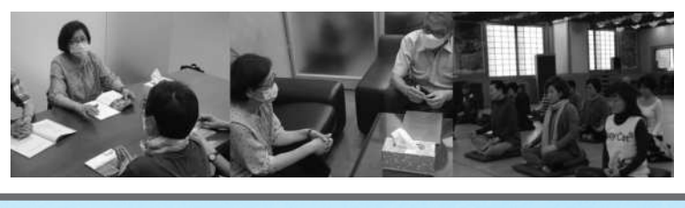
대한불교진흥원이 펼치는 현대적 불교 진흥 사업

1975년 설립 이래 시대상황에 맞는 불교진흥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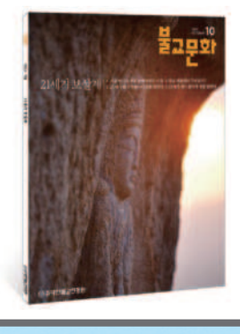
현대인을 위한 뉴미디어 포교
유튜브 헬로붓다TV
#법문 #불교인문학 #신행 #명상 #자연 #경전 #교리 #불교문화



불자 인재양성과 불교적 가치 실현
(평생교육기관) 대원아카데미
디지털대원아카데미 (언제 어디서나 수강 가능)
#불교 #심리상담 #명상 #자격고시 #온라인 강의 #심리상담사
주 3일 수업, 총 15주, 학기당 20/30만원, 6과목(학점은행제 과목 포함)
www.daewonacademy.org, www.digitaldaewon.org



불교정신 구현과 인문적 사고의 확장
월간 불교문화
#불교 #경전 #심리 #명상 #생태 #생명 과학 #수행 #문화 #유식
buddhismmagazine.blogspot.com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02-719-1855

'우리는 도반' 이색 참가자

"순례 수행의 의지처"

사형제 함께 순례 보림 · 보월 스님



법주사에서 함께 온 보림 스님과 보월 스님은 같은 조에 속해 옆텐트를 쓰며 순례에 임하고 있다. 순례 후 숙영지서 지쳐 있을 때면 짐을 날라주고, 서로 챙기는 사형제간의 정을 보여주고 있다.

사형인 보림 스님은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일생에 한번 될까 말까한 기회"라며 "불교중흥이란 큰 주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림 스님과 보월 스님은 각자 지인 스님의 추천으로 참여하게 됐다. 걷는 순례가 처음인 보림 스님과 달리 보월 스님은 수차례 혼자 순례를 진행한 적이 있어 큰 힘이 되고 있다.

보월 스님은 "20여 년 전에 오대적멸보궁을 송광사에서 출발해 봉정암까지 혼자 걸식하며 걸어간 적이 있다. 3년 전에도 동해안 해파랑길 760km를 한 달가량 순례했다"며 "삼보사찰과 인연을 맺게 되어 후회가 없다"고 말했다.

보월 스님은 "같이 무엇을 하다보면 다 녹일 수 있다. 묵묵히 한발 한발 가면서 부처님 제자라는 동질감이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보림 스님은 "의지하며 많은 힘이 됐다. "사형사제간의 정도 두터워 지고 좋은 추억도 쌓는 것 같다"고 미소 지었다.

"어른 뒤따름이 행복"

사제 함께 순례 정혜 · 해인 스님



정혜 스님은 "저희 상좌는 뭘 하자고 하면 '꼭 해야 해요?' 하면서 절대 말을 안 듣는다. 그런데 순례는 가자고 하면 온갖 어려움을 다 물리치고 따라 나와요"라며 농담을 건넸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특히 정혜 스님은 중앙승가대에 재입학해 미디어 포교 등 수업을 듣고 있다. 현재도 4학년이다.

스님은 "집을 비우고 나와야 하니 농사일도 해놓고 나와야 하고, 신도 관리도 해놓고 나와야 하고, 코피 터지게 해놓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혜 스님은 순례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전했다. "걷고 나면 본인이 스스로 많이 변하고 화두도 잘 들고, 힘들어도 밤에 앉아서 참선도 하고 해서 따라 나섰어요."

상좌인 해인 스님은 "저도 오십이 넘어 갱년기가 오다보니 힘든 게 많지만, 어른스님이 관절도 안 좋은데도 앞서서 걸어가시니 '어른이 하시는데' 라며 따르고 있다"며 은사스님의 말을 받았다.

이어 "어른스님들이 앞장서시는 걸 본받으며 따라가고, 젊은 스님들이 어른 스님들을 도우며 함께 힘을 모으는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하게 잘 걷고 있어요."



회향지인 불보종찰 통도사로 순례 행렬을 이어가는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의 모습.

승보 · 법보 거쳐 불보사찰로 나아가다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악조건 속 순례… 불교중흥 발원

11일부터 이어진 '우중 행선'
부상속출, 추위까지 이중고
순례여정 지역 환대 이어져
각계각층 1일참가자로 참여

경북 · 경남 일원=노덕현 기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상월결사(회주 자승)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하 삼보순례단)이 승보종찰 송광사를 출발해 법보종찰 해인사를 거쳐 10월 15일 경남 밀양에 도착했다. 불보사찰 통도사를 목전에 앞두고 다시 한번 불교중흥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했다. 앞서 10월 9일 순례단은 법보종찰 해인사에 도착했다. 해인사 일주문에 도착한 순례단은 가을 국화꽃이 놓인 화엄일승법계도를 따라 걸었고 장경각으로 향했다. 팔만대장경의 판전은 묵언으로 법을 전하듯 순례단을 맞았고, 순례단은 행렬을 지어 팔만대장경을 친견하며 합장했다.

순례단은 10일 합천군 야로면을 거쳐 고령군 덕곡면 예마을까지 22km 구간에서 순례를 진행했다. 개울물 소리를 들으며 걸음을 재촉한 순례단을 맞이한 것은 누렇게 벼가 익어가는 가을 들판이었다. 순례단은 오전 4시



10월 11일부터 많은 비로 순례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순례 정진은 이어졌다.



법보종찰 해인사의 장경판전에서 팔만대장경에 합장하는 순례단원들의 모습.

순례를 시작해 오전 10시 숙영지인 예마을 캠핑장에 도착했다. 순례단을 위해 동화사 신도회를 비롯해 청암사 등에서 마중을 나왔고 힘을 보탰다.

불보종찰로 향하는 길은 순탄치는 않았다. 11일 삼보순례단은 우중 행선(行禪)을 펼쳤다. 기상악화로 인한 때늦은 비에 12일차인 11일부터 12일 등은 습기와 추위가 순례단을 엄습했다. 하지만 같이 길을 걷는 이들이 있기에 악전고투 속에서도 웃음꽃은 피어났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부터 선광 스님, 오심 스님 등 스님들과 박기련 지원단장을 비롯해 순례단에서는 작은 농담 하나에도 서로 밝은 웃음을 보이며 힘을 더했다.

빗속에 12일 경북 고령 숙영지를 출발한 순례단은 경남으로 진입했다. 순례여정 속에는 마을 주민들이 추위로 지친 순례단에게 따뜻한 음료를 내놓고 반겼다. 또한 휴식지인 마을회관마다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성익경 창녕 이방면장을 비롯해 마을주민들은 "국난극복을 위해 순례하는 순례단의 기운을 받아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하루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회주 자승 스님도 주민들에게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일상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마음을 모아줘 감사하다"고 답했다.

지속적인 비는 순례단을 지치게 했다. 쉬어가는 곳마다 젖은 신발을 벗고 발을 말리는 이들과 치료를 받는 이들이 늘어만 갔다. 회주 자승 스님도 이방면 공판장에서 응급치료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순례에 같이 마음을 모아준 주민들 덕분에 순례단은 잠시 비를 피하고 몸을 따뜻하게 녹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삼보순례는 종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순례에 동참했다. 대흥사 조실 보선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 주호영 국회의원 등 매일 수십 명이 1일참가자로 순례단의 뒤를 따랐고 인근 사찰 불자들이 마중을 나왔다.

1일참여자로 참여한 대흥사 조실 보선 스님은 "순례단에 합류하고 보니, 인도에서 부처님이 이웃을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생각하게 된다. 이런 자리를 마련한 자승 스님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노력하는지도 느끼게 됐다. 모두 함께 이웃을 위한 회향이 되길 발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천리순례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방역과 안전에 만전을 기했고, 진행팀과 안전팀의 긴장도 높아졌다. 순례단 행렬은 지역관할 경찰서에서 경찰차로 에스코트 하고, 앞뒤로 동국대 직원들로 구성된 안전팀에서 행렬을 안내했다.

장영욱 지원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순례단의 건강"이라며 "행사팀 숙영팀 공양팀 자원봉사팀 등 50여 명이 순례단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식지마다 발이 아픈 이들과 다친 이들로 의료팀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김명숙 의료팀장은 "물집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 보다, 체력저하로 힘들어 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그럼에도 치료를 받으시고 순례를 계속해나가는 모습에서 불자로서 감동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염원을 함께 안고 순례단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향지인 통도사로 향했다.

한편,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은 10월 18일 불보종찰 통도사에 도착해 회향식을 개최했다.

〈회향식 차주 상보〉

삼가 보은에 감사인사 드립니다



전주이씨 효령대군 첨지공파 18대손
원암당 혜명(이왕선)대종사존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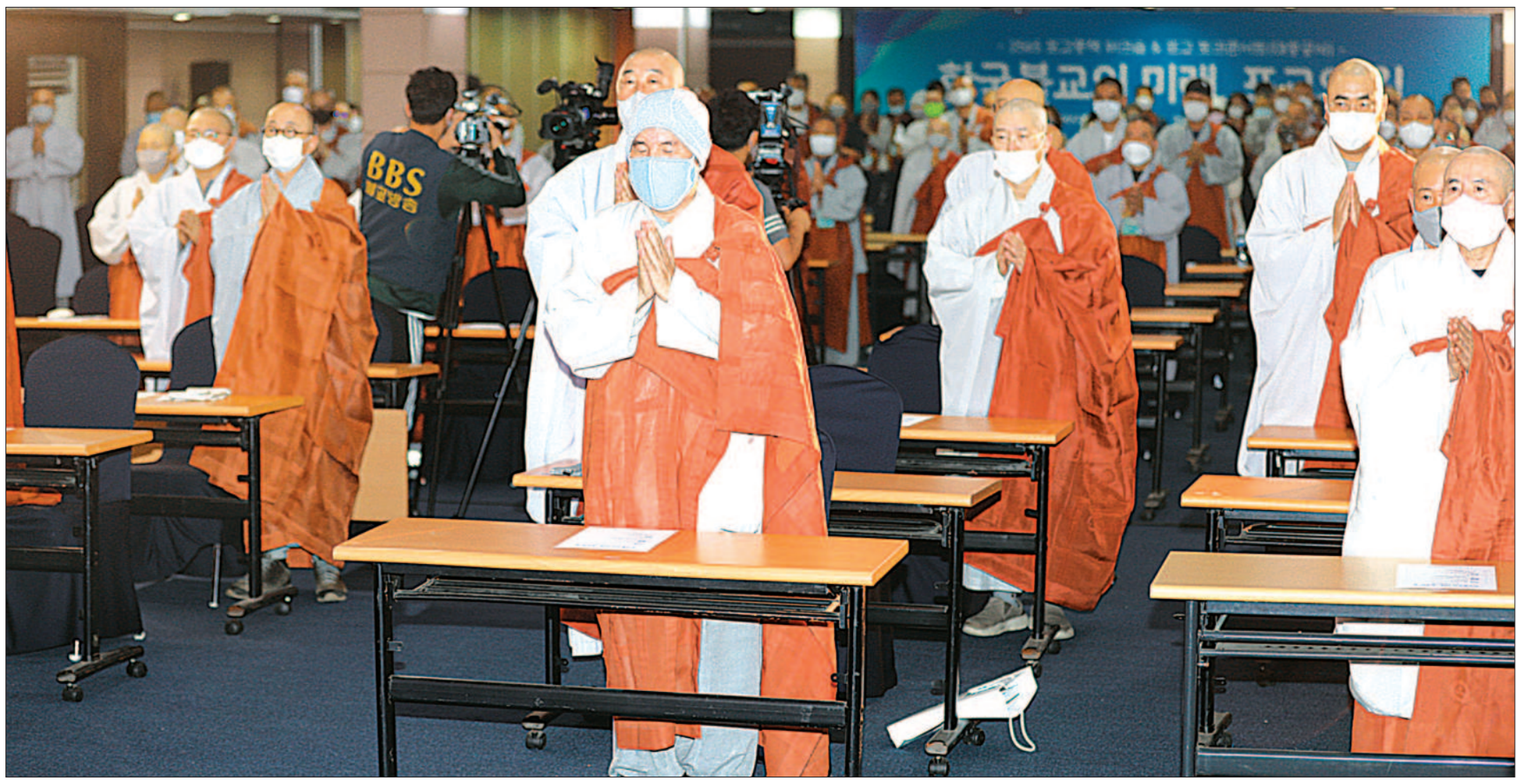
■대상좌 : 청파 진성스님 ■중상좌 : 대련스님, 추파스님
■손상좌 : 정원, 정진, 정이, 정운, 정유, 정안, 정인, 정만, 자비심, 혜수향

이번 저희 아버님(원암당혜명대종사) 상사시에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고
조의와 위로 덕분에 무사히 상례를 마치게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찾아 뵙고 인사 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나 황망중이라 지면으로 인사 드리게 됨을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댁내 어려움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보답할 기회로 생각하고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건승하시고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장 마이산탑사 주지 **진성** 올림

전주후인혜명 이왕선 각령

아 들	이재원, 이재동(진성), 이재문
며느리	이순옥, 김명옥(연심), 오혜정
딸	이금주, 이은주
사 위	이이범, 동상진
손 주	이승훈, 이성현, 이성결, 이계향(정원), 이정향, 이소율(명심) 이정준, 이정찬, 이정훈, 이정환, 이연주, 동채연, 동기용, 동경은
손주사위	임정필, 구본웅
증 손	임로빈, 구아인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은 조계종 포교원과 함께 10월 14일 '한국불교의 미래, 포교의 길'을 주제로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입재식 모습. 맨 앞이 회주 자승 스님.

"전략적 포교로 한국불교 중흥 이끌자"

상월결사 · 포교원 10월 14일

포교 주제 대중공사 개최

교계 언론 주관해 토크콘서트로 진행
종회의원 등 100여 명 모여 대토론해
상월삼보순례단 전원 참가, 관심보여
덕문 스님 '신뢰회복 · 전략포교' 강조
포교원, 목소리 경청 · 종책수립 약속

창녕 부곡면=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신심과 원력으로 한국불교를 새롭게 일으키기 위한 포교결집의 장이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이하 삼보순례)서 열렸다.

상월결사(회주 자승)와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범해)은 10월 14일 경남 부곡 로얄호텔 대연회장에서 천리순례 대중공사 '한국불교의 미래, 포교의 길'을 개최했다. 포교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대중공사는 종회의원 포교연수를 겸하고 포교종책워크숍 성격도 함께 지닌 자리로 100여 대중이 참여했다. 이날 대중공사에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상월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 등이 참여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영상 인사말을 통해 "우리의 삶이란 간절하지 않으면 원력과 신심이 나오지 않는다. 중흥이란 학인이 학인의 자리에서, 주지가 주지소임에 맞게 열심히 살면 중흥이란 말은 필요없다. 교수가 열심히 학생을 가르치면 이런 말이 필요없다"며 "불교 중흥은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할 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대중공사에서 발표를 경청하는 대중들의 모습.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이 화엄사의 지역 포교 사례를 대중에게 소개하고 있다.

행사를 주관한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오늘 지혜로운 사부대중 여러분이 모인 부곡의 결집이 '칠엽굴'이요, 포교 종책 워크숍은 '21세기 결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부 '언론에서 주목한 포교사례'에서는 '언론에서 주목한 포교사례'가 소개됐다. 현대불교신문의 '포스트코로나 랜선기부' 부터 '사찰경영 회원제 도입으로 변화' 등 코로나 시대에 맞는 포교와 경영 방안을 담은 기획기사가 소개돼 높은 관심을 받았다.

2부 포교콘서트 '달라지고 있는 포교현장'은 포교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이들과 대중들과의 소통의 현장으로 펼쳐졌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의 사회로 구례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부산 대운사 쿠무다 주지 주석 스님, 김해 동림선원 지도법사 천조 스님이 패널로 참여했다.

영상소개에서 지리산 화엄사의 경우 요가대회와 화엄제 등 문화포교에 이어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2018년 개원한 김해 동림선원은 명상학교를 통한 청년포교와 사찰 한계를 넘은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문화포교를 소개했다. 부산 대운사는 쿠무다 카페를 통한 문화포교를 선보였다.

패널로 나선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나온 불교 호감도 증가와 젊은 층의 비호감도 증가에 대해 분석결과로 불자들의 인식변화가 시급함을 호소했다.

덕문 스님은 "전략적인 포교가 필요하다. 도심과 산중 사찰이 괴리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조계종 포교원뿐만 아니라 총무원과 교구본사들이 함께 고민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농어촌 사찰의 포교 한계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사찰의 자연환경과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한 포교전법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지역에서의 신뢰를 높이는 것은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없다. 이런 작은 기반 하나하나가 닦일 때 불교가 신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상과 비대면 포교를 진행 중인 동림선원의 지도법사 천조 스님은 "자기도전포상제를 통해 청소년 포교를 진행함과 동시에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명상프로그램을 진행해 학부모 포교를 함께했다"며 "아이들 이름으로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사찰이 봉사와 아르바이트 등의 대행처가 되는 청년포교가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패널인 쿠무다 주석 스님은 카페뿐만 아니라 예술인 지원도 포교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1000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을 후원하며 좋은 불교음악 등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3부 '수행의 길, 포교의 길'에서는 각계의 포교활성화가 논의됐다. 참가자들은 전법포교를 위한 재정 확충부터 신도 안내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해당QR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시면 현대불교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공'에 올라온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뉴스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반' 이색 참가자

"투닥대도 함께 정진 행복"

자매 함께 순례 정해림 · 정유림 씨



정해림(27) 씨는 지난해 자비순례를 완주하고 수국사에서 신행활동도 열심히 하는 스노보드 국가대표 선수다. 이번 천리순례에는 동생 정유림(24) 씨와 함께 참여했다. 스노보드팀 합숙으로 인해 뒤늦게 합류한 정해림 씨는 "지난해 자비순례는 다했는데, 동생을 추천해서 먼저 보냈다. 동생에게 추천했더니 흔쾌히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동생 정유림 씨는 언니와의 정을 드러냈다. 정 씨는 "언니가 없었을 때는 의지할 때가 없을 것 같아서 걱정했지만 다른 언니들과 보살님들이 잘 챙겨주셨다"며 "그래도 가방을 들어줄 사람 있어 좋다"고 웃었다.

"다음엔 첫째 딸 남친도"

모녀 함께 순례 하정수 · 박선민 씨



봉은사 신도인 하정수 씨(56)는 둘째 딸 박선민(31) 씨와 함께 이번 순례에 참여했다. 하 씨는 인도와 스리랑카 성지순례를 첫째 딸, 둘째 딸과 함께 다녀왔다.

이번 순례에는 직장생활로 인해 첫째 딸은 참여하지 못했다. 하지만 불자 가족답게 첫째 딸은 남자친구와 함께 화엄사 순례 때 내려와 동참했다. 하 씨는 딸의 남자친구까지 내년에는 같이 순례하자고 권유했고, 사위가 될지도 모르는 딸의 남자친구도 좋다고 응답했다. 하 씨의 신심 넘치는 적극성에 이른바 불자가족의 무한 인연 맺기가 진행되고 있다.

"부부의 연 더욱 깊어져"

부부 함께 참여 윤재웅 · 이세옥 씨



기상시간이 늦어진 11일 새벽 4시, 순례단 숙영지 한편에서 노트북을 켜고 시를 쓰고 있는 남편과 그 모습을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아내가 있었다. 바로 윤재웅 동국대 교수(60)와 아내인 이세옥 씨(60)다.

예비순례부터 자비순례, 이번 천리순례, 그리고 불자인연 맺기의 장인 수미산원정대 등 윤 교수는 상월결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다. 적극적인 남편의 활동 뒤에는 동갑내기로서 50년 지기 도반이기도 한 아내의 지원이 있었다.

"진짜 좋은 거면 같이 좋은 거죠. 부부끼리 참여하고 싶어도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부부의 인연을 다시 또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7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표 충 사
주지 진 각
사부대중일동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1338
Tel 055)352-1150

현대불교신문 창간 27주년을 축하합니다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재)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은
호스피스병동도 함께 운영하는 곳입니다.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의료진과 관계자들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에 따라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헌신하겠습니다.
울산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석남사 부근)
요양병동 입원상담 대표번호 052)255-8400
호스피스병동 24시간 상담 052)255-8457

광명사 52년, 새마음불교운동으로 성장

10월 10일, 창립기념법회 및 광명예술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1969년 부산초량 가정집서출발
1만여 불자 수용 신행도량 서원
1982년 삼광사 불사 원력 초석
대중 호흡하며 현대 포교 모색


대한불교천태종 광명사가 10월 10일 지관전에서 창립 52주년을 기념하는 창립법회 및 광명예술제를 개최했다.

대한불교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가 10월 10일 지관전에서 창립52주년을 기념하는 창립법회 및 광명예술제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상월원각대조사의 창건 이념을 기리고 정법도량을 향한 미래 의지를 강조했다.

법회에는 주지 춘광 스님과 울산 정광사 주지 화산 스님, 부산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김해 해성사 주지 월도 스님을 비롯해 이창욱 신도회장, 정미영 금정구청 구청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법회는 △타종 △개회선언 △삼귀의 △찬불가 △반야심경 △상월원각대조사 법어봉독 △국운융창기원 △임명장 수여 △연혁보고 △기념사 △청법가 및 입정 △법문 △축사 △축가 △내빈소개 △관음정진 △발원문 순으로 진행됐다.

광명예술제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현악4중주 연주와 박윤정 소리코리아 대표의 국악 공연, 남성 성악가로 구성된 해피앙상블의 무대 등 다채로운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아울러 광명사 어린이회와 광명합창단 등 신도들의 무대도 이어졌다.

주지 춘광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상월원각대조사님께서 1970년대 새마음불교운동을 전개했다. 오늘날 우리는 새마음불교운동을 계승 발전시켜 마음이 성장하도록 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정법도량을 만들어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 속에서 자비 실천을 행하고 정진해 수행의 양 날개가 고루 균형을 이뤄 이 시대에 맞는 포교와 불교운동을 전개해 나아가자. 앞으로 계승 · 발전을 위해 성역화 불사를 진행하고 100년, 1000년을 바라보며 정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월도 스님은 법문에서 "상월원각대조사님은 도심포교의 미래를 보고 광명사와 삼광사를 세우셨다. 광명사는 부산경남에서 귀감이 되는 도량으로 발전했다"며 "부산이라는 곳에 왜 광명사를 터로 주셨는지는 역사가 말해준다"고 말했다.

광명사의 역사는 1969년 10월 15일 부산시 동구 좌천동 김정숙 신도의 가정집에서 개최한 부산신도회 창립법회가 그 시작이다. 이후 1970년 9월 1일 대한불교천태종 부산 지부로 지정되고, 이춘상 불자가 초대 지부감으로 임명됐다.

1971년 10월 27일 상월원각대조사는 부산 초량동 소재 교육회관 법회에 참석해 "부산에 천태사상이 구름과 같이 크게 흥할 것"을 증명하고 "동시에 1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불교회관과 대가람을 세울 것"을 대중에게 부촉했다.

1973년 10월 상월원각대조사는 직접 지금의 광명사가 될 도량(당시 관음사)을 살펴보고 관음사 법당과 부지 매입을 허락했다. 1973년 12월 5일 부산시 장전동 관음사 법당을 매입한 후, 광명사로 이름을 변경했고 삼광사 도량 건립의 초석도 마련했다. 1982년 12월 31일 부산 진구에 위치한 지금의 삼광사 부지 3만 5000평을 매입했다.

현재 광명사는 금정구지회, 동래구지회, 북구지회로 신도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산하단체는 다도회, 원회, 광명합창단, 봉사회, 금강회, 관음회, 어린이회 등이 있다.

또 2021년 법화산림법회, 특별법회, '호국 · 순국선열 위령 천도대법회',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 행복나눔법회'를 봉행하며 대중과 함께하고, 현대적 불교 포교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제1회 어린이 삼귀의계오계 수계법회 성료

10월 10일, 내원정사에서
100여 명의 어린이 불제자 탄생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가 10월 10일 내원정사 템플스테이생활관에서 '제1회 어린이 삼귀의계오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수계의식 모습.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 이하 조계종부산연합회)가 10월 10일 내원정사 템플스테이생활관에서 '제1회 어린이 삼귀의계오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가 어린이 수계법회를 통해 불교를 통한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포교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마련한 수계법회에는 전계대화상 원허 스님(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과 갈마아사리 목종 스님(조계종부산연합회 수석부회장), 교수아사리 만초 스님(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조계종부산연합회 소속 스님들을 비롯해 홍법사, 혜원정사, 대광명사, 관음사, 무진선원에서 참석한 어린이 100여 명이 동참했다.

법회는 △대종오타 △육법공양 △개식 △거향찬 △청사 △개도 △참회 △관정 △귀의 △선계상 △발원 및 계첩수여 △법어 및 인사말씀 △회향게 △폐식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에서 어린이들은 직접 부처님께 육법공양을 올렸고 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십바라밀 문양의 티셔츠를 입고 수계를 받았다. 수계 어린이들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오계-첫 번째,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의 물건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세 번째, 좋은 말 착한 말 바른말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구들과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다섯 번째, 스님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다.'를 받아 지니고 늘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스님들은 수계 어린이들을 위해 관정과 삼보륜 도장을 찍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증명했다. 전계대화상 원허 스님은 "어린이들이 계를 받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미래에 어렵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 순간을 기억하고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른다면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다"고 축원했다.

한편,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4회 삼귀의계 · 오계 수계대법회'를 11월 28일 오후 3시 부산 벡스코에서 봉행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쌍계사, 개산 1297주년 기념법회

10월 8일, 화엄경약찬가 수행으로 개산 의미 기려

쌍계총림 쌍계사(주지 영담)가 10월 8일 대웅전 및 경내 일원에서 개산129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주지 영담 스님, 옥천사 종성 스님, 용화사 종묵 스님, 대성암 승원 스님(염불원장)을 비롯해 대중 스님이 동참했으며 △삼귀의례 △청법3배 △입정 △법문 △대방광불화엄경 고산화상 약찬가 독경 △영반 △사홍서원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영담 스님은 "시방세계 모든 여래가 진여의 세계에서 오셨고 초발심을 찬탄하셨다. 초심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우주의 모든 사물과 일은 혼자 일어나는 일이 없다. 모두 시간과 공간속에서 함께 공유한다. 이 가르침을 되새기기 위해 개산을 기념하고 화엄경약찬가를 독송한다. 수승한 보리심의 도를 아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쌍계사는 성덕왕23년(724)에 개산했고 문성왕 2년(840) 진감 혜소 선사가 창건했다.

개산을 기념하며 고산 스님이 〈화엄경〉을 노래형식으로 요약한 화엄경약찬가를 일주일 동안 독송한다. 이번 개산을 기념하기 위해 쌍계사는 산사음악회, 학술세미나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으나 코로나 19 확산예방을 위해 취소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쌍계총림 쌍계사가 10월8일 대웅전 및 경내 일원에서 개산129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불조혜명의 참주인, 영축산人展' 개최

통도사 성보박물관 10월 9일~24일
통도사 스님 33인, 사진과 한담 공개

통도사에서 수행하고 중생들의 나침반이 되어 준 스님들의 사진과 인터뷰를 소개하는 전시가 열렸다.

월간 · 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대표 김윤희)는 10월9일부터 24일까지 통도사 성보박물관 2층 제2전시실에서 '불조혜명(佛祖慧命)의 참주인, 영축산인전(靈鷲山人展)'을 개최한다.

전시는 김윤희 대표가 20여 년 동안 인터뷰하고 엮어낸 결과들로서 월하 스님, 경봉 스님, 태흥 스님, 명정 스님을 비롯해 역대 주지 스님 등 통도사 스님 33인의 삶과 수행의 기록을 선보인다.

10월 9일에 열린 개막식에는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전계사 혜남 스님, 前 주지 정우 스님, 前 유나 영일 스님, 박물관장 송천 스님 등 대덕 스님이 참석했다.

주지 현문 스님은 "통도사에서 준비해야 할 일을 맑은소리맑은나라에서 해주었다"며 "이렇게 한눈에 스님들의 수행을 볼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월간 · 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는 10월9일부터 10월24일까지 통도사 성보 박물관 2층 제2전시실에서 '불조혜명의 참주인, 영축산인전'을 개최한다.

김윤희 대표는 "20년 넘게 스님들을 취재하면서 묶어두었던 소중한 내용들이다. 전시를 통해 스님들께 받은 사랑을 사부대중에게 회향한다는 마음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책으로도 출간할 예정이다. 책에서는 더 많은 내용과 더 많은 스님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현대불교신문 창간 27 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함월산 백양사
주지 지은산옹
신도회일동
울산광역시 백양로67(상안동)
Tel 052)243-8712 Fax 052)243-1142
e-mail : hws1142@daum.net

과거 악업 소멸로 극락왕생 발원

양주 청련사, 생전예수시왕칠일재 봉행

10월 14일 7재 회향법회
5시간 넘는 불교의식으로
전통 방식 그대로 이어져

양주=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천년고찰 양주 청련사(주지 상진)가 과거의 전통방식을 그대로 보존 · 계승한 생전예수재를 봉행했다. 생전예수재는 과거의 악업을 소멸하고 현재의 평안과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석으로,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천도재로도 일컬어진다.

양주 청련사(주지 상진)는 10월 14일 경내에서 생전예수시왕생칠일재 회향법회를 거행했다. 이날 법회는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관욕의식, 괘불이운과 신중작법, 조전점산, 금 · 은전 이운과 음성공양에 이어진 예수재로 거행됐다.

청련사 예수재는 무려 5시간을 넘게 진행되는 의식이다. 상진 스님의 집전으로 전통 그대로를 구현하는 동시에, 모든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거행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불자들이 과거의 전생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악업을 소멸하고 부처님전에 참회하며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는 법석으로서 의미를 더한다.

청련사 주지 상진 스님이 법주, 벽산 스님이 인례, 거진 스님이 바라지를 맡은 가운데 합동천도재도 거행됐다. 영가들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과정이다.

'덩더쿵' 도량순회는 청련사만의 독특한 전통이다. 엄숙하게 이어지는 여타 법회나 의식과 달리, 철저하게 고증된 의식 속에서 흥겨운 음악에 어깨를 들썩이면서 도량을 순회하며 탑돌이를 하는 방식이다. 명부시왕각청을 모실 때 작법승과 악단을 인도하던 벽산 스님이 징을 치기 시작하자, 스님을 따라 걸음을 옮기는 동참대중은 시왕번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흥겨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악업을 소멸하고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의식인만큼, 엄숙함보다는 대중들의 환희심을 표현하는 청련사의 전통적인 의식이다.


양주 청련사는 10월 14일 경내에서 생전예수시왕생칠일재 회향법회를 거행했다.

동참 대중들이 금은전이 담긴 경함을 이운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천수경〉 독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마치자 대중들이 금 · 은전이 담긴 경함을 머리에 올린 채 신중한 발걸음으로 고사단을 향했다. 모든 대중이 머리 위에 경함을 올린채 한 줄로 길게 이어지는 모습은 그 자체로 신심의 상징이다.

본격적인 생전예수재는 합장게와 복청게, 천수바라와 도량게, 법고의식, 상단예불로 시작됐다. 위패와 장엄물 등을 태우며 법회의 공덕을 일체중생에게 회향하는 봉송과 회향이 시작됐다. 동참대중은 금은전과 경전이 불속에서 타올라 재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공덕을 쌓고 번뇌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길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했다.

청련사 생전예수재는 이 같은 고유한 의식의 가치와 전통의 계승을 인정받아 현재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주 상진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내가 고통 받고 힘든 이유가 모두 우리의 업장임을 잊고 산다"며 "생전예수재는 과거의 업장을 청산하고 좋지 않은 묵은 습을 소멸함으로써 다가올 미래를 평안하게 마주하기 위한 의식"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청련사는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정성스러운 방식으로 매년 생전예수재를 봉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전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련사는 이를 위해 도제 양성에 매진해 오고 있으며, 배출된 인원만 600여 명에 달한다.

108나한 다례재 봉행

무등산 약사사 10월 12일
나한전 건립 10주년 기념

무등산 약사암(주지 무진)은 지난 10월 12일 나한전 건립 10주년을 기념해 다례재를 봉행하고, 무등산 중요 기도처로 알려지고 있는 108나한에 대한 공덕을 찬탄했다.

가을비가 내리는 중에도 대웅전과 나한전에서 봉행된 다례재에는 회주 범종 스님(송광사 수좌)을 비롯해 무진 스님, 신도회 등 100여 명의 대중이 동참했다. 이날 다례재에서는 새로 간행된 약사암 법요집과 천도의례집을 부처님께 봉정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불교의례에 이어 경과보고, 봉정식, 육법공양(문수월 외), 법문, 축하공연(사랑무), 봉헌시 낭송(고순남), 축하공연(달맞이 무용), 사홍서원 등이 진행됐다.

범종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도 깨달음을 통해 너도 나도 모두 부처님이다. 모두 다 언젠가는 전부 부처가 될 수 있다. 결국 내가 주인이 되는 종교이다"라고 격려했다.

주지 무진 스님은 "나한전은 2011년 점안식을 봉행했다"며 "앞으로 신도들의 좋은 기도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암사 역대선조사 추모 추다례

태고총림 선암사, 10월 14일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시각)는 지난 10월 14일 경내 진영당과 응진당 앞마당에서 선암사 역대 선조사님들을 추모하는 추다례를 봉행했다. 〈사진〉

이날 추다례에는 태고총림 방장인 지암 스님을 비롯해 선원장 상명 스님, 주지 시각 스님과 소임자 스님, 문도스님, 신도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암 스님은 "오늘 날씨가 좋은 것은 선조사님들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선암사가 더욱더 안정되고 여러 사중스님들의 신념이 부처님께 전해져 선암사가 계계승승하기를 기원드린다"고 격려했다.

주지 시각 스님은 "선암사 선조사님들께 다례를 올리는 소승의 마음은 조계종과의 소송으로 인해 많은 응어리가 있다"며 "응어리가 하루빨리 풀어지기를 학수고대하며 불보살님께 기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다례의식은 선조사스님들의 뜻을 받들고 그 어른들의 법이 계계승승하기를 바라는 법석"이라고 "잘 잇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선암사는 매년 봄과 가을에 역대조사들을 추모하는 다례재를 봉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가족들이 함께 만드는 '요리대회' 개최

어청련. 10월 9일 사찰음식 주제

가족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함께 즐기는 요리경연대회가 10월 9일 사찰음식체험관에서 열렸다.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대표 동천)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동련 광주지구(대표 지장)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이 참여해 '자연아 행복해' 라는 주제로 채식요리를 만들어 가족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경연대회에는 9개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동천 스님, 도계 스님(소원정사 주지), 무등 스님(천룡사 주지), 해청 스님(원효사 주지), 이송희 자비신행회 대표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경연과 심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오후 1시 30분 불교의례에 이어 심사위원 및 심사기준 소개, 요리만들기, 시상식으로 이어졌다.

1시간여간 진행된 열띤 요리 경연 결과, 1등 붓다상에 김범수 가족, 문수상에 조재익, 보현상 장민경, 사리불상 이성원, 목건련상 김새봄, 마하가섭상 이지후, 아나율상 박진우, 아난다상 정유정 가족 등이 각각 선정됐다.

엄마, 형들과 함께 제철 과일인 사과로 '애플파이' 를 만들어 대상인 '붓다상' 을 수상한 김범수(10) 군은 "자연은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어 살아갈 수 있게 했다"며 "그래서 그 계절에 나오는 식재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동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가족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가족과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행사를 통해 마음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10월 9일 사찰음식체험관에서 열린 경연대회.

한편 동련 광주지구는 지난 2018년부터 가족들이 참여하는 요리법회를 매월 개최해 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3년 가까이 요리법회에 참여한 가족들의 경연형식으로 진행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산 성불사, 금강역사상 점안법회 봉행

10월 13일 전통방식으로 점안의식 거행해 '눈길'

군산 성불사(주지 종명)가 10월 13일 석조금강역사상을 봉안하고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로써 성불사는 금강역사상 조성과 석등불사, 불교성전 봉안 불사, 목조 대문 불사 등 창건 40주년을 맞아 진행했던 예정된 불사를 마무리했다.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영산 스님, 법진 스님, 현진 스님이 불교전통방식으로 점안의식을 거행했으며, 개암사 주지 종고 스님과 불사에 동참한 불자들 50여 명만이 참석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했다.

이번에 조성된 금강역사상은 밀적금강과 나라연금강상으로 각각 높이 150cm 좌대 50cm로 불보살님들과 부처님의 법을 수호하는 것은 물론, 성불사의 성보문화재인 석가여래 행적송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석등 2기를 입구 좌우측면에 봉안해 도량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전법의 등불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성불사 주지 종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은사스님이신 벽송당 재훈 스님께서 전법과 포교의 도량으로 성불사를 창건한 지 올해로 40년이 됐다"며 "그동안 크고 작은 불사에 동참해주신 여러 불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산 성불사는 10월 13일 석조금강역사상을 봉안하고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7 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원장 혜 안
사부대중일동
한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비로소
말다운 말 행다운 행을 할 수 있다
- 대행선사법어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26-12(천곡동)
Tel 052)295-2335 Fax 052)295-2336

현대불교신문 창간 27 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지원장 혜 연
사부대중일동
어떤 급한일이 있어도 자기를 한번 돌아보라.
그런 마음의 여유가 대인을 만든다.
- 대행선사법어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45-230
Tel 055)643-0643 Fax 055)643-0642

현대불교신문 창간 27 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사부대중 합장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35
Tel 055)342-6639, 345-9900 Fax 055)346-2179

日, 지역 이미지 컬러로 불교용품 제작

젊은 스님들의 디자인, 해외도 호응

고베시 지역 이미지컬러 활용해
승복 · 불교용품 등 기획해 제작
스님 모임 '코베 테라즈' 디자인
젊은 신도 교류위한 합동법회도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의 개항지로도 유명한 항구도시 고베에서 만들어진 지역 이미지 컬러를 이용한 승복과 불교용품이 화제다. 젊은 스님들의 디자인과 기획으로 완성된 제품들로 해외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0월 9일 고베신문은 지역과 함께하는 불교상품에 대해 보도했다.

고베시 개항 150주년을 기념해 고베의 이미지를 응축해 만들어진 색상 디자인인 '고베 타탄' . 고베 타탄은 항구도시인 고베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개항기의 흰 대리석, 정비된 도시를 상징하는 격자무늬로 이루어진 디자인이다. 고베 타탄은 이미 고베시의 대표 디자인으로 교복이나 설치미술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고베시의 젊은 스님들은 지역주민들과 접점을 늘리기 위해 이 고베 타탄을 이용한 승복과 불교용품을 기획했다.

고베시 소재의 정토진종 사찰의 젊은 스님들의 모임들인 '코베 테라즈(Kobe寺s)' 가 기획한 이번 제품들은 정토진종의 약식 가사인 윤가사(輪袈裟)와 염주주머니다. 코베 테라즈의 소에 잇토 스님은 "이전부터 사찰의 젊은 신도들 간의 교류를 위한 합동 법회 등을 해왔다. 이번 제품 제작도 젊은 세대와 지역사회에 불교가 녹아들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속 불교의 역할과 지역상생을 위해 만들어진 '고베 타탄 윤가사' 를 목에 건 스님들. 사진출처=고베신문

잇토 스님은 코로나 19의 심화로 법회나 행사의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불교가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고민해 왔다고 토로했다. 모임에서도 고민에 대한 회의가 진행 되던 중 회원인 츠모리 슈쥰 스님이 코베 타탄을 이용한 제품을 건의했다. 슈쥰 스님은 "다른 사찰의 선배스님으로부터 '코베 타탄으로 뭔가 만들어 보는 건 어떤가' 라고 들은 것이 기억났다"며 기획의 계기를 전했다.

코베 타탄의 상품권을 소유한 '코베 타탄 협의회' 측도 "사찰측에서 먼저 사용하겠다고 연락이 온 것은 처음이라 매우 놀라웠다. 분명 화제가 될 것이라 생각해 사용요청에 응했다"고 전했다. 종단 측에서도 스님들의 기획에 동의해 종단의 문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가가 내려졌다.

시제품을 착용하고 촬영한 사진 등을 SNS로 광고한 결과 교계 안팎의 호응이 쏟아졌다. 슈쥰 스님은 "시제품으로 만든 염주 주머니 100개는 1개월 만에 완판됐다. 윤가사는 이미 일본각지로 판매는 물론, 미국 등의 해외교구에서도 주문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스님들의 가사를 본 신도들의 요청으로 신도용의 윤가사도 추가적으로 제작되어 판매됐다.

수익은 지역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코베 테라즈 측은 "지역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기에 지역에 공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추가적인 제품의 증산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中 틱톡내 '사찰 연예인' 계정 제한돼

〈TikTok〉

불교를 이용한 지나친 상업행위 논란

동영상 어플리케이션인 '틱톡(TikTok)' 과 중국내 최대 동영상 어플리케이션인 '둬인(抖音)' 에서 불교를 이용해 유명세를 모으던 '사찰 연예인' 의 계정들을 정지 및 영구동결해 화제다. 10월 5일 일본의 'J-캐스트 트랜드' '라이브도어 뉴스' 등의 매체들은 중국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소식을 전했다.

틱톡과 둬인 측은 "지난 9월 말까지 '사찰 연예인' 으로 불리는 48 계정에 대해 정지 조치를 취했으며, 이 중 7 계정은 영구동결했다. 또 이들이 올린 컨텐츠 중 148건은 삭제했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RED' 에서도 비슷한 3계정이 정지되고 70개의 컨텐츠가 삭제됐다.

사찰 연예인이란 중국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사찰을 참배하거나 불교와 관련된 사진, 영상, 메시지 등을 SNS에 올려 유명세를 얻은 인플루언서를 말한다.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면서, 여러 유명 사찰이나 스님들이 근황을 알리기 위한 SNS 계정들을 개설하면서 불교계 관련 컨텐츠가 급증했다. 특히 짧은 시간의 영상을 게시하는 틱톡과 둬인은 설법영상이나 사찰의 명소를 안내하는 영상으로 큰 반향을 얻었다.

이러한 흐름을 이용한 사찰 연예인들은 불교관련 컨텐츠를 이용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증대했다. 유명사찰을 참배하거나, 사경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등의 내용의 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자신을 브랜딩했다. 심지어는 더욱 불교스러운 느낌을 내기 위해 가사나 장삼과 같은 승복을 착용하거나 불보살의 상호를 따라한 화장을 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불교와 사찰을 이용해 자신을 브랜딩한 '사찰 연예인' 들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다. 사진출처=라이브도어 뉴스

문제는 이러한 사찰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지나친 상업광고, 혹은 개인 사업으로 이익을 챙겼단 점이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검소함과 금욕을 중요시하는 불교의 이미지를 이용하면서 실제로는 해외명품 브랜드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노출시키고, 일부 고급 불교용품을 가장한 고가의 액세서리나 의상 등에 대한 구매유도를 이끌어 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품들은 대부분 그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거나, 상품이 도착하지 않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한 구매자는 "신심이 깊어 보이는 사찰 연예인의 홍보라 믿고 구매했다. 그러나 도착한 상품을 보니 일반 소매상에선 3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는 조악한 상품이었다"고 증언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SNS를 통한 지나친 상업 활동이 논란이 일면서 당국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 중국당국은 SNS 운영기업들에 대해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하고, 청소년들에 대해 악영향을 미치는 계정들을 단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찰 연예인들에 대한 계정 정지와 컨텐츠 삭제들 역시 당국의 요구에 따른 일환이나 해당 조치에 대해 불교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누리꾼은 "공경받아야 할 사찰과 스님들, 불교문화가 상업적으로 소비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의견을 공개했다. 중국 현지 언론들 역시 "불교가 자본주의에 이용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더 빠른 규제가 필요했다"며 틱톡과 둬인의 조치에 환영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맥코맥 박사, 예루살렘 국립대 교수 임명

비교종교학 · 아시아연구학과서 불교학 전승

유명한 부탄 승려이자 영화감독 겸 작가인 종사르 켄체 린포체(Dzongsar Jamyang Khyentse Rinpoche)에 의해 설립된 켄체(Khyentse) 재단은 이언 맥코맥(Ian MacCormack · 사진)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국립대학교인 히브리대학교(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비교종교학 · 아시아연구학과의 불교학 교수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켄체 재단

해당 교수직은 켄체 재단의 후원을 통해 운용된다.

맥코맥 박사는 2018년 하버드대학교에서 종교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의 신조 이토 박사의 불교학 펠로우연구원으로서 2년을 보냈다. 그는 티베트 역사 및 문학 연구를 중점으로 티베트의 초기 현대 종교와 정치를 전문 연구해 왔다.

또한 2015~2017년 하버드 신학대학(Harvard Divinity School)에서 강사로 역임하고, 버클리대학에서 박사후과정을 이수했다.

히브리대학 종교학과 부교수인 에비아스타 슐만(Eviastar shulman)은 "우리는 늘 티베트 불교에 대한 탁월한 전문지식과 역사적 이해를 갖고 있으면서도 비교종교학 및 철학적 관점에서 불교를 탐구할 수 있는 차세대 불교 전문가를 임명하길 고대해 왔다"며 "우리 대학에서 이언 맥코맥 박사를 고용하게 돼 기쁘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맥코맥 박사는 우리 학생들과 티베트 역사와 문화 간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맥코맥 박사는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의 존경받는 교수진에 합류하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오랫동안 존경해 온 티베트, 불교, 아시아학 전문과들과 함께 일하게 될 특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켄체 재단을 통해 밝혔다.

한편 켄체 재단은 2001년 종사르 켄체 린포체가 부처님 가르침을 포교하고 불교 연구 및 수행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이다.

켄체 재단을 설립한 종사르 켄체 린포체는 1999년 영화 '컵' 연출 감독으로 데뷔한 후 같은 해 제4회 부산국제영화제 국제영화평론가 협회상과 제24회 토론회국제영화제 관객상을 수상했고, 2004년 제6회 도빌아시아영화제 관객상 등을 수상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말레이시아 켁록시 사원 화재…일부 소실

지난 12일 화재 발생, 인명 피해는 없어

지난 12일(현지 시간) 새벽 말레이시아 피낭섬에 있는 중국식 불교 사원인 켁록시(Kek Lok Si) 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사진〉



더선데일리(the sun daily)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페낭 소방구조대 운영 책임자 무하마드 노리샴 이브라힘(Muhamad Norhisham Ibrahim)은 새벽 2시56분경 화재 신고 전화를 받고 파야 테루봉 소방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했다고 밝혔다.

무하마드 노리샴 이브라힘은 "소방관이 도착했을 때 불길이 사원의 건물 한 채를 집어 삼키고 있었다"며 "화재를 진압하기까지 약 1시간이 소요됐다,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고 경과를 보고했다.

소방구조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오전 6시경 완전히 진압됐고, 18.5㎡ 건물의 70% 이상이 소실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전해진다.

이번 화재에는 소방차 3대와 50여 명의 소방구조 인력이 투입됐다.

해당 사원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불교 사찰이자 동남아에서 가장 큰 중국식 불교 사찰로서 중요한 문화 관광 명소로 꼽힌다. 미얀마, 중국, 타이 등 3개국의 장인들이 1890년부터 1930년에 걸쳐 건축해 각국의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다. 1000개가 넘는 계단을 통해 탑 꼭대기에 올라가면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으며, 정상에 있는 36.57m의 관음상으로 유명하다. 박정현 객원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27 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처님 마음 우리의 마음 월봉사
부설 룸비니 유치원
운영 울산광역시 시립노인 요양원
주지 보화
신도회일동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55번지(화정동)
052)251-4602

현대불교신문 창간 27 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미륵산 용화사
주지 종묵
사부대중일동
템플스테이
경남 통영시 봉수로 107-82(봉평동404)
전화 055)645-3060, 649-3060
템플스테이 : ts6463090@templestay.com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www.garden-heating.com 문의 010-3267-1263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13~10/1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현천 스님	선요가	6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구슬	김성철	오타쿠
2	지옥에서 연꽃을 피운 수도자 아내의 수기	변영희	바른법연구원	7	산스끄리뜨 금강경 역해	현진 스님	불광
3	나를 찾아가는 십우도 여행	오강남/성소은	판미동	8	스스로 행복하라	법정 스님	샘터
4	아난존자의 일기 1,2	범라 스님	운주사	9	티벳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초펠	하늘호수
5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법륜 스님	정토	10	윤홍식의 수심결 강의	윤홍식	봉황동래

책세상

어떻게 살 것인가, 선시에서 답을 찾다



조용히 솔바람 소리를 듣는 것
동명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펴냄
1만 4천원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마음은 항상 명료하게 입은 함부로 열지 말라 / 한가한 바보처럼 살다보면 마침내 도를 얻으리니 / 수행자의 바랑은 송곳을 감추어 끝을 보이지 않아야 / 이른바 훌륭한 고수로서 진실한 소식 얻으리"

책은 진각 혜심 스님이 제자 요묵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쓴 시, 선시(禪詩)로 시작한다. 책의 큰 주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 저자는 출가하기 전부터, 아니 어쩌면 태어나자마자 자신이 지니게 된 화두였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한때 동화책에서 길을 찾았고, 한때는 위인전에서 길을 찾았고, 한때는 세계 명작에서 길을 찾았고, 한때는 스님들의 에세이에서 길을 찾았고, 한때는 시(詩) 속에서 길을 찾았고, 한때는 철학사에서 길을 찾았다며 책을 시작한다.

그리고 결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선사들의 선시를 통해 길을 찾고 있다고 고백한다. 책은 저자가 자신이 읽었던 선시에서 느끼고 공부했던 내용들을 대중에게 전한다. 곧 '어떻게 살 것인가' 에 대한 치열한 생각들이다.

저자인 동명 스님은 1989년 등단해 시인이자 문학평론가로 20여 년 넘게 문단에서 활동했던 차창룡이다. 문단에서는 그의 시와 문학에 주목했고 그가 그려갈 앞날에 대해 기대가 컸다.

그러던 2010년의 어느 날, 저자는 조계종 前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출가했다. 차창룡의 이름은 그때부터 동명이었다.

수행자로서 기본을 익히고 신심을 다진 지 10년이 지나서 첫 책 〈조용히 솔바람 소리를 듣는 것〉을 냈다. 책에서 저자는 선사들의 선시를 대하며 자신이 느끼고 얻었던 사유와 마음의 변화를 밝히고 있다. 태고 보우, 진각 혜심, 청허 휴정, 나옹 혜근, 사명 유정 등 한국불교사에서 빛나는 서른두 분의 선사들이 남긴 선시를 골라 실었다.

그리고 선시를 읽는다는 것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삶의 길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적고 있다. 저자에 말을 따른다면 선시를 읽는다는 건 선어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선지식들과 함께 삶의 길을 찾는 가슴 벅찬 일이다.

저자는 선시 32편을 실고 시 한 편 한 편을 마칠 때마다 절절하게 느끼고 깨달았던 공부를 적고 있다. "팔정도의 첫 덕목은 정견이다. 무엇을 바로 보아야 할까? 먼저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을 바로 보면 세상도 바르게 보일 것이다."

한 편의 선시에서 '정견' 을 공부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선시는 예술작품이기도 하지만,



저자인 동명 스님이 환하게 웃고 있다.

혜심 등의 선시 32편과 교훈 실어
선시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찾아
"선시 읽는다는 건 시공 초월해서
선사와 함께의 명상 가슴벅찬 일"
시인 차창룡서 출가자 동명으로

또 한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축적으로 알려주는 사구게(四句偈)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겨우 네 줄짜리 시 한 편에 어쩌면 그토록 많은 이야기와 공부가 들었을까. 저자의 공부를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에 대한 문제는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만난다.

선시란 무엇인가.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일어나는 마음의 모습을 시(詩)라는 형식을 빌려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다. 실체가 없는 그 무엇을 굳이 글이라는 언어를 빌려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모순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선시의 오묘한 의미가 존재한다.

조화 아닌 조화, 논리 없는 논리, 목적 아래 모든 것을 초월한 세계를 선어라는 상징적인 말로 보여주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저자인 동명 스님은 1989년 등단해 20여 년간 시인이자 문학평론가로 활동했다. 그리고 지금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의 길에 있다. 책 〈조용히 솔바람 소리를 듣는 것〉에서 동명 스님은 선사들의 선시에 대하며 일어나는 사유와 마음의 변화를 극히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

선시를 읽는 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삶의 길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유해 보는 시간이다. 어쩌면 선시를 읽는다는 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선지식들과 함께 명상을 하는 가슴 벅찬 일이 될 수 있음을 일러준다. 서두에 밝힌 진각 혜심의 선시를 소개하며 우직하게 수행해나가는 것이 자신이 갈 길이라고 말한다.

이와 함께 선시를 통해 부처님의 길, 불교의 길, 수행자의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또 묻는다.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살 것인가' ,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에게 선사들이 남겨준 선시는 깊은 마음을 비춰주는 달빛과 같다.

"보슬보슬 보슬비가 천기를 누설하고 / 불어오는 맑은 바람 조사의 뜻 분명하네 / 따지거나 여기저기 날뛰지 말고 / 다만 시절 인연을 기다려라 -태고 보우 '어디에 머물리요 (何住)' 전문"

저자는 머리말에서 자신이 감명 깊게 읽었던 또 한 편의 선시를 소개한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멋진 삶의 지침이 다시 있겠는가. 송곳 끝을 감추고 시절 인연을 기다리는 것, 다른 말로 '중도(中道)' 라고 이름한다."고 전한다.

▲저자 동명 스님은?

2010년 지홍 스님을 은사로 해인사에 출가하여 사미계를 받았으며, 2015년 중앙승가대를 졸업한 후 구족계를 받았다. 현재 중앙승가대 수행관장으로 재직하면서 광명시 금강정사에서 살고 있다. 1989년 계간 〈문학과사회〉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1994년 세계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 부문에 당선하여 시인이자 문학평론가로 20여 년 활동했다. 출가 전에 펴낸 시집으로 〈해가 지지 않는 쟁기질〉 〈미리 이별을 노래하다〉 〈나무 물고기〉 〈고시원은 괜찮아요〉 〈벼랑 위의 사랑〉 등이 있고, 기행산문집 〈인도신화기행〉 〈나는 인도에서 붓다를 만났다〉 등이 있다. 1994년 제13회 김수영문학상을 수상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유유히 날아가는 저 갈매기의 한가로움을 비웃을 정도가 되려면, 위대한 진리인 중도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중도에 얽매인다면 중도도 중도가 아닐 것이다. 중도, 중도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중도라는 것도 중도라는 이름일 뿐이므로,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면 중도가 아니라고 태고 보우국사는 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다. 오늘은 그저 날아가는 갈매기보다 한가한 선사의 여유를 마음속으로 그려 볼 뿐이다. _16쪽

대부분의 사람은 이 시처럼 자기 자신을 본다. 능력도 없고 못나기도 한 자신을 미워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애착하기도 하며, 부족한 자신을 불쌍해하기도 한다. 이렇게 항상 번뇌에 휩싸여서 살아가게 마련이다. 약 700여 년 전의 선승 진각혜심은 연못 속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한다. 그는 연못 속에 비친 자신을 마치 우연히 만난 제3자인 것처럼 말한다. 혜심은 그림자와 마주 보며 말없이 미소만 짓는다. _20쪽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더 이상 고요한 곳은 없다. 깊은 산골도 이제는 세상과 완전하게 단절되어 있지 않다. 산중에서도 세계 곳곳을 구경하고,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길이 열려 있다. 깊은 산골이 깊은 산골이 아니듯이, 복잡한 도심이라도 복잡한 도심이 아니다. 어디에 있건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다스릴 수 있다면, 그곳이 최고의 청정 도량이다. _6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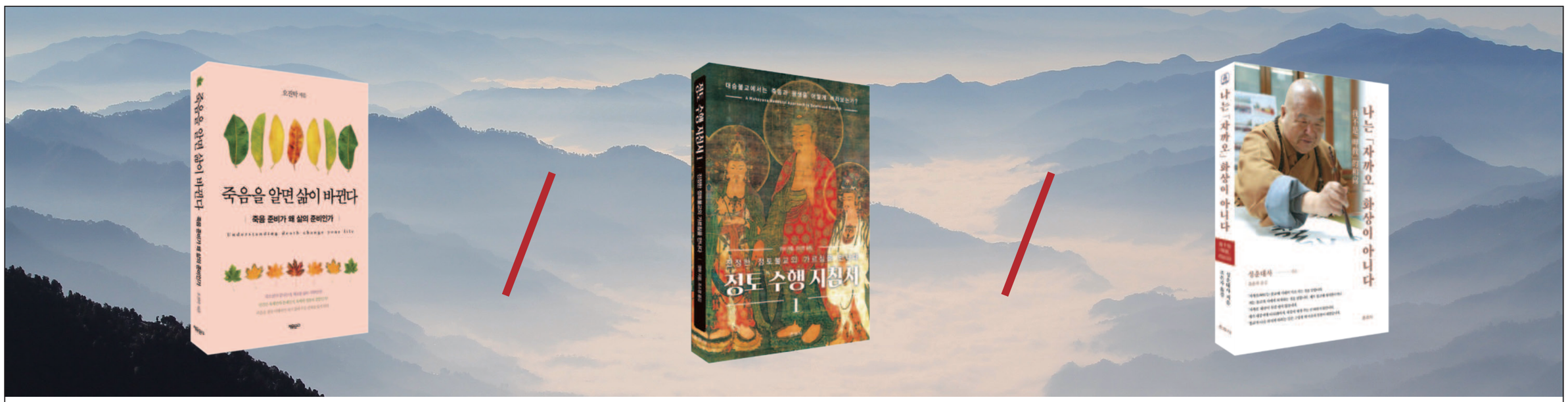
엄밀히 말하면, 깨달음은 경전 속에도 좌선 속에도 있지만, 밤하늘에 홀로 굴러가는 달의 수레를 감상하지 못한다면, 경전 속에도 좌선 속에도 없다.

수행이란 바다처럼 맑은 가을 하늘에 유유히 떠 있는 달 한 척을 보는 것! 삶이란 가을 하늘을 서서히 달려가는 달의 수레가 오직 혼자인 것을 확인하는 것! _73쪽

부처님의 가르침도 복밭을 열어젖힌 땅처럼 이 땅과 함께 오래되었고, 덕의 집을 열어젖힌 하늘처럼 저 하늘과 함께 오래되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발명發明' 하신 것이 아니라 '발견發見' 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_117쪽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이 시 속에 답이 있다. 가진 것 없이 홀가분하게 수행에만 전념할 것이요, 한 곳에 안주하지 말고 진리를 찾아 바람처럼 돌아다녀볼 것이요, 온 산천을 다 다닌 후에야, 흰 구름에 누울 일이다.

'흰 구름에 눕는다' 는 표현에 오래 마음이 간다. 도대체 흰 구름에 눕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천 개의 산을 다 밟아본 후에야 그 의미가 와 닿을 수 있을까? 그래, 우선 천개의 산에 쌓인 눈을 모조리 밟아보는 거야. 그때는 '흰 구름에 눕는다' 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리라. 그때는 나도 흰 구름 위에 누워보리라! _119쪽



웃으면서 떠나야 진짜 행복한 삶이다!
죽음을 알면 삶이 바뀐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죽음은 삶과 동전의 양면이다.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해야 삶을 유익하게 잘 살 수 있다.
오진탁 지음/국판/376쪽/값 18,000원/자유문고

진정한 정토불교의 가르침을 만나다!
정토 수행 지침서 1
정토불교란 무엇이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정토수행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왜 정토수행이 최고인가?를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영화 지음, 조소영 옮김/국판/328쪽/값 15,800원

불교에 기대지 말고 기여하라!
나는 자까오 화상이 아니다
'자까오'는 '불교에 기대어 먹고 사는' 것을 말한다. '내가 불교에 의지하지 말고, 불교가 나에게 의지하게 하자'를 평생 지켜온 성운대사의 삶을 만날 수 있다.
성운대사 지음, 조은자 옮김/신국판/380쪽/값 1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코로나 잊게 하는 '오케스트라 광명진언'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제29회 정기 연주회
'부처님을 노래하다 II'

10월 26일 오후 7시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오케스트라를 위한 광명진언' 최초로 공개해
찬불가 · 피아노콘체르토 등 다양한 레퍼토리
동국대 힐링코러스 · 황상미 · 전장수 등 출연

"잠시나마 대중을 위한 힐링의 시간을 마련해
모두의 새로운 출발에 용기 희망 드리고 싶어"



1999년 창단한 니르바나 오케스트라는 창단 후 꾸준히 정기연주회와 산사음악회 등 각종 음악회를 통해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사진은 2017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공연 모습.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서양 클래식 음악과 불교를 접목해 음성포교의 길을 넓혀온 니르바나 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 이하 니르바나 오케스트라)가 10월 26일 저녁 7시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제29회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부처님을 노래하다 II'를 개최한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모아 개최하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가곡과 찬불가, 아리아 등으로 구성된 다채로운 레퍼토리와 2019년 강형진 단장이 작곡해 초연한 '광명진언' 합창곡을 오케스트라 곡으로 편곡해 처음 선보인다.

광명진언 합창곡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어두운 미망에서 벗어나 깨달음과 광명으로 나아가자는 내용으로, 진언을 반복하며 마음 깊은 곳 밝은 지혜를 만나듯, 도입은 아주 작은 소리로 시작하여 같은 주제의 멜로디가 반복되다가 조금씩 변형되면서 점차 힘찬 소리로 바뀌어 힘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전한다.

'부처님을 노래하다 II'의 부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지난 2013년 KBS 1TV 'KBS 중계석'으로 방송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던 '부처님을 노래하다 I'을 잇는 것으로, 동국대학교 불교음악아카데미 동문으로 구성된 동국대 힐링코러스(단장 김흥순)와 강사진이 함께한다. 백윤학(영남대학교 교수) 지휘자를 필두로 소프라노 이정화, 소프라노 황상미, 피아노 김태연과 특별출연자로 클래식 기타 연주가 전장수가 출연해 코로나19 등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대중들에게 힐링의 음악을 전한다.

△공연 1부에서는 고난에 처한 대중에게 가장 필요한 진언인 광명진언을 오케스트라 곡으로 편곡한 '오케스트라를 위한 광명진언'을 시작으로 소프라노 황상미의 '아 꿈속에 살고 싶어라(C. Gounod)', '환상의 부처님(서근영 작사 · 작곡)', 힐링코러스의 '바람(최영철 작사 · 작곡)', '남촌(김동환 작사, 김규환 작곡)'이 이어지고, 전장수(기타)가 연주하는 스페인 대표 작곡가 타레카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인생의 단순하고 처절함을 제목과 곡조로 잘 표현한 영화 주제곡 '카바티나'가 이어진다. 동국대의 중창 '첫사랑(시, 김효근 작곡)', '좋은 인연(덕신 스님 작사, 이종만 작곡)'에 이어 니르바나 오케스트라의 연주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박춘석 작사 · 작곡)'이 이어진다.

△공연 2부에서는 김태연의 피아노 연주 '모차르트의 피아노 콘체르토 No.21 KV467 2악장'을 시작으로 소프라노 이정화의 '그리운 금강산(한상억 작사, 최영섭 작곡)', '보석의 노래(C. Gounod)', 힐링코러스의 '마음의 법신 성불(법륜 작사, 박이제 작곡)',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푸시킨 시, 최가희 작곡), '아리랑 모음곡(이선택 편곡)이 이어지고, 니르바나 오케스트라의 찬불가 '연꽃 피어 오르리(덕신 작사, 김회경 작곡)', '자비하신 부처님(덕신 작사, 김경숙 작곡)'이 대미를 장식한다.

강형진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단장은 "코로나로 모두 위축되어 모임 자체가 힘든 때에 온 ·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꾸준히 모여 연습해 온 동국대 힐링코러스와 함께 니르바나 오케스트라가 많은 분들께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에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고 공연의 취지를 밝혔다.

니르바나 오케스트라는 1999년에 강형진 단장의 원력으로 체임버 형식의 소규모 실내악단으로 출범했다. 2002년 서울시로부터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되면서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로 명칭을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창단 후 꾸준히 정기연주회를 열고 매년 산사음악회와 결식아동돕기 음악회, 근로자를 위한 열린음악회 등 불교계 안팎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며 음성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2005년 해체의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불교계 안팎의 후원과 흔들리지 않는 단원의 불심원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그 이름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공연에 함께하는 힐링코러스는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불교음악아카데미에서 찬불가 지도사 1 · 2급과 힐링스쿨 수강생 동문합창단이다. 지휘 이정화, 반주 김태연, 김흥순 단장을 주축으로 40여 명의 합창, 중창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7년 발족식을 시작으로 여러 음악회를 통해 많은 발전과 레퍼토리를 넓혀가고 있다.

2014, 2016, 2017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 특별출연, 2016, 2017 중동난민 돕기 자선음악회, 건봉사 불이문화제 특별연주, 선운사 산사축제 찬조출연 등 공연과 봉사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전석 3만 원이며 공연 및 티켓 문의는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사무국(02-415-2599)으로 하면 된다.

정암사 수마노탑 국보승격 1주년 기념전

'시공의 인연을 보다'展, 하이원그랜드호텔 10월 19일~11월 4일



장이규 作, 정암사의 여름

태백산 적멸보궁 정암사(주지 천웅)가 수마노탑 국보승격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개최한다.

정암사는 개산문화제가 열리는 10월을 맞아 10월 19일부터 11월 4일까지 강원랜드 하이원그랜드호텔 5층 컨벤션 로비에서 정암사 수마노탑 국보승격 1주년 기념 회화 13인 전 '시공의 인연을 보다'를 개최한다.

지난 8월 정선 삼탄아트마인과 라메르 갤러리 전시에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보물이었던 정암사 수마노탑이 국보(제332호)로 승격됨을 널리 알리고자 2020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견 작가 12인과 정선군 사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작가 1인이 참여해 수마노탑과 정암사 관련한 작품 39점을 선보인다.

수마노탑의 국보 승격과 아울러 5대 적멸보궁인 정암사를 널리 알리기 위한 이번 전시회는 정선과 서울로 이원화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를 위해 선정된 13인의 참여 작가들에게 수마노탑과 정암사를 주제로 한 작품을 2점 씩 의뢰했으며,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가의 세계관이 뚜렷한 작품 13점을 함께 전시한다.

전시에 앞서 정암사 주지 천웅 스님은 13인 작가들의 작업을 돕기 위해 정암사와 수마노탑의 유래와 자장율사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작가들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번 현장 스케치를 거쳐 작품을 완성했다.

정암사 경내에서 약 100m 위에 떨어진 적멸보궁 뒤편 산비탈에 자리하고 있는 수마노탑은 높이 9m, 지대석 너비 3.04m, 상륜 높이 1.7m의 탑으로 6.5~5.8cm, 두께 5~7cm의 크고 작은 모전석으로 쌓은 탑이다.

지대석은 모를 죽인 화강석으로 6단을 쌓았으며, 탑신부를 받치기 위해 모전석재로 2단의 괴대를 마련했다.

정암사 수마노탑은 형태가 정제되고 기법이 정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개우각 추녀 밑의 상향은 고려시대의 양식을 잇고 있고, 청동제 상륜의 투각수법 또한 시대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탑 앞의 배례석에 새겨진 연화문이나 안상문 등도 고려시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1972년 해체수리 과정에서 3층 옥신부터 기단부 사이에서 5개의 탑지석이 발견됐고, 기단부 최하단석 밑의 적심부에서는 부처님 진신사리와 청동합, 은제외합, 금제외합 등의 사리장엄구, 염주, 금구슬 등이 발견되어 조선시대 말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보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알려진 탑지석에 의하면 탑의 현재 모습은 1653년 중건 때의 모습으로, 탑 앞의 배례석과 기타 경내에 남아있는 여러 유물과의 비교 · 검토에서 그 초층의 하단은 고려시대로 추정되고 있다.

2020년 6월 보물 제410호에서 국보 제332호로 승격된 정암사 수마노탑은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 국보 지정을 신청했지만 근거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부결됐었다. 전시문의 정암사 033-591-2469.

박재완 기자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 문제는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의 정의 : 나와 다른 음의 에너지(죽은사람 · 동물 · 식물 · 기타 모든 영적 기운)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함.
■ 빙의문제의 해결 :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음적 에너지(영가기운)를 몸으로부터 분리, 천도해 주어야 이상증세, 이상행동이 바로 잡아짐(퇴마와는 다름). 약을 먹거나 병원치료도 효과가 나타남.
■ 여러 빙의증세 및 음적 에너지(영가기운)의 여러가지 영향
① 이사후 집이나 가게 등에 머물러 있는 경우
(집에 우환 발생, 꿈자리 사나움, 가위눌림, 가족간 불화, 가게터와 사업장 여관,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사람이 죽은 경우 장사가 안됨, 사고나 싸움이 잦음)
② 사람에게 빙의된 경우 병원에서 이상은 없다는데 증세는 여전한 경우
가위눌림(밤마다 또는 가끔씩, 수많은 꿈에 시달림, 비몽사몽, 자고나도 몸이 무거움. 토끼(잠들었다. 깨었다를 반복), 불면증(잠못 이룸)
③ 환청(이상한 소리 들림), 환각 증세 일어남
자살충동, 과다한 음주, 폭식, 불안증세, 우울증, 대인기피증, 알수 없는 통증, 초·중·고등학생 · 대학생 이상행동 폭력적 행동, 집중력 저하, 학습능력저하
④ 장례식장, 상갓집, 국내 및 해외여행 다녀온 후 이상 증세 있는 경우
⑤ 동물영가가 들어온 경우
많이 키우고 10년넘게 장사한 경우(집안에 급병, 급사, 우환, 각종사고), 집에 키우던 개, 기타 동물 잡아먹은 경우, 뱀술 등을 먹은 후 이상증세 있는 경우
⑥ 식물영가 (거목 및 꽃나무를 베어낸 경우)가 몸에 들어온 경우
- 머리, 가슴, 팔, 다리 찢어지는 통증이 있으나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
· 신기운에 의한 신병, 무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광증 있으신 분
· 병원 다니고 여러번 굿하고 천도재 해도 효과 못보신 분 · 정신과병원 오래 다녀도 차도가 없으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천도가능함) · 상황에 따라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타종교인, 무종교인 상담도 가능

■ 환자상태를 상담해서 문제 해결 프로그램으로 진행 - 육지에 계신 분 당일천도(아침 비행기, 오후 비행기) 가능!
■ 차후 지속관리 상담해 드림 (또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빙의치유전문상담사 (전문자격 갖춤) - 전생빙의 트레이너과정 수료!
■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영가, 신기운 제령 최고의 권위 실력 갖춤 - 20여년 경력, 임상 노하우 갖춤!
■ 원격치유가능 (외국에 있는 환자도 치유가능, 환자가 오지 않더라도 빙의 진단 및 해결)
◉ 오시는 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 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상담문의처 :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 영가천도 전문상담원 문의전화 (064)746-0789

국내최초 · 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공장에서 직접 제작 | 지상에서 단청 작업 | 현장 조립 설치



원적산 법명사 스틸 일주문 완공 사진과 작업 현장

스틸 고건축의 장점

1) 용접을 하지 않는다. (용접의 단점 : 장마철에 습기로 인한 녹 발생)
2) 스틸은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방음과 결로에 대한 단열)
3) 스틸은 지진과 화재에 강하다.
4) 11포, 9포까지 표현 할 수 있다. (국내 최초 벤처기업 인증)
5) 타 자재에 비해 공사비가 40% 저렴, 공기단축 (23년 축적된 기술력)
6) 좀 더 세련되고 화려하며 웅장하게 표현할 수 있다.

◉ 국내 최초 대철장 ◉ ◉ 산신각 2m×4m, 3m×4m 주문제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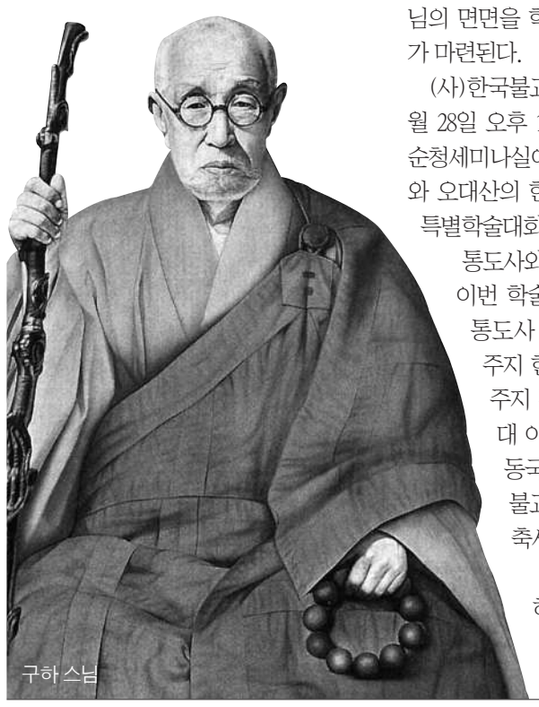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상담문의 010-5023-5050

구하 · 한암 통해 본 영축산 · 오대산 불교 지성사

한국불교학회 10월 28일 두 선지식 조명 학술대회

통도사 · 월정사 공동 주최
구하 · 한암 스님 학술 조명
"영축산, 오대산 선지식들의 살림살이 · 사상 확인 자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구하 스님

일제 강점기와 근대 해방공간에서 불교중흥을 이끌었던 구하 스님과 한암 스님의 면면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한국불교학회(회장 고영섭)는 10월 28일 오후 1시 동국대 혜화관 2층 고순청세미나실에서 '영축산의 구하 천보와 오대산의 한암 중원'을 주제로 추계 특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통도사와 월정사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제4교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과 윤성이 동국대 총장, 고영섭 (사)한국불교학회장이 참석해 치사와 축사를 할 예정이다.

통도사와 월정사를 대표하는 근현대 선지식을 공동으로 조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부로 나눠 진행되는 학술대회에는 구하 스님과 한암 스님의 사상과 생애를 총체적으로 조명하는 10편의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김지연 (사)한국불교학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1부 발표에서는 △구하와 한암의 관계 검토(이원석,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한암의 통도사 인연과 석담유성(石潭有性)(자현 스님,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구하 독립운동의 자료, 개요와 성격(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 △한암의 종단 인식과 조계종의 성립(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구하의 통도사 개혁과 그 현대불교사적 의의(최두헌, 통도사성보박물관 학예연구실장)가 발표된다.

2부는 최원섭 (사)한국불교학회 대외협력이사의 사회로 진행하며 △한암과 경봉의 서간문 법거량(윤창화, 민족사 대표) △구하의 문집과 통도사지 간행의 불교사적 의의(김순석, 안동국학진흥원 박물관장) △한암 · 탄허 · 희찬의 어록 및 증언록 간행의 불교사적 의미(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 불교문예학과 교수) △6.25 당시 통도사의 야전병원과 호국불교 역할(이성수, 불교신문 취재부장) △경봉과 탄허의 인연과 서간문(정도 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이 각각 대중에게 소개된다. 학술대회의 총평은 고영섭 회장이 맡는다.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고 회장은 "구하와 한암, 경봉과 탄허, 월하와 만화 등 두 산문의 집단 지성들은 영축산과 오대산을 넘어서서 한국 불교계의 수행과 포교, 교육과 역경, 불사와 문화창달 등의 분야에서 뚜렷한 지위와 확고한 위상을 확보해 오고 있다"면서 "한국불교학회에서는 대한시대 대일항쟁기와 해방공간 및 분단시대의 불교계를 주도해 온 영축산의 구하 천보와 오대산의 한암 중원 그리고 문중의 문도들로 구성된 불교계 집단 지성들의 행적과 사상을 정리해 현대 한국불교의 지성사를 조망해 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선지식에 대한 조명을 통해 대한시대 불교계 집단 지성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를 살펴볼 것"이라며 "불자와 학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하 스님은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에 통도사 주지와 삼십본산연합사무소 위원장, 불교중앙학림(지금의 동국대) 학장을 맡아 전법과 후학 양성에 힘썼다. 스님은 마산, 진주, 창녕 등에 포교당을 세우고 해동역경원(海東譯經院)을 설립하는 등 불교중흥과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해방 후 불교총무원장을 역임하고, 1965년 10월 3일 세수 94세, 법납 81세로 입적했다. 한암 스님은 조선불교 선교양종의 종정 및 조계종의 초대 종정을 역임하는 등 모두 4차에 걸쳐서 종정을 맡았으며, 근현대기 한국불교의 중흥과 전통 한국선의 부흥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한암 스님은 종정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일체 명예에는 연연하지 않고, 세간과 출세간의 일에도 관여하지 않은 채, 오직 상원사 선원에서 27년 동안 두문불출, 참선수행과 납자 지도에만 전념했다.


한암 스님

K-메타버스서 국보 반가사유상 만나볼까

국립중앙박물관, 제페토에 가상박물관 '힐링동산' 공개

가상 속 현실세계인 '메타버스(Metaverse)'에서 국보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이하 반가사유상)을 만날 수 있게 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은 "10월 8일 K-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국립중앙박물관 가상박물관을 구축하고 월드맵 '힐링동산(feat.국립중앙박물관 반가사유상)'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했다"고 10월 13일 밝혔다. 제페토 '힐링동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반가사유상 2점이 함께 존재하는 '메타버스'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관람객과의 만남이 제한되고 비대면 활동의 영역과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메타버스 콘텐츠의 소통 가능성에 주목해 왔다. 이에 따라, 디지털과 온라인에 기반한 새로운 경험과 소통에 익숙한 Z세대와 한국의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가상 박물관 구축을 제페토와 함께 시도했다. 제페토는 전 세계 2억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와 90%의 해외 이용자, 80%의 10대 이용자를 보유한 한국을 대표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제페토 '힐링동산'은 반가사유상의 미소와 사유의 철학이 전하는 치유와 힐링의 메시지를 글로벌 Z세대의 감성에 맞추어 공간으로 형상화하고 경험을 설계됐다. 가상 세계에서 반가사유상은 박물관 전시실이 아닌 자연의 빛이 가득한 환경 속에 존재한다. 이는 기존의 가상

임무 완수시 반가사유상 대면
글로벌 Z세대 취향 저격 눈길

박물관이 현실을 복제하거나 재현하는 방식에 집중되었던 것과 확연히 다른 점이다.

또한, 참여자는 이 세계 안의 대상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다른 이들과 실시간 소통도 할 수 있다. 방문자는 이곳에서 여러 가지 퀘스트(임무)를 완수함으로써 반가사유상에 가까이 다가가 대면할 수 있다. 반가사유상에 다가가는 여정은 주어진 기존의 게임처럼 퀘스트를 경쟁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롭고 평온한 휴식과 놀이의 과정으로 설계됐다. 유저들이 함께 어울려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 나누고 사진과 영상을 제작해 자신을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공개한 가상박물관 '힐링동산' 사용 화면.

이 같은 가상 박물관 '힐링동산'에 대한 유저들의 관심과 호응도도 높다. 실제, 개관 후 4일동안 95만 명이 '힐링동산'을 방문했으며, 이중 93%가 해외 방문자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메타버스 세계에서 중심이 되는 경험은 사용자 간 활발한 소셜네트워크 활동과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이용자 콘텐츠 창작(UGC, User Generated Contents)' 활동"이라며 "이는 주어진 과제에 대한 성취와 보상이 핵심적 참여 동기가 되는 온라인 게임과 구별되는 점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가사유상 브랜드관 조성과 맞물려 추진된 이번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은 박물관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미래세대에게 친근하고 새롭게 전해 박물관의 잠재 관람객을 확대하고 반가사유상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문명사 속 불교와 역병의 관계는

불교학연구회 11월 13일 추계학술대회

ZOOM 온라인 방식으로
동북아 · 韓불교 해법 살펴

현재 코로나19 펜데믹 사태를 불교적 프리즘으로 조명하고 인문학적 해법을 찾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는 11월 13일 오후 1시 '불교와 역병: 2500년의 아시아를 가로지르다'를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ZOOM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

총 3부로 나눠 진행되는 이날 학술대회는 인도 · 동북아 · 한국불교가 역병에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는지를 조명한다.

'인도불교의 해법'을 살피는 1부에서는 '불교에서 보이는 질병의 악귀들의 조복, 그리고 역할의 변화(심재관, 상지대)'와 '율장에 보이는 질병과 재난의 코퍼스(이자랑, 동국대)'가 발표되며, '동북아 불교의 해법'을 주제로 진행되는 2부에서는 '몽골 전통유목사회의 역병 관리와 신앙(김경나, 단국대)'와 '동아시아 불교, 영험과 치병의 사례-7~9세기 신라와 일본의 역병 인식과 불교의 대응(박광연,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대중에게 소개된다.

한국불교의 해법을 조명하는 3부에서는 '전근대 한국 불교의 전염병 대처법과 사회 안정화에 미친 영향(김수연, 국사편찬위원회)'과 '불교, 포스트 코로나를 전망할 수 있는가(김응철, 중앙승가대)'가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함형석(전남대), 김한상(동국대), 김장구(동국대), 김성수(서울대), 강호선(성신여대), 이상호(동국대)가 참여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이병욱(고려대)을 좌장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교'를 주제로 전 패널들이 참석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임승택 불교학연구회장은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그 이후의 사회 문화적 변화에 대한 인문학적 문제 분석과 해결책 제시를 위해 기획됐다"면서 "2500년 전에 인도에서 기원해 동남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나아가 서구로 전파된 '불교'라는 프리즘을 통해 2020년대의 팬데믹 현상을 문명사적으로 바라보고, 그 이후를 전망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38

▶ 39회 예고
포로로 잡혀 있는 꼬삼비의 우데나왕은 아반띠국의 와술라닷따 공주와 사랑을 나누게 된다. 드디어 우데나왕은 와술라닷따를 데리고 아반띠국을 탈출한다. 앙가국 꼬삼비로 돌아온 우데나왕과 와술라닷따는 결혼식을 올린다.



짠다빳조따왕, 우데나왕을 생포하다

담마팔 사문이 특사 일행을 따라서 빠딸리뿌뜨라로 떠나기 이틀 전 밤이었다. 아쇼까는 담마팔 사문의 인품에 이끌리어 그를 궁궐로 초대했다. 담마팔 사문은 특사 일행이 묵는 시프라강 언덕의 별궁에 머물고 있었다. 아쇼까는 경비조장에게 접견실 창문을 활짝 열도록 지시했다. 창문을 열자, 시프라강 쪽에서 강바람이 창턱을 넘어왔다. 뿐만 아니라 초저녁에 뜬 초승달이 보였다. 기다리던 담마팔 사문이 경비대장의 안내를 받아 접견실로 들어왔다. 아쇼까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맞이했다.

"사문이여, 어서 오시오."

"소승을 불러주시니 영광입니다."

"빠딸리뿌뜨라로 가시면 언제 또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부른 것입니다."

"소승이 왕자님들을 가르칠 만한 사람인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짠다빳조따왕이 깟짜나 사문을 만나기 전에는 어리석고 욕심이 많은 왕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소?"

담마팔 사문도 웃으며 말했다.

"부왕이시여, 그 이야기는 웃자인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붓다께서 살아계실 때의 이야기입니다만 웃자인에 전해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궁녀들이 망고와 포도, 바나나가 놓인 접시들을 들고 들어왔다. 아쇼까 앞에는 포도주가 든 황금주전자가, 담마팔 사문 앞에는 코코아 음료가 든 은주전자가 놓였다. 아쇼까가 말했다.

"어린 시절 나의 스승 중에는 목갈리뿟다띳사 사문이 있었소. 참으로 자비로운 스승이었소. 그런데 담마팔 사문은 목갈리뿟다띳사 스승의 모습과 너무 닮았소. 모습뿐만 아니라 말투 등도 비슷해요."

"사문은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왕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목갈리뿟다띳사 사문과 저와는 분명 어떤 인연이 있을 것입니다."

"사문이여, 이제 짠다빳조따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소?"

담마팔 사문은 아쇼까의 청을 받고는 곧장 짠다빳조따왕 이야기를 시작했다.

"짠다빳조따왕이 깟짜나 사문을 만나 불교에 귀의하기 전이었습니다. 난폭한 왕은 욕심이 많았고 교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짠다빳조따왕은 거칠고 안하무인이었다. 그의 성격 탓에 딸 와술라닷따를 꼬삼비 우데나왕에게 빼앗겼다. 아버지 짠다빳조따왕의 말이라면 죽은 시늉까지 하던 와술라닷따가 용맹하고 코끼리를 잘 다루던 우데나왕의 두 번째 왕비가 되었던 것이다.

짠다빳조따왕은 자신이야말로 부귀와 영광을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짠다빳조따왕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이건 왕들이 착각하는 오만이었다. 하루는 짠다빳조따왕이 측근신하들에게 물었다.

"나와 같이 부귀와 영광을 갖추고 있는 왕이 또 있는가?"

깟짜나의 아버지인 늙은 궁중제관이 말했다.

"폐하보다 부귀를 누리시고 있는 왕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웃나라 꼬삼비 우데나왕에게는 폐하께서 누리시지 못한 영광이 있습니다."

"어떤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오?"

"붓다께서 꼬삼비에 2년이나 머무르셨다는 영광입니다."

"그거라면 나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소. 특사를 보내 붓다를 모셔오면 되지 않겠소. 당장 누구를 특사로 보낼 것인지 상의해 보시오."

그러나 특사를 자원하는 신하는 없었다. 붓다가 계시는 꼬살라국 수도 스라바스티까지는 너무나 먼 길이었기 때문이었다. 할 수 없이 늙은 궁중제관은 자신의 젊은 아들을 추천했다. 그가 바로 얼마 전에 궁중제관이 된 깟짜나였다.

앙가국은 아반띠국과 인접한 나라였고, 일찍이 불교를 받아들여 수도 꼬삼비에는 크고 작은 절들이 제법 많았으며 성민들은 대부분 불교신자들이었다. 붓다가 2년 동안 머무르며 설법했던 영향이었다. 짠다빳조따왕이 양미간을 찌푸렸다.

"특사를 보내기 전에 확인할 일이 있소."

"폐하 무엇입니까?"

"우데나왕을 붙잡아 오시오. 우데나왕을 내 눈으로 봐야만 그의 영광이 큰지 작은지 알 수 있을 것이오."

"폐하, 우데나왕을 붙잡아오기는 불가능합니다."

"안된다고 말하지 말고 묘책을 강구해 보시오!"

짠다빳조따왕이 불같이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측근신하들이 당황해하면서 웅성거렸다. 이윽고 한 신하가 말했다.

"우데나왕은 코끼리에 미친 왕이지요."

우데나왕을 평하는 대신의 말에 한 신하가 맞장구를 쳤다.

"우데나왕이 코끼리 사냥을 나가서 주문을 외거나 삼현금을 연주하면 코끼리들이 꼼짝을 못한다고 합니다. 코끼리를 마음대로 부리어 잡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데나왕은 코끼리 사냥을 잘하여 수십 마리의 건강한 코끼리를 보유한 왕이었다. 코끼리를 사육하는 군사를 따로 두었는데, 전담신하는 코끼리가 많아질수록 몇 수레씩 잡풀을 먹어치우는 코끼리들 때문에 날마다 곤욕을 치렀다. 그래도 우데나왕은 코끼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했다. 어딘가에는 더 영리하고 힘세고 날랜 코끼리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신하들 중에서 코끼리 사육사 출신의 젊은 신하가 꾀를 냈다.

"저에게 묘책이 있습니다. 나무로 코끼리상을 만들어 우데나왕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냥을 올 만한 곳에 놓아두고 소문내면 됩니다."

코끼리 사육사 출신의 신하는 코끼리를 조각하는 방법과 묘책을 설명했다. 나무 코끼리 안을 몇 명의 군사가 들어갈 만큼 크게 파고, 묘책이란 나무 코끼리 네 발에 바퀴를 달아 우데나왕이 나타나면 재빨리 도망치는 척하다가 사로잡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기발한 묘책이오."

"왕을 부릅시다."

신하들에게 불려나온 짠다빳조따왕은 코끼리 사육사 출신의 묘책을 듣더니 만족해했다.

"좋소. 당장 나무 코끼리를 만들어 보시오."

며칠 만에 아반띠국의 일급 목수들이 웃자인으로 다 모여들었다. 목수들이 통나무를 자르고 붙여서 코끼리상을 만들었다. 그런 뒤 흰색 안료를 칠하고 흰 천을 둘둘 말았다. 나무로 만든 흰 코끼리는 앙가국과 아반띠국 국경 사이에 있는 호숫가로 옮겨졌다. 아반띠국 군사들은 나무 코끼리 주위와 호숫가의 길바닥에 일부러 진짜 코끼리 똥을 가져다놓았다.

이윽고 앙가국 꼬삼비의 나무꾼이 코끼리 똥과 흰 코끼리를 발견하고는 우데나왕 신하에게 알렸다.

"우리 폐하께서 좋아하실 만한 코끼리를 보았습니다."

"어디 있던가?"

"국경 부근 호숫가에 있습니다."

신하가 나무꾼을 우데나왕에게 데리고 가서 보고했다.

"폐하, 이 나무꾼이 국경 부근 호숫가에서 폐하께서 좋아하실 것 같은 흰 코끼리를 보았다고 합니다."

우데나왕이 물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천천히 말해보아라."

"폐하, 산처럼 크고 아름다운 코끼리였습니다. 히말라야 만년설처럼 흰 코끼리였습니다. 코끼리를 보신다면 폐하께서 아주 만족하실 것입니다."

"당장 흰 코끼리를 사로잡고 싶구나. 네가 길잡이를 하겠느냐?"

"예,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코끼리를 탄 우데나왕은 나무꾼을 앞세우고 꼬삼비 성을 나섰다. 호위군사 몇 명이 우데나왕을 뒤따랐다. 호위군사를 몇 명만 데리고 나선 것은 코끼리 사냥을 많이 해본 우데나왕의 자신감 때문이었다. 우데나왕은 나무꾼을 따라서 국경 지방에 있는 호숫가에 이르렀다.

한편, 웃자인의 첨병들은 우데나왕 일행을 발견하고는 곧장 짠다빳조따왕에게 보고했다. 우데나왕이 지나갈 길 양쪽 숲속에는 짠다빳조따왕의 군사가 매복하고 있었다. 우데나왕이 나무로 된 흰 코끼리를 보고는 주문을 외었다. 그러나 우데나왕의 주문은 통하지 않았다. 나무 코끼리는 앙가국 국경을 넘어 아반띠국으로 달렸다. 우데나왕은 나무 코끼리를 추격했다. 호위군사들도 나무 코끼리가 달리는 방향으로 쫓아갔다. 그때였다. 매복해 있던 짠다빳조따왕의 군사들이 달려오는 우데나왕의 호위군사들을 활을 쏘며 순식간에 제압했다. 짠다빳조따왕이 소리쳤다.

"우데나왕을 생포하라!"

나무 코끼리 뱃속에서 짠다빳조따왕의 군사가 나와 우데나왕을 포위했다. 그제야 우데나왕은 계책에 걸려든 것을 알고 짠다빳조따왕에게 항복했다.

"코끼리에 눈이 멀어 속았소."

"그대의 영광도 별 것 아니군. 나의 나무 코끼리에게 속는 것을 보니 말이오!"

"허나 속임수로는 나를 영원히 이길 수는 없을 것이오."

우데나왕이 항변하자 짠다빳조따왕이 소리쳤다.

"그대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아시오!"

"붓다께서 내게 영원히 사는 길을 알려주었소. 나에게 영광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오."

짠다빳조따왕은 우데나왕의 태연한 태도에 내심 놀랐지만 그러한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오히려 우데나왕을 경멸하듯 말했다.

"죽느냐 사느냐 목숨이 중요한 것이지 나는 그런 영광이라면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말겠소."

짠다빳조따왕은 우두머리 전옥관리에게 우데나왕을 즉시 감옥에 가두라고 지시했다. 그런 뒤 앙가국 왕을 사로잡은 기념으로 아반띠국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축제를 허락했다. 특별히 웃자인 성민들에게는 술과 음식을 하사했다. 축제 3일째 되는 날이었다. 감옥에 갇힌 우데나왕이 전옥관리에게 물었다.

"전옥관리여, 그대의 왕은 어디에 있소?"

"적국의 왕을 붙잡았으니 기쁘지 않겠소? 술을 마시며 기뻐하고 계실 것이오. 오늘이 축제 마지막 날이오."

우데나왕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대의 왕은 왜 이렇게 가볍게 행동하는가? 적국의 왕을 사로잡았으면 놓아주던지 죽이던지 해야지, 기껏 굴욕이나 주면서 술이나 마시고 있단 말인가?"

다음날 전옥관리는 짠다빳조따왕에게 보고했다.

"폐하, 우데나왕이 자신을 놓아주던지 죽이던지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음, 확인을 해봐야겠군."

짠다빳조따왕이 감옥으로 가서 우데나왕에게 직접 물었다.

"그대가 놓아주던지 죽이던지 해달라고 말했다는데 사실이오?"

"그렇소."

우데나왕이 목숨을 포기한 듯 담담하게 말하자, 짠다빳조따왕은 갑자기 살려주고 싶은 연민의 정이 생겼다. 그러나 우데나왕을 그냥 풀어줄 수는 없었다. 살려주는 대신 조건을 하나 달았다. 그래야 신하들도 이해할 수 있을 터였다.

"좋소. 풀어주겠소.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소. 그대가 코끼리 부리는 주문을 알고 있다는데 나에게 가르쳐줄 수 있겠소?"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나에게도 조건이 있소. 스승에 대한 예의로 나에게 삼배를 하시오."

"하하하. 삼배는 붓다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오?"

짠다빳조따왕은 어이가 없어 크게 소리 내어 웃고 말았다. 옆에 있던 전옥관리가 주먹을 휘두르기라도 할 듯 씩씩거리며 다가섰다. 그러자 짠다빳조따왕이 만류했다.〈계속〉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박희승의 禪, 세상을 만나다 ⑲ 견성



▶ 한줄 요약
삶의 고난에도 늙음과 병의 괴로움에도 죽음의 공포에도 평상심으로 여여하게 맞이하는 그런 마음을 체득하는 것이 좌선이고 참선이다.

견성이란? 중도를 깨치는 것

앞에서 우리는 좌선이란 마음이 안과 밖으로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는 것이라 했다. 그럼 왜 좌선을 하는가? 부처님처럼 밖의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안으로도 어지럽지 않는 평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삶의 고난에도 늙음과 병의 괴로움에도 죽음의 공포에도 평상심으로 여여하게 맞이하는 그런 마음을 체득하는 것이 좌선이고 참선이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일러 마음을 깨쳐 생사윤회에서 해탈하여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라 하셨다.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달 덕분에 물질적인 풍요는 날로 좋아졌으나 빈부와 갑을, 남녀와 노소 양변의 대립과 갈등은 점점 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문명의 발달조차 한낱 환상이었음을 일깨운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유롭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불교에 답이 있다, 부처님의 깨달음과 삶에 지혜가 있다"고 말해주어야 한다. 범부 중생은 내 밖의 물질에 집착하고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최상이라 하나 부처님은 무소유와 비움, 그리고 남을 돕는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참선이란 우리도 부처님처럼 각자의 마음을 깨달아 자유자재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참선 수행자들은 깨달음을 '견성(見性)'이라고도 한다. 과연 견성이란 무엇인가?



참선이란 우리도 부처님처럼 각자의 마음을 깨달아 자유자재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육조단경〉의 견성이란?

선종(禪宗)의 종전 〈육조단경〉은 '견성(見性)'을 이렇게 말한다. "마음을 알아 견성(見性)하면 스스로 불도(佛道)를 이루나니 즉시 확연히 깨쳐 본래 마음에 돌아간다." 자기 마음을 알아[識心] 견성하면 스스로 부처님의 중도를 이루어 즉각 확철대오하여 본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법문이다. 6조 혜능대사는 자기 마음을 알아 성품을 보는 것이 곧 깨달음이고 부처라고 한다. 깨달아 부처가 됨은 곧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선의 본래청정, 본래성불을 말한다. 이것이 선에서 말하는 깨달음이고 견성하여 부처가 됨이다. 6조 대사의 법문으로 볼 때 선에서 깨달음은 자기 마음을 아는 것[識心]이다. 자기 마음을 알아 성품을 보는 것이 깨달음이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을 알아 성품을 봄(識心見性)이란 무엇인가? 불교에서 마음만큼 애매모호한 말도 드물다. 우리는 흔히 "무슨 일이든지 마음먹기 나름이다"고 말하거나 〈화엄경〉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마음이 일체를 이룬다"를 자주 인용한다. 어떤 스님은 "팔만대장경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마음 심(心)' 자로 요약된다"고도 한다. 과연 마음이란 무엇인가?

현대 과학에서는 마음을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의식, 정신 현상으로 이해한다. 불자 뇌과학자로 유명한 국가 연구소의 한 연구자는 마음을 뇌의 의식 현상으로 보고 뇌 구조의 조작을 통해서 의식이 변화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이처럼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마음은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의식 현상으로 국한하여 본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心]은 물질과 정신이 융합된 연기 현상을 말한다. 즉 불교의 마음은 단순히 뇌 의식 현상이 아니라 5온과 4대, 그리고 6근, 6경, 6식 등을 두루 포함하는 우주 만물의 연기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마음은 곧 연기이니 실체가 없이 만물이 상호 의존하여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불교의 마음은 연기이면서 무아이다. 우주 만물은 서로 서로 의존하여 존재하는 것을 부처님은 연기(緣起)라 하였고, 연기는 곧 나라고 할 실체가 없는 무상(無相), 무아(無我)다. 초기 경전에서 연기, 무상, 무아를 대승에서는 공이라 하고 선에서는 무심(無心), 무념(無念) 등으로 표현할 뿐 다른 것이 없다.

불교에서 마음을 연기 = 무상 = 무아 = 공 = 무심 = 무념, 하나로 보는 것이니 마음이나 연기, 무아는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中道)인 것이다. 우리는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았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곧 부처님의 깨달음 중도는 연기고, 무아이며, 마음이라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 선의 종전 〈육조단경〉에서 "마음을 알아 성품을 봄[識心見性]"이란 우리 마음이 연기임을 알아 무아를 보는 것이다.

결국 선종의 깨달음, 견성(見性)이란 연기, 무아를 보아 깨치는 것이다. 선에서 말하는 견성이라 하면 달리 무슨 특별한 깨달음, 성품을 보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처럼 중도, 연기, 무아를 보고 깨치는 것이다. 모든 불교가 중도, 연기, 무아, 공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것을 배제하고 달리 깨달음이나 견성을 말한다면 그것은 불교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평상심 체득하는 것이 좌선 · 참선
자기 마음 · 성품 보는 것이 깨달음
불교에서 마음은 연기이면서 무아
見性은 연기 · 무아 보아 깨치는 것
중도 · 연기 · 무아, 깨달음의 기준
불교 무아 · 공은 중도를 말하는 것
허무주의의 무아 · 공 아님 알아야

견성에 대한 오해와 혼란

그런데, 참선 수행자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에이 '견성'이란 말을 오인하여 깨달음에 대한 혼란이 적지 않다. 견성성불(見性成佛), 성품을 보는 것이 부처라 하니 그 '성품을 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조금 공부해서 지견이 나면 "나는 깨달았다"고 하는 이들이 수 없이 많다.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견성 콘서트'니 '정법시대'니 하면서 너도나도 견성했다고 깨달았다고 알았다고 하는 도인 천지다. 정법시대가 아니라 도인시대다. 이들의 특색은 불교의 좋은 말인 '견성', '정법', '무심' 용어를 가져다 문패를 걸어놓고는 속으로는 자기가 조금 이해하고 체험한 소견으로 대중에게 견성, 정법, 깨달음이라 주장한다. 더구나 이분들은 자기와 견해가 맞지 않으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들을 공부를 잘못했다거나 무식하다며 매도하기 일수다. 많은 불자들조차 이들의 유창하고 현란한 말에 현혹되어 견성과 정법이라 믿고 따르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기야 달마대사도 비방과 독살 위협에 시달렸고,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을 시해하고 교단을 장악하고자 사악한 행동을 한 제바닷다 무리가 상당하여 〈왕오천축국전〉을 지은 신라 혜초 스님이 인도에 갔을 때인 8세기에도 제바닷다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니 선지식이 드문 이 시대에는 더 말할 것이 없겠다.

하지만, 진정한 불교의 지혜를 통하여 생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하여 영원한 행복을 깨치고자 한다면 반드시 부처님과 조사 선지식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신 중도, 연기, 무아를 깨달음의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모든 불교는 중도 정견과 연기, 무아에서 벗어나면 외도 마구니가 된다는 것을 불제자들은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정견이고 어떤 것이 외도 마구니 길이란 말인가? "나는 깨쳤다" "나는 견성했다" "나는 도를 이루었으니 내말을 따라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을 조심해야 한다. 불교의 깨달음은 중도, 연기, 무아이니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럼에도 자기와 자기 수행을 앞세우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게 수행했고, 공부했는지를 자랑하고 과시한다면 그것은 자기 기준의 깨달음일지는 몰라도 부처님, 불교의 깨달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나는 견성했으니 계율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거나 "견성한 도인이 무슨 계율이냐?"며 막행막식하거나 색과 권력, 그리고 명예에 집착하며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불법과 도를 가장한 마구니 외도라 하겠다.

선의 견성은 무아를 깨치고 행함

부처님의 깨달음이나 선의 견성은 공히 중도, 연기, 무아를 깨치고 행하는 것이다. 깨달음, 견성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없음, 무아'를 깨치고 행하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이것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4가지 상이 없는 무상(無相)을 부처, 여래"라 한다. 〈반야심경〉에서는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면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넌다"고 한다.

모든 불교 경전과 사상은 모두 무아, 무상, 공을 깨치는 것이다. 어디에도 '나'라는 상을 세우라는 가르침은 없다. "내가 있다"고 하거나 "내가 이만큼 깨쳤다", "내가 이만큼 안다"고 하면 아직 무아, 무상을 깨치지 못한 것이다. 견성이 아니다.

다른 한편, 무아, 무상을 깨치는 것이 견성성불이라 하니 "아무 것도 없다"고 하거나 "깨칠 것도 없다"고 하면서 수행 자체를 부정하고 폄하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견해는 허무주의이거나 무아, 공을 말하니 무아, 공에 집착하는 양변에 떨어진 경우다. '내가 있다'는 유아가 양변이라면 '내가 없다'는 무아에 집착하는 것도 양변이다. 유아와 무아의 양변을 떠난 것을 중도라 하는 것이다. 불교의 무아와 공은 중도를 말하는 것이지 허무주의의 무아와 공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과 조사를 모델로 정진해야

우리 불자들의 모델은 부처님과 조사 선지식이다. 우리는 정견과 신심을 굳건히 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늘 혼란스럽고 혼돈의 연속이다.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경전과 조사어록을 수행 지침으로 삼아 정견을 세우고 정진해야 한다.

얼마 전에 입적한 한국불교의 대표 선승 고우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처님처럼 깨치려면 참선이 가장 빠르지만, 꼭 참선이 아니라도 좋다. 염불, 주력, 간경, 위빠나사, 지계, 절, 보시, 봉사도 훌륭한 불교 수행이다. 중도연기, 무아, 공을 기준으로 한 불교 수행에는 우열이 없다. 다만,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참선도 마찬가지다. 모든 불교 수행은 자기를 비우는 수행이다. 무아를 깨치고 행하는 것이다.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불교 수행이라 할 수 없다." 〈불교인재원 교수〉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⑲ 싯달타 태자의 고행



▶ 한줄요약
싯달타 태자는 가자산 니련하 강변 앞에서 풀을 깔고 결가부좌를 하고 "부처가 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고행을 시작했다. 고행은 6년 동안 이어졌으며, 태자는 하루 하루를 삼씨와 쌀 한톨로 연명했다. 건강을 걱정한 가족들이 공양물을 보냈으나 태자는 이를 모두 반려했다.

고행에 야윈 몸엔 금색 광명 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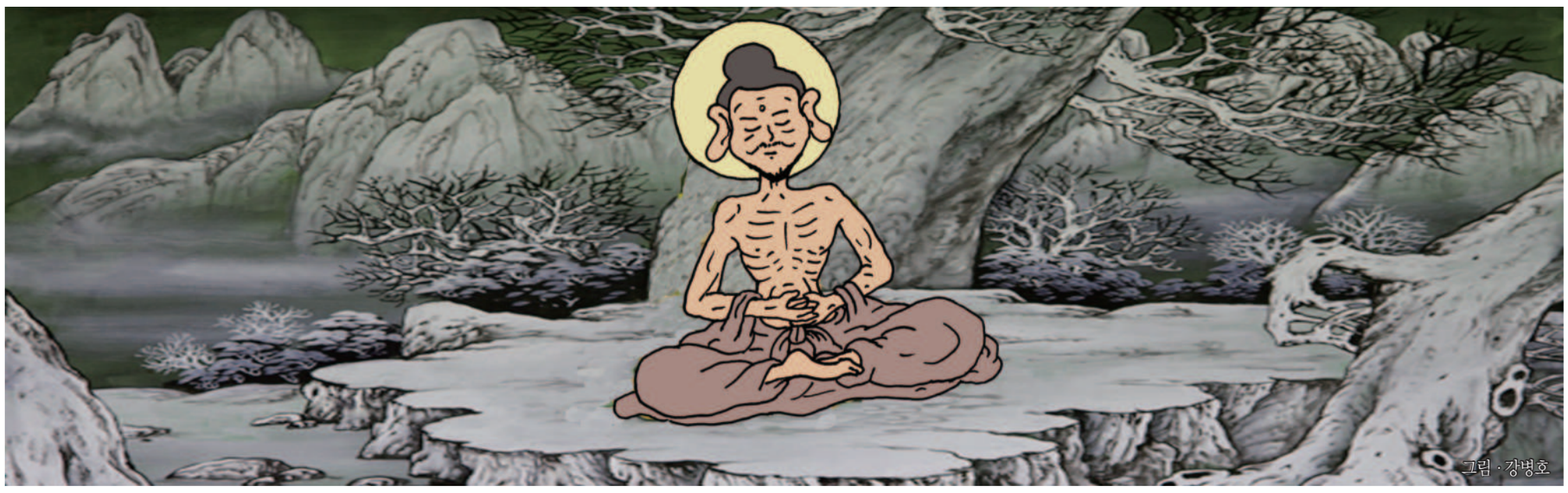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이제 싯달타 태자가 6년 동안 고행을 하고 정각에 이르는 〈석보상절〉 제3권의 클라이맥스를 찬찬히 읽어보기로 한다. 다음 이야기는 태자가 정각을 이룬 후 제천이 이바지 하는 내용으로 현전하는 첫 번째 〈석보상절〉 제 3 권은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석보상절〉 제 4 권이 아니라 제 6 권이 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권차이기도 하다. 제 6 권에는 마치 조선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것처럼 살아있는 대화체가 진진하게 펼쳐져 있다. '야수다라와 목건련', '야수다라와 대애도', '석가모니와 라훌라'의 대화는 눈물과 웃음을 참기 어렵다.

마치 〈월인석보〉 제 1 권의 '선혜'와 '구이'의 세세생생 부부의 인연을 맺는 대화 만큼이나 살아 숨쉬는 우리말 대잔치라 할 수 있다. 〈석보상절〉은 이렇게 사람 냄새나는 조선 최초 불교경전인 것이다.

태자의 6년 고행

태자가 가사산 고행림에 교진여들 다섯 사람이 있는 니련하라는 강가에 오셔서 풀을 깔고 결가부좌하고 맹세하셨다. 결(結)은 교차하여 맺는 것이요, 가(加)는 더하는 것이고, 부(趺)는 발등이요, 좌(坐)는 오른쪽 발등을 왼쪽 무릎에 얹고 왼쪽 발등을 오른쪽 무릎에 얹어서 서로 맺어 앉는 것이다.

'부처가 되지 못하면 일어나지 않으리라.'

싯달타 태자는 마가다국 상두산이라고도 부르는 가사산 나이란자라강 흔히 '니련하'라고 하는 강가에 자리를 깔고 결가부좌에 들었다. 결가부좌를 설명하는 것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큼 정확하고 구체적이다. 다리를 교차하여 맺고 발등이 위로 오도록 겹쳐서 앉는데 오른 발등은 왼 무릎에 왼 발등은 오른 무릎에 얹어 앉는 자세라는 것이다. 이보다 더 자세한 결가부좌 설명을 들은 일이 있는가. 그렇게 자세를 잡고는 다짐하였다. 부처가 되지 못하면 결코 이 결가부좌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언젠가 무문관에 들어가 수행하다 원적에 든 수좌의 이야기를 다큐로 본 적이 있다. 당시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고 젊은 나이에 죽음에 이르도록 자신을 몰고 간 '용맹정진'이란 과연 무엇일까 회의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같이 정진하던 스님들은 오히려 담담하게 그러나 그 수행을 축수하는 느낌마저 받고 의아하였다. 이 글을 풀이하다 보니 아마 그 수행자도 공부하다 죽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무문관 수행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불본행경〉에는 '마군의 경계와 번뇌의 티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사대육신이 산산조각 나고 해와 달이 땅에 떨어져도 나는 마침내 이 서원을 어기지 않으리라' 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대단한 서원이 있었기에 범부인 나는 부처가 되신 분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때 태자는 어느 경지까지 고난도의 수행을 하였는가.

천신이 밥을 바치거늘 아니 잡수시므로 자연히 곁에서 삼씨와 쌀이 나게 하였다. 태자가 하루 한 알씩, 이레에 한 알씩 드시고 여섯 해를 흐지부지하지 않으시어 큰 비도 오며 우레도 치던 여름이거나 겨울이거나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앉아 계셨다. 태자의 머리에 까치가 새끼를 쳤는데 사람이 보고 황당히 여겨 풀이며 나무를 코와 귓구멍에 던져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시니 교진여들 다섯 사람도 좇아서 고행하였다. 고행(苦行)은 수고로이 수행하는 것이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고통의 끝은 어디일까. 먹지도 자지도 않고 6년을 장좌불와하니 하늘신들이 밥을 가져와 바쳐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여기서 '흐지부지하지 않다'는 '히즛도 아니하샤'를 의역한 것이다.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 '히즈려셔 쉬다, 오른쪽으로 히즈 눕고' 등의 활용 선례가 있다. '대충, 편하게'의 의미로 읽힌다. 허투루 하지 않고 용맹정진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수행이 무르익기 전에 목숨이 상할 것이 자명하므로 삼씨와 쌀 한 톨로 연명하도록 태자 주위에 저절로 나게 하였다는 것이다. 하루에 삼씨 한 톨, 일주일에 쌀 한 톨이라니….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의 피골상접한 고행상이 떠오르는 장면이다.

뿐만 아니라 큰 비가 와도 천둥번개 우레가 쳐도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계셨다. 여름이고 겨울이고 묵언으로 수행을 하고 있자니 까치가 와서 머리에 까치집을 짓고 새끼를 쳤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흙먼지로 뒤덮인 기괴한 태자를 보고 콧구멍과 귓구멍에다가 풀이며 나무를 쑤셔놓고 괴롭히기까지 하였다는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를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싯달타 태자, 가사산 니련하 앞서
결가부좌하고 6년 동안 고행 정진
삼씨 · 쌀 한 톨로 하루하루 연명
가족들 공양물 보내지만 모두 반려

그렇게 괴롭혀도 태자는 그것을 빼버리거나 하지 않고 묵묵히 수행에만 매진하니 자연스럽게 교진여 등 다섯 수행자도 그에게 감화되어 고행 난행의 수행을 따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고행은 '수고롭게 수행하는 것'이라 하는 표현은 힌두교의 괴상한 고행들을 연상시킨다. 24시간 한 발로 서있기, 물구나무 서서 평생 있기, 머리카락 뽑기 등 갖은 기묘한 자세나 극단의 추위와 굶주림을 통해 자신을 다스려 해탈할 수 있다는 것과 상통한다.

다섯 사람이 왕께 사람을 시켜 고행하시는 사연을 사뢰거늘, 왕이 몹시 슬퍼하며 재물을 실은 수레를 500개를 꾸미시며 대애도와 야수도 각각 재물을 실은 수레 500개를 꾸며 차닉이에게 명령하여 보내셨는데 태자가 받지 않고 도로 보내셨다.

태자가 고행을 오래 하셔서 살이 여위실 뿐 금색 광명은 더욱 빛나셨다.

교진여 등 다섯 명은 태자를 보필할 엄명을 받고 함께 수행하고 있었는데 태자의 고행으로 자칫 잘못되기라도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곧바로 정반왕께 아뢰니 500수레의 재물을 잔뜩 꾸려 보낸다. 이에 뒤질세라 어머니 대애도와 아내 야수다라도 각각 500수레를 마련하니 총 1,500수레의 재물을 바리바리 싸서 마부 차닉이를 시켜 보낸다.

그 애틋하고 애절한 마음은 식구를 멀리 떠나보내 본 사람이면 알 것이다. 자식을 군대에 보내거나 유학을 보내고 무슨 관련 뉴스라도 들릴라치면 귀가 먼저 달려가는 마음…. 그런데 태자는 그 수레를 돌려보낸다. 보내는 가족의 마음도 죽어도 받을 수 없는 태자의 마음도 읽혀 더욱 애달프다.

고행이 깊어질수록 야위시되 태자 몸에서 더욱 금빛 광명이 찬란해지는 모습에서 우리는 초월적 의지를 보게 되는 것이다. 한 번쯤은 무엇인가에 이토록 몰두해 볼만한 인생일텐데 나는 과연 그러한 때가 있었던 것일까. 갑자기 울적해지는 마음은 그 흉내라도 내던 시절이 잠깐이라도 있었을 텐데 세월이 무상하여 모두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로 지워져 가기 때문이다. 범부는 몰입의 시간조차 생로병사 과정이 있음을 체감하는 시절이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월인천강지곡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육십일장
싯달타 가사산 고행에 6년을 좌선하시매 태자 머리 위에 까치가 새끼를 치니
교진여가 소식을 전하니 정반왕과 대애도, 야수 세 분이 슬퍼하시어 수레 위에 재물을 실어 보내시니

육십이장
잡초목 꺾어다가 얼굴을 못 살게 둔들 마음이야 움직이시리오
한 톨의 쌀을 드셔서 살이 여위신들 금빛이야 가시리오〈월인23a〉

교진여가 보낸 '소식'은 옛말로 '유무'라고 한다. 왠지 별일이 있고 없고(有無)가 연상되지만 순 우리말이다. 역시 되살리고 싶은 우리 말 목록에 등재해 두자. 또 여기서 말하는 '재물'을 '쳔'이라고 하였다. '천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최근까지도 쓰는 말이었다. 극도의 고행으로 싯달타 태자의 피골은 상접하고 흙먼지로 뒤덮여 동네 사람들의 놀림을 받았지만 수행으로 맑아진 정신은 금빛 광명이 뿜어져 나왔다는 것이다. 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지만 20여 년전 법정스님이 만든 송광사 수련원에 처음 갔을 때 100여 명의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첫 날은 표정이 우락부락하고 여성들은 화장을 지워 볼썽사납다가 하루가 다르게 얼굴 빛이 해맑아지고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단 며칠에도 사람이 달라질 수 있구나 하고 느꼈는데 6년을 하루같이 정진을 일심으로 한다면 정말 금빛 광명이 뿜어져 나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태자가 생각하시되 '여윈 몸으로 보리수에 가면 후에 사람이 실없는 말로 놀리며 기롱하기를 '굶주림으로 부처가 되었다'할 것이니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 몸이 과거와 같아져야 성불하리라' 하셨다. 보리수는 부처께서 그 필발라수 나무 아래 앉으셔서 보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보리수라고 하는 것이다.

드디어 정각을 이루려는 찰나이다. 〈과거현재인과경〉에는 '내가 이 파리한 몸으로 도를 얻는다면 저 외도들은 굶주림이 저절로 열반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 할테니 내가 뼈 마디마디 나라연의 힘이 있더라도 이로써는 도를 얻지 않으리라. 음식을 먹은 후에 도를 이루겠다' 고 기록하고 있다. 달이 아니라 손가락을 볼 것을 염려한 것이다. 우리가 보리수라 부르는 것은 'Pippala' 나무인데 '필발라수' 또는 '길상수' 라고도 한다.

이렇게 2600년 전 극단의 고행과 용맹정진으로 앞서 깨달은 인간 붓다가 계셨기에 그저 우리는 또 다른 시행착오 없이 그 자취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여래 십호 중에 '선서(善逝)'가 마음에 와 닿는 것은 마음뿐 그조차 아득하기만 한 까닭이리라.

〈터키 국립 에르지예스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다시보는

불모지

❺ 한국불교영화 1950~1979

현대불교신문 유튜브 채널인 '스튜디오 공'에서는 '불자라면 모르면 아쉬운 지식- 불 · 모 · 지'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 · 모 · 지'는 불교계 언론 운영 유튜브 중 유일하게 기자가 단독으로 진행하며 다양한 불교 지식들을 알려주는 콘텐츠입니다. 현재까지 방영된 콘텐츠 중 대중들의 호응이 좋았던 회차들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해당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신성민 기자



장일호 감독의 1964년 작품<석가모니>의 한 장면. 한국영화사에서 석가모니부처님의 일대기를 영화화한 작품은 <석가모니>가 유일하다.

불교영화, 韓영화 발전 견인하다

얼마 전, 국내에선 처음으로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가 열렸죠. 대한극장에서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된 영화제에는 1800명의 관객이 다녀갔다고 해요. 11개 영화는 매진되기도 했다고 하구요. 좋은 성과를 보여준 영화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교 영화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 해보려 합니다.

일단 한국에서 영화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진 곳이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입니다. 이곳에서 불교로 검색을 하면 115편의 영화가 나오는데 전부는 불교는 아닙니다.

'이 영화가 왜 들어가 있지' 라고 생각되는 영화도 많습니다. 여기에 신광철 한신대 교수가 2002년 발표한 '한국 불교영화의 회고와 전망' 과 비교하면 대략 현재까지 한국 불교영화는 60~70여 편 정도로 추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종교 계열 영화 중에는 가장 많은 편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한국 불교영화의 태동은 한국영화 역사와 그 궤를 함께 합니다. 해방 직후와 1950년대는 영화 소재로 쓰일 콘텐츠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대부분 불교 설화와 문학에 기초를 둔 영화들이 많이 제작됐습니다.

현재 영화계에서는 최초의 불교영화로는 윤용규 감독의 1949년 작품 〈마음의 고향〉을 꼽고 있습니다. 함세덕의 희곡 〈동승〉을 영화화한 〈마음의 고향〉은 모성에 목마른 동자승과 주지 스님의 이야기가 사찰 배경으로 서정적으로 묘사된 수작입니다.

1952년에는 윤봉춘 감독의 〈성불사〉가 제작됐습니다. 〈성불사〉는 계몽 영화로 제작돼 당시 국방부 우수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초기 한국영화를 이끌어던 신상옥 감독은 1955년 〈꿈〉과 1957년 〈무영탑(1957)〉을 내놓았습니다. 두 작품은 이광수와 현진건의 소설을 영화화 한 것으로 〈꿈〉은 베니스영화제에 출품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양주남 감독은 1958년 〈종각〉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비극적 생의 연쇄를 통해 연기적 세계관을 표현해 많은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제 이 작품은 베를린영화제에 출품됐습니다.

1950년대는 불교영화를 통해 한국영화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걸출한 불교 영화 감독인 신상옥이 출현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제 1960~70년대로 넘어가보죠. 전후 복구가 이뤄지고 사회가 성장하면서 대중문화 산업도 확대됐습니다. 영화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불교영화도 이 시기 제작 편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호국불교와 효성의 개념을 가진 불교영화들이 많이 제작됐습니다. 또한 고승들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들도 많이 제작됐습니다.

호국불교 영화들은 대부분 불심으로 왜적과 싸워 이기는 내용들이었습니다. 1962년에는 장일호 감독이 〈원효대사〉를, 1963년에는 안현철 감독이 〈사명당〉



1949년 윤용규의 〈마음의 고향〉이 최초 韓불교영화… 동자승 소재로 1950~70년대 불교영화 양적 성장 부처님 일대기 영화로 제작되기도

을 발표했습니다.

홍성기 감독의 1965년 작품 〈대석굴암〉도 호국불교영화로 분류됩니다. 이 영화는 석굴암 완성 과정을 그려내고 있으며, 석굴암 부처님의 빛이 왜적을 쫓아냈다는 내용도 담고 있죠.

전기 영화인 김승옥 감독의 1962년 작품 〈이차돈〉도 넓은 의미에서 호국불교 영화로 평가됩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도 호국불교 영화는 지속적으로 제작됩니다. 장일호 감독은 〈호국 팔만대장경〉을 1978년에 내놨고, 전조명 감독은 〈서산대사〉를 1972년에 제작 · 발표했습니다.

효행에 대한 이야기도 불교영화로 다뤄졌습니다. 효를 바탕으로 한 〈에밀레종〉이 1961, 1967년 두 번에 걸쳐 홍성기 감독과 권영순 감독에 의해 제작됐습니다. 이용민 감독의 1962년 작품 〈지옥문(1962)〉도 효 사상과 불교 설화가 접목된 작품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영화가 제작된 것도 이 시기입니다. 장일호 감독은 1964년 〈석가모니〉라는 작품을 발표하는데요. 한국영화사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는 이 작품이 현재까지는 유일무이 합니다.

영화 〈석가모니〉는 매우 한국적인 작품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구도 과정을 그리면서도 그 안에는 유교적 가족애가 끈끈하게 묻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로 '성공해서 돌아온 아들' 과 '그의 성공을 기원하는 아내' 는 다분히 한국적인 정서이죠.

1960년대 주목해야 할 작품으로는 신상옥 감독의 1967년 작품 〈꿈〉과 〈다정불심〉도 꼽을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당시 감독들이 충효사상과 불교의 결합에 몰두한 데 반해 신상옥 감독은 비중있는 작가들의 문학 작품들을 영화화했습니다. 물론 소재주의 취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데올로기에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 불교 문예적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은 인정할 부분입니다.

특히 〈꿈〉은 신상옥 감독에 의해 두 번 제작됐던 것과 더불어 배창호 감독에 의해 1990년 다시 제작됐죠. 〈꿈〉은 〈삼국유사〉의 설화, 이광수의 소설, 영화가 이어지는 것으로 〈동승〉과 함께 한국 불교영화의 소재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가 무협의 배경으로 사용되는 것도 1960~70년대부터입니다. 앞선 영화들이 부처님과 고승 전기, 호국, 효행과 불교를 엮고 있다면 오락성과 불교가 만난 첫 사례이기도 하죠.

한국의 불교 무협영화의 시초는 바로 이혁수 감독의 1978년 작품 〈달마신공〉입니다. 내용은 달마조사가 남긴 무술서인 '달마비급' 을 고려인 서천위가 우여곡절 끝에 얻고 복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979년 12월에는 기념비적인 불교 무협영화 한편이 개봉되는데요. 한국의 이영우 감독과 중국 무협영화의 거두라고 평가받는 호금전 감독이 공동 감독을 맡은 〈사문의 승객〉으로, 홍콩에서는 〈공산영우〉라는 제목으로 개봉됐습니다.

이 영화는 호금전의 후기 걸작으로 평가받는데 우리가 아는 현란한 액션의 무협영화와는 다릅니다. 도리어 한옥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뤄지는 여러 액션들은 호금전만의 새로운 액션 개념을 보여주죠.

호금전의 〈협녀〉 같은 무협영화는 그 자체가 불교로 해석될 수 있으니 한 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잘 아는 〈와호장룡〉의 대나무 결투 장면은 바로 호금전의 〈협녀〉의 한 장면을 이안 감독이 오마주한 것입니다. 추후에 무협과 불교를 다룰 일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다보니 내용이 많이 길어졌네요.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불교영화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 최고불자명품 교육기관]

무명에서 빛을 찾아 함께 갑시다!

부산불교교육대학

개교 40년 맞이

승려연수 인증교육 (줌 화상교육)

과 정 명

뇌과학적 사실로 이해하는 붓다의 깨달음과 마음의 구조

2600년전 붓다의 깨달음을 현대의학으로 규명하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 제공

- 일 정 : 10/18(월)~22(금) 5일간 13:30~16:30
- 교 수 : 동국의대 해부학 교수 문일수 (서울대학원 · 캐나다UNB박사)
- 교 육 비 : 10만원
- 접수마감 : 10월 14일(목) 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오피스텔 5층(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 051-711-0700

靈영通통 비구·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 모집대상 : ① 특별시·광역시 각 도별 종무원장
② 미륵보살(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역할 각 1명
※ 참고사항 : 모집②번에 속하는 역할은 소정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 모집자격 : ① 미륵부처님을 주불로 모셨거나 모실 분.
② 개인 사찰이나 공찰이지만 장기적으로 운영가능 하신 분.
(미륵보살 〈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 종무원장에게 드리는 혜택 : 현대의술로도 안 되는 간질, 정신질환, 여러가지 고질병 가정의 우환, 질고, 병고, 액란 완치법(상담결과에 따라 암치료도 가능)을 연합, 사·암으로도 가능합니다.

▶ 모집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강화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거제도, 울릉도 등
19개소 종무원장님을 초빙합니다.


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 : 010-7321-0404

대한불교문수종 종정 지광 총무원장 동진 합장

대인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노혜2길 162

사바세계 없으면 불국토도 없어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㊳ 묘음보살의 원력

그때 정광장엄국 안에 한 보살이 있었는데 이름이 묘음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모든 덕(德)의 근본을 심었으며,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들께 공양하고 가까이하여 매우 깊은 지혜를 모두 성취하였다. 묘당상(妙幢相)삼매와 법화삼매와 정덕(淨德)삼매 등 백천만억 항하 모래알 수 같은 모든 큰 삼매들을 다 얻고 있었다.

마침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놓은 광명이 그의 몸을 비추니 곧 정화수왕지불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장차 사바세계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하고 친근히 하여 공양하려 합니다. 또 문수사리법왕자 보살과 약왕보살, 용시보살, 수왕화보살, 상행의보살, 장엄왕보살, 약상보살을 친견하고자 하노이다."

그때 정화수왕지불께서 묘음보살 향하여 이르셨다.

"그대는 저 나라를 가벼이 업신여기는 생각을 내지 말라. 선남자여, 저 사바세계는 높고 낮아서 평탄하지 못하니라. 흙산과 돌산 등 여러 산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러운 것이 가득하니라. 부처님의 몸은 작고 보살들 또한 그 몸이 작으니라. 그런데 그대의 몸은 4만 2천 유순(由旬)이나 되고 내 몸은 6백 80만 유순이 되니라. 그대의 몸은 단정하여 백천만 가지의 복덕의 상에 광명이 더없이 눈부시니 그러므로 그대가 가더라도 저 나라를 업신여기지 말고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국토에 대하여 천하고 졸렬하다는 생각을 내지 말라."

묘음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사바세계로 가는 것은 모두 여래의 힘이시며, 여래의 신통력으로 유희하며 여래의 공덕과 지혜로 장엄하였기 때문입니다."

묘음보살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아니한 채 삼매에 들었다. 삼매의 힘으로 기사굴산(영축산)의 부처님이 설법하는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8만 4천의 보배연꽃을 피어나게 하였다. 염부단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은(白銀)으로 잎이 되고 금강으로 꽃술이 되고 견숙가(甄叔迦) 보배로 꽃받침이 되었다.

이때 문수사리법왕자가 이 연꽃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먼저 이 상서(祥瑞)가 나타났습니까? 수많은 천만 송이의 연꽃이 나타났는데 염부단금 줄기가 되고 잎은 백은으로 되었으며 꽃술은 금강, 견숙가의 보배로 꽃받침이 되었습니다."

이때 석가모니부처님이 문수사리에게 이르셨다.

"이는 묘음보살마하살이 정화수왕지불의 나라에서 8만 4천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이 사바세계에 와서 나에게 공양하고 친근하여 예배하려는 것이며, 또 〈법화경〉에 공양하고 〈법화경〉을 들으려는 것이니라."

〈묘음보살품〉은 법화경 7권에 나오는 24번째 품이다. 정광장엄국에 있던 보살로 동방의 정화수왕지불을 모시면서 〈법화경〉 유통 원력을 가진 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이 서방 극락세계의 아미타불 모시는 것과 짝을 이룬다. 법(法)을 설하는 〈법화경〉은 법 자체가 법을 유통시킬 수 없으므로 법을 유통시키는 보살들의 역할이 다양하게 묘사된다. 묘음이란 중생의 언어와 음성을 상징하는 말이다. 달리 말하면 생명의 소리이고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법의 소리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법을 유통시킨다는 인법일치(人法一致)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매우 미묘한 말이다. 천태의 〈법화현의〉에서는 경제목에 들어 있는 묘법이란 말을 불법묘(佛法妙), 심법묘(心法妙), 중생법묘(衆生法妙)의 삼묘(三妙)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묘음보살이 사바세계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문수, 약왕 등의 보살을 친견하고 싶어 하고 이어 삼매에 들어 연꽃을 피운다. 정화수왕지불이 사바세계를 가벼이 업신여기지 말라는 충고를 곁들인다. 이 대목도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다. 불보살의 활동무대가 사바세계이다. 비록 아무리 불국토가 많더라도 사바세계가 있어야 불국토가 있다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사바세계가 없으면 불국토가 없다. 그것은 중생이 없으면 불보살이 없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㊳ 계율과 불교윤리

현대인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다. 어떤 이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눈앞의 이익에 몰두하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인지 고민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인간다운 삶 내지는 바람직한 삶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도 각양각색이다.

평범한 삶을 살다가 때로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져 어떤 행동이 최선인지 고심하기도 한다.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닥친다면 어떤 기준이나 원칙에 의해 행동해야 할까? 불자라면 불교사상이나 계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대답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런 까닭에 바람직한 삶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을 모색하는 윤리학(倫理學)에 근거한 불교윤리(佛教倫理)가 대안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철학의 한 분야인 윤리학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품성을 실현하고 사회적으로는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규범과 원리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행위의 기준이 되는 '좋음(goodness)'과 '옳음(right)'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윤리학의 주제인 동시에 인간다운 삶, 즉 바람직한 삶에 대한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양의 학문체계인 윤리학으로 동양의 불교사상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하다면 불교윤리학에서는 불교적인 삶을 비교적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게 된다. 즉, 개인적으로는 불교적인 품성을 실현하고 사회적으로는 불교적인 가치에 근거한 원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서양에서 불교윤리학에 대한 논의는 1960년부터 시작되었지만, 대체로 불교사상을 알기 쉽게 서술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불교사상에 대한 윤리학적인 접근은 1990년부터 본격화되었는데, 대표적인 불교학자로 피터 하비(Peter Harvey)와 데미언 키온(Damien Keown)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데미언 키온은 불교를 '목적론적 덕윤리(teleological virtue ethics)'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불교에서는 인간 잠재력의 완성으로서 열반(涅槃)이라는 목적을 전제하며, 이 목표는 팔정도(八正道)와 같은 실천 수행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완성은 목표의 실천을 통해 달성되는 도덕적이고 지적인 자기전환(self-transformation)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이해방식은 서양 윤리학이라는 바탕에서 불교사상을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토대 위에서 그는 응용윤리학의 쟁점들에 대한 불교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불교윤리의 보편화 가능성이다.

불교는 붓다의 깨달음을 통해 구현된 종교이며, 깨달음의 추구는 모든 불교인들의 공통된 목표이다. 그런데 이 목표는 누군가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며, 이 목표는 절대자에 대한 맹목적인 헌신이나 복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실천으로 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율성이다. 이런 측면에서 불교윤리는 불교인의 윤리를 넘어서 세계인의 윤리, 즉 보편적인 윤리로 비상할 수도 있다. 불교는 오랜 세월에 걸쳐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 일관된 가치체계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아시아의 전통문화를 흡수한 불교의 겉모습은 분명히 서양인에게 낯설게 여겨질 것이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불교적인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하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⑭ 끝없이 이어지는 업보

악업 짓는 원인, 사견 때문

6. 악업을 짓는 원인

불자 여러분! 악업을 짓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악업의 원인은 바로 미혹(迷惑)입니다. 번뇌에 물든 마음은 진리에 어둡고 탁하고 흐려진 미혹심 즉 무명 때문에 악업을 짓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과보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혹(惑)-업(業)-고(苦)의 삼도(三道)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진리에 밝고 깨달음을 지향하는 마음인 보리심은 선업을 쌓게 하고 그 결과 행복한 과보를 받게 합니다.

과보의 성질은 지은 업의 성질에 달려 있습니다. 선인락과 악인고과(善因樂果 惡因苦果), 즉 착한 업을 지으면 즐거움의 과보를 받고 악한 업을 쌓으면 괴로운 과보를 받습니다.

〈증일아함경〉 제51권에서 "대개 사람은 그 행을 닦을 때 악도 행하고 또 선도 행하지만 그들은 제각기 그 과보를 받나니 그 행은 끝내 멸하지 않느니라. 사람들이 만일 그 행을 찾아보면 그 과보를 받는 이유를 알 수 있나니 선을 행하면 선의 과보를 받고 악을 지으면 악의 과보를 받는다.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그 사람이 익힌 대로 따르나니 마치 오곡(五穀)의 종자를 심어 제각기 그 열매 거두는 것과 같다."고 부처님께서 설한 것처럼 오곡의 종자를 심어 제각기 그 열매 거두는 것과 같이 지어진 업은 그 과보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7. 업을 짓는 세 가지 행위와 열 가지 악업

불자 여러분! 업은 마음과 입과 몸의 세 가지로 짓게 됩니다. 이렇게 의지와 몸[身]과 입[口]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을 삼업(三業)이라고 말합니다. 삼업을 다른 말로 신업(身業) · 구업(口業) · 의업(意業)이라고도 하는데, 마음의 표출 행위를 의업(意業)이라고 하고, 의도를 가진 신체적 행위를 신업(身業)이라고 하며, 입을 통하여 말을 하는 언어적 행위를 구업(口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짓는 모든 행위는 신구의(身口意)의 세 가지 요소로 삼업에 짓게 되는 것입니다. 신 · 구 · 의 삼업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열 가지의 악업(惡業)으로 표현합니다. 먼저 몸으로 짓는 신업(身業)에는 살생 · 투도 · 사음의 3가지가 있습니다.

살생(殺生)이란 살아있는 목숨을 죽이는 것입니다. 투도(偸盜)란 남의 재물에 집착하여 주지 않는 물건을 훔쳐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음(邪淫)이란 가족들로부터 보호되는 여자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으로 짓는 구업(口業)에는 망어 · 기어 · 양설 · 악구 등 4가지가 있습니다. 망어(妄語)란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자신 혹은 남 또는 재물을 얻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설(兩舌)이란 남을 이간질 하는 말입니다. 악구(惡口)란 거칠게 말하고 욕설을 하는 것입니다. 기어(綺語)란 교묘하게 꾸며대는 말입니다. 뜻으로 짓는 의업(意業)에는 탐(貪) · 진(瞋) · 치(痴) 등 3 가지가 있습니다. 탐심(貪心)은 재물이나 모든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엿보고 항상 살피면서 구하고 희망하여 나의 소득으로 만들고자 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진심(嗔心)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성내는 것입니다. 치심(癡心)은 사견 즉 인과응보 업보를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저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10가지 악업은 모두가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생겨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실론〉에서는 "죄 중에는 사견이 가장 무겁다"고 하여 악업을 짓는 원인이 사견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견 때문에 업과 과보를 믿지 아니하고 윤회(輪廻)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실론〉에서 "만일 선업을 행하는 자가 임종 시에 사견의 마음을 일으키면 지옥에 떨어지고, 불선업[惡業]을 행하던 자가 임종 시에 정견의 마음을 일으키면 천상에 태어난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비록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을 뉘우치고 바른 마음[正見]을 가진다면 즉시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의 선업을 쌓았다 하더라도 사견을 일으켜 악업을 짓게 되면 곧 악도에 떨어져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백두대간에서 재배한 돌배 세월담은 도라지 스틱 液

자연에서 찾은 건강

300BOX 한정특판

특별보급가



₩75,000 → ₩57,000

[제품용량] 10ml x 30포(300ml) / 액상차
[원재료명 및 함량]
도라지추출물(고형분8%이상, 도라지뿌리 11.11%)56.9%, 배추출물(고형분4%이상 / 돌배나무열매11.11%)12%, 배농축액(고형분60%이상)8%

인터넷에서 도라지 추출물 성분인 NAVER 플라티코딘D효능 ▼ 을 검색하세요.

백두대간 재배 약도라지, 돌배 제품은 이런 점이 다릅니다.

- 무농약, 유기농 재배, HACCP 인증
- 백두대간 800m에서 이식 재배한 8년근 약도라지 사용
- 다양한 영양성분과 유기산이 풍부한 유기농 돌배 사용.
- 평창 동계올림픽 면세점에서도 판매한 믿을 수 있는 제품.
- 도라지에 함유된 "플라티코딘 D"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

자연에서 찾은 건강 진액골드

노루궁뎅이버섯 津液



₩69,000 → ₩55,000

[제품용량] 80ml × 30개입 / 1일 1~2회 /1회 (80ml)
[원재료명 및 함량]
노루궁뎅이버섯추출액88.9%(노루궁뎅이버섯 고형분 2%, 국산), 배농축액10%(국산), 오미자청(국산), 생강농축액(국산)

인터넷에서 NAVER 노루궁뎅이버섯효능 ▼ 을 검색하세요.

노루궁뎅이버섯은 우리의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합니다.

- 실버식품으로도 불리우는 노루궁뎅이버섯은 인지개선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헤리세논, 에리나신 함유.
- 위산분비 조절, 염증개선 및 위장운동을 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올레아놀릭산" 함유.
- 건강한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 제거 역할.
- 베타글루칸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인체의 면역력 강화에 도움.

"고객님의 건강을 생각하며 담은 건강한 자연! 믿고 드셔도 됩니다." 문의 : 02)732-1520 마하몰 www.mahamall.co.kr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60호 | 17 | 전면광고

탐욕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 등의 악행을 짓지 않는 사람은 그 명예가 날로 더해간다. 마치 달이 보름달을 향하는 것처럼.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설선생자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취득 동참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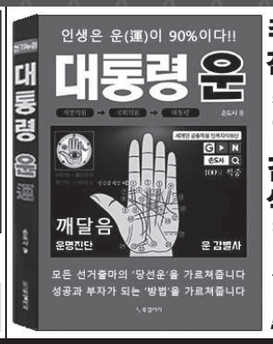
◆포교사, 전문포교사 ◆법사, 전문법사
◆법계분야 – 대종(선율)사, 종사, 율사, 선사, 종법사, 종무사
◆제출된 서류로 평가심사 취득가능
교육부 상학인가 만대 불교학대학원
한국불교수행자연합회
서울시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010-5412-8040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보시금 35만원
010-2204-8375

단청, 탱화, 개금

사찰신축, 보수, 기와
❋❋❋
화공기능보유자
010-9387-1518



추천 - 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 • •
부전스님 모십니다.
• • •
010-8352-6042

• • •
공양주 모십니다.
부산시 남구
• • •
010-4435-5660

민불종 택일 비법전수

백여가지 길흉신을 가감한 이사·결혼 장례·택일 등을 비법으로 간단하게 해결
장애스님, 보살 무료 Daim 역학대통령 ▼ 최다목록
민불종과 인연도 기다림 02-904-3375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모든 것을 마음대로

특수기도법을 스님에게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이름만 보면 모든것을 알수있다※
관재 · 소송 · 송사 · 이혼 · 시험운 · 사업운
부도 · 정신병 · 건강 특별비법 전수해 드립니다
◈ 스님 무속인 환영 · 성실지도 ◈
문의전화 010-6284-617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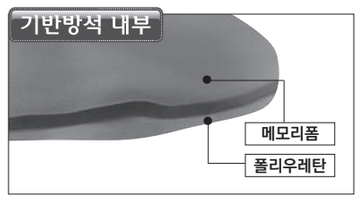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 최초 기반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60호 | 18 | 전면광고

해가 뜰 때에 세상을 밝게 비추듯이 부처님의 복전(福田)도 이와 같아서 모든 어둠을 소멸하느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 《화엄경》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
◎부지 : 300평
◎건평 : 60평,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매가 : 협의

◎위치 : 경기
◎부지 : 150평
◎건평 : 120평
◎신도시중심
◎매가 : 9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위치 : 전주시내 정 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전주시 전경 한 눈에, 이성계 기도터 ●대지 : 400평(국유지 1만평 사용) ●법당(요사채 최신형 입식), 극락전(목조기와 신축) ●가액 : 2억원(대출금 3억5천은 별도, 승계안고) ●조건 : 양도시 모든 석불 포함(석불 조성 1억5천) ●납골당 설치됨, 약수터, 대나무숲 울창, 편백나무 5천그루 ●1억 계약시 등기부 넘겨드림, 잔금 1억은 분할납부 가능함 ●절, 등산로, 사찰 출입 신설 포장도로 5억공사 12월 말까지 공사 준공 예정

010-9647-0723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양산사찰(급)안내

●종교용지, 대지218평
●건평 : 1층요사42평, 2층대웅전 26평, 실사용500평, 시유지포함
●산신각, 심야전기, 지하석수1일150톤이상, 양산시상수도, 하수도 종말처리, 집기일체포함, 현재성업중공원 묘지부근
●건강상 싯가이하로8억5천에 양도함
●가격 : 절충

010-6425-8274

기도 도량 안내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가액 : 4억(협의가능)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 5분 버스정류장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010-3428-2774

토 굴(급) 안 내

●위치 : 부산 금정구 지하철3분
●법당, 요사, 주방, 산신각 등 건물 50평
●이마트, 은행, 병원, 시장 있음
●풍광수려, 주차공간 넉넉함
●보1천, 월40만(시설비5백만)
●살아보신 후 양도도 가능

010-7121-3030

전원주택&토굴 안내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찰안내 가람

●강원도 원주시
●부지총면적 : 4853㎡(1468평)
●건물총면적 : 265.96㎡(80평)
●가액 : 10억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불자공인중개사안내

●사찰, 암자, 터, 양도양수 경력많음
●신도 많은 경남·북지역 정보(거래)많음
●일처리가 원만하고 비밀엄수
●성심성의껏 상담합니다

불자업소 공신공인중개사

010-4857-0027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합천군, 무학대사 수행동굴 있는곳
●대지 410평, 임야220평
임법당 13평, 요사채 52평
●가액 : 3억5천만원

010-2078-9595

포 교 당 안 내

●마산 포교당 22평
●롯데백화점 이면도로 앞, 위치 최상
●보300만, 월30만
●1천만원(시설)
●몸만 오시면 됨

010-7169-9878

사 찰(급) 안 내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큰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1층 요사. 2층 법당.삼성각 약 20km. 원주시청.충주시청.문막읍
●가액 : 6억 5천
●답사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5371-5567

포 교 원 안 내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2층 독채 40평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5만원
●시설금 1천만원
●시설완비

010-8567-3667

고성사찰(급)안내

●종교용지, 대지634평 불교재단 법천사
●1층 슬라브 36평, 화장실 및 창고 3평, 법당 24평, 산신각 3평
●절앞에 저수지 있음, 수도물은 산에서 내려오는 지하수
●가액 : 1억5천만원, 절충가능
●별도 : 대지 177평, 답 917평 합계금액 2억 7천만

010-3553-2787

사 찰 안 내

●대지 1,700평, 법당 60평
●관음전 60평, 약사전 100평 기도원 40평, 공양실 100평
●납골당, 지장전, 원두막, 종무소
●폭포가 있는 절(김천지역)
●가액 : 23억(대출 5억)

010-4547-0023

예쁜사찰(급)안내

●위치 : 경북 영천시내권
●대지 : 약 200평
●건물 : 법당1동 17평(단청)
●요사채1동 약20평, 2층 약5평 1동 약25평
●가액 : 3억 5천(절충가능)

010-4999-5622

포 교 당 안 내

●위치 : 포항시 남구 대이로 (포항시청앞)
●4층(65평)남향, 엘리베이트 사용
●법당,방2개, 상담실, 부엌, 화장실
●보증금 2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는 답사후 결정

010-7219-0079

포 교 원 안 내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우림시장근처
●2층 30평
●보증금 : 2천만원 월세70만원
●시설금 : 1천만원

010-2809-8819

포 교 원 안 내

●위치 : 영천 시내 멋진 법당
●2층 72평, 완벽한 시설, 방3칸, 주방, 화장실, 넓은 옥상, 앰프시설 완비, 방음 완벽, 민원도 없음
●보 5백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9377-2279

암 자(터) 안 내

●위치 : 경남 함양 휴천 남호리 1002, 1005 2필지(관리지역), 총456평
●가액 : 3천만원
●위같은리 1000, 1001 논밭 총794평, 2필지(관리지역)
●가액 : 4천만원

010-9393-4965

토 굴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 강남권 45분
●스님토굴, 전원주택형 수익성 양호
●대지 210평, 건평 40평
●긴 복도형, 지열, 난방비 최소, 3백년 느티나무, 불자
●가격협의

010-6285-3703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4길 23
●부지102평, 구조 2층 법당 15평, 생활관 1층 33평, 화장실2평
●가액 : 1억

010-4156-3779

별장토굴

●위치 : 경북 봉화 소천면
●대지면적 약 전체 2800평
●정리된(벌목) 임야 약 2천평 (지목 대지 포함)계곡접하고 있음, 국유지 300만평 접함
●건 물 : 없음
●가 액 : 6천만원

010-4124-7788

사 찰 안 내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90 (안심타운 맞은편) 4층
●건평 70평(법당, 방 3개, 공양간 1개, 화장실 2개) 시설완비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9015-4040
010-2077-7820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의 궁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천수천안관자재보살



통상 천수관음이라 한다. 관음보살의 서원은 자비를 목표로 하지만, 천수천안관자재보살은 천의 손과, 천의 눈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존으로서 자비의 궁극인 대비를 덕으로 삼는다.

형상: 황금색, 27면은 25유(지옥에서 무색계까지 중생의 윤회의 세계의 25종)를 제도하는 것을 말하고, 정상의 중앙을 본지라하여 아미타불을 배치하고 있다.

천수에 천안을 갖추고 있으며, 이 중에 42수를 강조하였으며, 좌, 우수의 지물은 필자의 42수주 진언집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우수의 지물은 다음과 같다. 청연, 바루, 포도, 범협, 삼고저, 보인, 석장, 시원인, 수주, 호병, 화살, 오색운, 검, 백연, 촉루, 거울, 달, 갈고리, 화불.

좌수의 지물은 다음과 같다. 홍연, 경협, 보주, 소라, 독고저, 요령, 삼고저, 팔찌, 끈(밧줄),조병, 활, 방패, 도끼, 자색연화, 버들, 백자, 바뀌, 해, 궁전.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⑱ 뇌성마비 장애인 김소영

"장애, 동정·극복대상 개념 경계해야"

코스모스를 닮은 소영 씨 오늘은 무엇을 하고 지냈나요? 근래 들어 절에는 다녀왔나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 못했을 수도 있겠군요. 법회는 모두 온라인 법회를 하니 온라인으로 법회 참석을 하고 있다고 짐작을 해봅니다.

가을이 왔으니 시도 좀 쓰셨을까요? 자립생활센터에서 퇴근하는 길에 소영 씨를 닮은 맑은 시 한 편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혹여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할까 싶어 언제나 말 한마디 조심스레 하고, 단어 하나 신중하게 쓰는 소영 씨는 마음이 참 예쁩니다. 그것은 소영 씨의 멋진 삶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장애가 있는 우리에게 문학이란 무엇일까요? 또한 문학이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문학이란 자기 체험에서 오는 메시지가 담겼다고 하지요. 장애가 있는 작가는 치열한 자기 삶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의 장애를 말하고, 장애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해요. 비장애작가도 장애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작품에서 장애가 동정이나 극복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장애를 어설프게 다룬 작품들이 오히려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문학이나 음악이나 연극 모든 분야에서 그렇고 모든 생활에서 그렇지요.

사람들은 흔히 문학에서도 장애문학을 구분하곤 합니다. 무엇이 장애인 문학인지 정의를 내리지 못한 채 말이지요. 장애인 문학의 역할과 일반 문학의 역할은 따로 있지 않아요. 결국 문학은 사람을 탐구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기에, 장애인 문학은 타인을 이해하고, 인간을 탐구하는 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들의 문학이 세상에 선보일 통로가 좁은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불교계도 장애인들의 활동 공간이 적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따로 필요하다는 사실 역시 따지고 보면 허물어야 할 벽일지도 모르겠어요. 문학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구석구석에서 필요하니까요.

장애는 눈으로 보이는 특성일 뿐이지 보호와 분리의 구분 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장애와 비장애 학생 구분 없이 통합교육이 진행되는 것처럼, 불교에서도 변화를 발원합니다. 장애인 불자를 위한 포교와 지원에 성숙한 장애인식이 고취되어 자연스럽게 장애인의 불교접근권이 좋아져서 불자의 일원으로 널리 함께할 수 있다면 장애불자들의 더욱 활동도 넓어지고 자신의 재능을 통해 발전할 수 있을거예요.

장애불자, 비장애불자, 스님 등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해요. 특히 우리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요.

부처님오신날 보리수아래공연에서 시낭송하는 소영 씨의 사진을 찾아봅니다. 부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길 모습인가 생각합니다. 보리수아래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현행원을 가슴에 담고 사는데 지금도 보현행원을 불러봅니다. 간절한 마음이죠.

보리수아래 장애인들의 능력을 키우고 비불자 장애인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시작한 보리수아래 감성시집과 수필집이 벌써 7권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시아 장애인들과의 교류도 미얀마 베트남, 일본 인도네시아 4개국이 되었네요.

소영 씨가 함께해준 덕분입니다. 장애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 활동으로 포교와 장애인식 개선 등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지요. 우리는 모두 불교계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장애불자를 알리는 포교 활동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장애에 대한 불교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불교의 전세대와 소통을 넓혀가야 합니다.

불자들 중에는 장애인들을 무조건 이해해야 한다는 맘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참 감사한 일이면서도 때로 장애불자들이 제대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게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계 곳곳에서 장애불자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장애불자들이 자신들의 불교를 바탕으로 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환경적 장애물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고 정책 차원의 불교계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불교계 전반의 편의시설 설치 등 보편적 접근은 장애 불자뿐 아니라 모든 불자에게도 편리하고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해요.

코스모스 한 송이 한 송이가 모여 코스모스 꽃길을 만들 듯 소영 씨와 그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잡고 나가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소영 씨, 어느 햇살 좋은 날 시 한 편 쓰면 저도 보여주세요. 깊어가는 가을 건강하고 편안하세요.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뇌성마비 장애인인 시인 김소영 씨.

일일시호일

복막염 반복에 수차례 생사기로…
가족걱정에 눈물

캄보디아 출신 찬디라씨 장천공으로 4차례 수술…위험 고비 넘겨
체중 40kg대로 줄어…기약 없는 치료에 병원비는 3000만원 훌쩍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유영일의 '참나' 찾는 **행복한 책읽기** ⑱ 키리아코스의 '지중해의 성자 다스칼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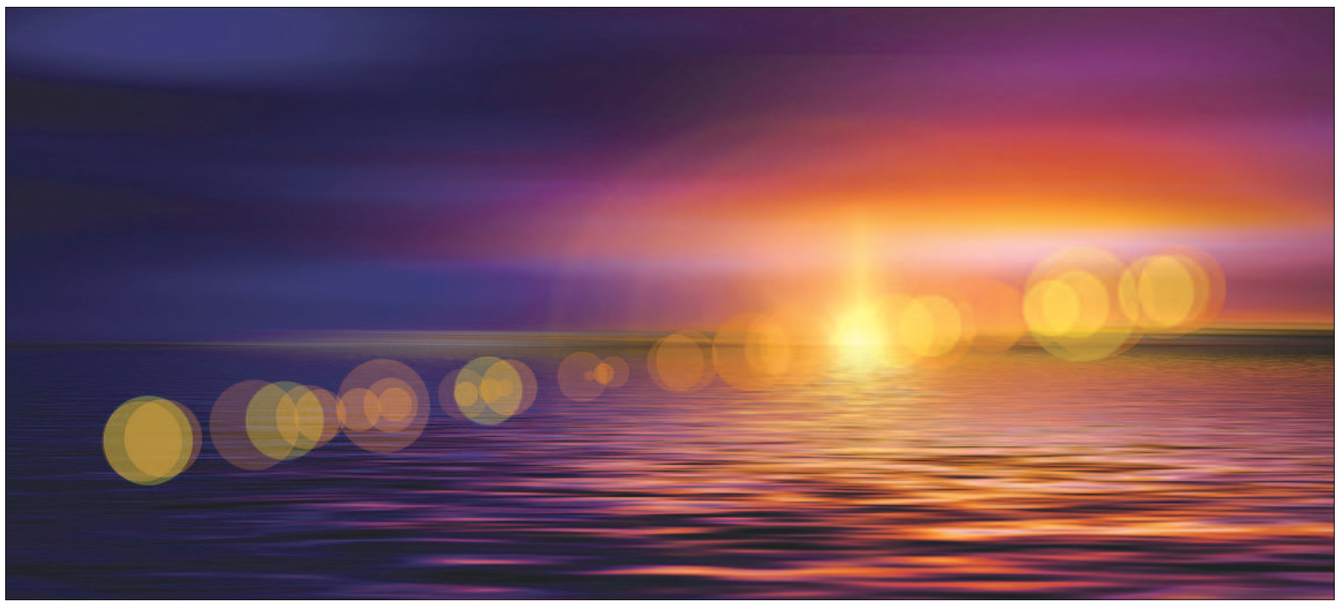


▶ 한줄 요약
우리 모두는 자기실현의 길을 가고 있다.

올바른 생각과 행동이 초월에너지 형성



키리아코스 저, 〈지중해의 성자 다스칼로스〉



터키 근처 작은 섬마을에 사는 은퇴 공무원 스피로스 사티(다스칼로스)는 겉보기엔 주름 많은 평범한 할아버지이지만, 그의 신비로운 능력과 지혜를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은 '마법사'라고 부른다.

〈지중해의 성자 다스칼로스〉(전 3권)는 사회학자인 키리아코스가 1978년부터 여러 해 동안 이 신비로운 노인의 비밀스런 삶을 직접 지켜보고 쓴 내용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초심리학 연구가 아니다. 나는 심령 현상의 진위를 실험적으로 입증하는 데 이 책의 초점을 두지 않았다. 대신 나는 주인공들이 경험하는 세계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옮겨 놓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수동적인 관찰자의 입장을 고수했다는 뜻이 아니다. 독자들이 곧 발견하게 되겠지만, 나는 그들의 조직 내부로부터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이 신유가들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다스칼로스가 세계에 알려지기까지

다스칼로스는 1912년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에서 태어났다. 겉모습으로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은퇴한 평범한 할아버지였지만, 실제로는 불가사의하고 초자연적인 힘으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신유가(神癒家)였다. 그는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 영적 성장과 자각을 위한 일에 평생을 바쳤고, 그의 집에는 도움을 구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의심 많은 사회학자인 저자는 1978년부터 10여 년간 다스칼로스와 교류하며 직접 보고 들은 그의 기적적인 일상과 가르침을 꼼꼼히 기록한다. 저자는 물질법칙에 근거한 일체의 선입견을 배제한 채 다스칼로스를 관찰하고, 이 신비가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라는 저자의 끝없는 물음에 최선을 다해 알기 쉬운 말로 답해준다.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한 순간에 치유하고, 유체이탈을 통한 보이지 않는 차원의 봉사에 헌신하며, 전생과 환생 · 천사와 악마 · 우주의 비밀 · 초월적인 박애사상 등을 거침없이 설하는 다스칼로스. 동서양의 모든 종교와 종파를 초월한 사랑으로써 상처받은 영혼들을 끌어안았고 병든 이의 카르마까지 주저함 없이 대신 짊어졌던 그의 삶과 가르침은 그가 사망한 1995년 이후에는 제자 코스타스를 통해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다.

자아실현의 길은 자아초극의 길

〈지중해의 성자 다스칼로스〉에 따르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에 의해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은 실체가 있는 '염체'로서, 우리가 주위에 투사하는 에너지이며,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생각과 느낌으로 창조하는 염체들은 이르든 늦든 언젠가는 자신들의 근원인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투사하는 염체가 선하든 악하든, 어떤 것이든 결국에는 '일곱 배나 힘이 강해져서'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것이 카르마가 작용하는 방식이다.

우리의 영혼이 형성되는 순간, 그것은 필연적으로 낮은 세계, 즉 선과 악, 삶과 죽음 등 양극의 세계의 경험을 얻기 위해 맨 밑바닥의 거친 물질 차원까지 내려와 자신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

낮은 세계로 내려와서 윤회의 쳇바퀴를 돌기 시작한 것은 실제로 우리의 신령한 자아, 프뉴마가 무지의 상태로 들어가 함정에 빠진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스스로 자초한 기억상실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유랑하는 신들'이며, 삶의 궁극적이고도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기억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의식하든 안 하든, 사실 우리는 모두가 자기발견 내지는 자기실현의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서로 카르마를 주고받으면서 되풀이되는 환생으로부터 얻는 경험을 통해 성숙해질 것이고, 결국 우리의 본향인 내면의 신령한 자아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 길을 통해 결국은 모든 인간이 자아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자아실현의 길은 결국 자아초극의 길이고, 자아초극의 길을 가기 위한 첫 단추는 우리가 방사하는 염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염체를 더욱 더 고요하고 안정적이고 사랑에 겨운 에너지로 만들어서 방사할 수 있을까? 다스칼로스가 제공하는 심상화 훈련의 말을 따라가 보자.

윤회는 무지에서 비롯돼
근본자리 탐구, 자아초극
자아초월의 에너지 획득

에너지 재충전 연습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신의 현재 인격을 점령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마음에서 제거하십시오. 잠시동안 사랑이라는 단어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템포로 여러 번 반복하십시오. 사랑, 사랑, 사랑…. 몸속의 낱낱의 근육을 느껴보고, 그것을 느슨하게 풀어놓으십시오. 마음속에 다른 어떤 생각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사랑이라는 단어를 되풀이함으로써 당신은 우주의 바탕이 되는 섭리 자체와 완전한 동조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완전한 평화와 평온의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당신의 생각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이제 진정한 평화와 고요의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순백의 광휘 속에서 빛나는 자신의 모습을 심상화하고, 거친 육체의 모든 세포와 입자 속에 자신이 존재함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자신이 형상의 한계 속에 있음을 여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깊고 편안하게 호흡하십시오, 깊고 편안하게… 당신은 이제 거친 육체의 모든 세포와 입자로 호흡하는 자신을 느낍니다. 당신은 모든 입자와 모든 세포로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형태의 호흡으로 당신 육체의 모든 세포와 입자에 생동하는 에테르 에너지를 채우십시오.

호흡할 때마다 당신은 하얗게, 더 하얗게 됩니다. 그것을 심상화하십시오. 당신은 순백으로, 더 순백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십시오. 숨을 내쉴 때마다 당신은 순백을 더럽힐 수 있는 불순한 것들을 내보냅니다.

당신의 물질 육체를 형성하고 지탱해주는 성스러운 영에게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육체에 건강이 자리 잡기를 염원하십시오. 당신의 현재인격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염원하십시오. 훌륭하게 판단하고 지혜롭기를 소망하고, 생각이라는 신성한 선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기운이 빠진 것을 느낄 때마다 이 연습을 하면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이완을 위한 명상

당신은 지금 진정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 있습니다. 에테르 생명력의 감지성을 이용해서 당신의 두 발바닥을 느끼십시오, 이제 에테르의 운동성을 이용해서 발을 통과하여 발목 위쪽으로 움직임을 느끼십시오. 에테르의 운동성과 감지성은 서로 결합해서 마치 두 발에 양말을 신은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것입니다. 무릎을 통과해서 위쪽으로 계속 움직여 가십시오. 허벅지를 통과해 위쪽으로, 그리고 다리와 골반이 만나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에테르의 감지성을 이용하여 다리에서 엉덩이에 이르는 부위를 느끼십시오. 그것은 마치 꽉 끼는 타이츠를 입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이제 에테르 에너지의 복제성을 이용해 순백의 광채 속에 있는 당신의 두 다리를 심상화 하십시오. 그것은 순백의 광채입니다. 온통 하얀 두 다리.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당신이 심상화한 하얀 광채는 매끄럽거나 대리석같이 반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흰 눈이나 깨끗한 순면의 색깔입니다. 그것은 빛의 광휘입니다. 당신의 다리가 건강하기를 강력하게 염원하십시오.

다시 에테르의 운동성을 이용해서 골반을 통과한 뒤 위쪽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뱃속에서 위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위쪽으로 올라가십시오. 흉곽에 다다를 때까지 올라가십시오. 이제, 에테르 생명력의 감지성을 이용해서 갈빗대 전체 부위를 느끼십시오. 에테르 생명력의 복제성을 이용하여 복부와 주위를 담청색의 자욱한 빛이 공처럼 둥글게 감싸고 있는 것을 심상화하십시오. 복부의 표면에서부터 5~10cm 정도의 여유를 두고 둥글게 넉넉히 감싸는 담청색 빛의 광휘를 보십시오. 깊이 호흡할 때마다 그 빛은 더 선명하고 강해집니다. 이곳이 바로 거친 육체의 생명의 중추인 태양신경총이 있는 곳입니다. 당신의 거친 육체가 아주 건강하기를 소망하십시오.

다시 에테르 에너지의 운동성을 이용해서 위쪽으로 움직여 가슴 속을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속에서 위쪽으로 천천히, 천천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에테르 생명력의 감지성을 이용해서 가슴 전체의 내부와 그 주변 전부를 느끼십시오. 에테르 생명력의 복제성을 이용해서 가슴 안과 밖을 공처럼 둥글게 감싸는 담홍색 빛의 광휘를 심상화하십시오, 당신 가슴의 표면으로부터 5~10cm 정도의 여유를 두고 둥글게 감사는 담홍색의 광휘를 보십시오. 담청색의 둥근 빛과 담홍색의 둥근 빛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깊이 숨쉴 때마다 빛은 더 밝고 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심령체가 안정되고 건강하기를 소망하십시오. 당신의 현재인격에 고요함과 평온함이 완전히 깃들기를 염원하십시오.

다시 에테르 생명력의 운동성을 이용해서 위로 올라와서 어깨를 통과한 다음 두 팔의 내부를 타고 두 손으로 내려오세요. 팔의 내부를 타고 내려오세요. 방향은 아래쪽입니다. 천천히 두 팔의 내부를 타고 팔꿈치, 손목, 손바닥, 손가락을 거쳐 당신은 이제 손가락 끝에 도달했습니다. 에테르의 감지성을 이용해서 두 팔과 팔꿈치 내부를 느끼고, 팔목, 손바닥, 손가락까지 느끼십시오, 당신은 이제 손가락 끝에 이르렀습니다. 에테르의 감지성을 이용해서 손가락 끝까지 두 팔의 내부를 느끼고, 복제성을 이용해서 순백의 광채 속에 있는 당신의 두 팔을 심상화하십시오. 당신의 두 팔 안에 건강이 자리잡기를 염원하십시오. 당신의 두 손이 이웃 인간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대행자가 되기를 염원하십시오. 두 손의 어루만짐이 그들에게 신성한 섭리의 큰 사랑이 되기를 염원하십시오.

에테르 에너지의 운동성을 이용해서 갑상선 쪽으로 진행하십시오. 에테르 생명력의 복제성을 이용해서 아련하고 밝은 오렌지 빛이 둥글게 갑상선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심상화하십시오. 갑상선을 둘러싸고 있는 오렌지 크기만한 빛의 덩어리가 당신의 혈관 속에 있는 모든 세균을 박멸할 것입니다. 깊이 호흡하십시오. 이곳은 세 가지 신체 내부의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중추입니다. 당신의 세 가지 신체가 건강하기를 염원하십시오.

〈작가〉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마음을 바꾸는 시간!

Go! Inside 고인사이드

우리가 놓인 상황, 내면의 갈등,
자연과 사회, 마음의 문제를 유기적으로
바라보는 비대면 온라인 강연 프로그램!

매주: (수) 23:15,(금) 20:30,(토) 23:15



BTN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tv 305번 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대행 스님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근본 자리에다 되돌려 놓고 지켜보는 사람이 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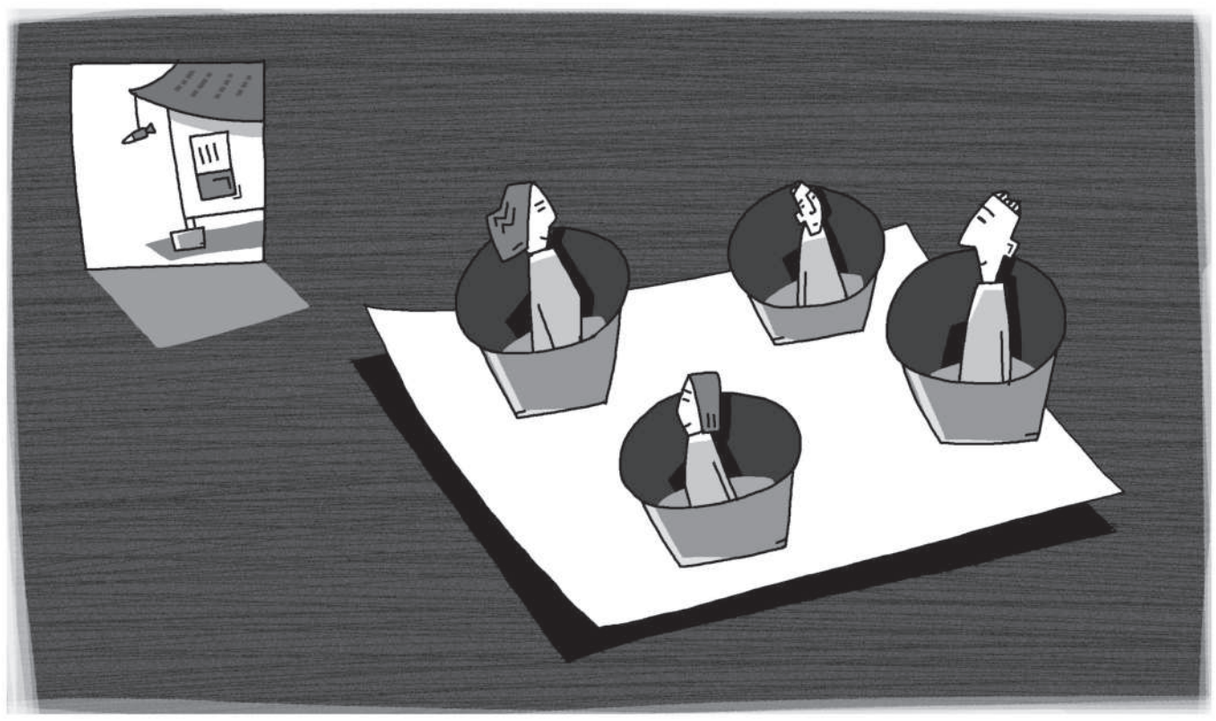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닌 도리를 공부하시는데 때로는 너무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힘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활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활 빼놓고 무슨 부처님 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종교라는 것도 없고 법당이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형상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얘긴데 우리가 돈오(頓悟)라는 것은 위에서 그대로 깨쳐서 실천을 해 내려오는 과정을 말하고, 점수(漸修)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깨달아서 올라가는 것이 점수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단번에, 찰나에 그냥 깨치는 것은 깨치되, 깨치게 되면 하나로 돌아가는 거를 알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에다가 집중해서 실천을 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깨달아 올라가는 것도 실천을 하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거든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든 둘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에 생활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 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안 계시다면 부처도 없습니다. 부처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생활 자체가 그대로 법입니다.

그대로 부처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항상 말하지만 어떠한 애고라든가 업보가 닥쳐오고 용도에 따라서 피치못할 일들이 닥쳐오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그냥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마음이라는 거를 그냥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 마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마음이라니까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 게 마음인 줄 알지 마시고요, 똑바로 진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살아나가다 보면 애고(哀苦)가, 큰 것 작은 것 할 것 없이 애고가 다가오는데 그것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 달리고 코 달리고 귀 달리고 육근(六根) 육진(六塵) 육식(六識)이 충만한 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수를 모르고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이 가정을 등한시하고, 자식이나 남편 또는 부인이나 자식을 등한시하고 화가 나면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욕해 버리고 아무렇게나 야단쳐 버립니다.

그런데 첫째는 내가 말을 그렇게 한다면 마음에 입력이 된다는 것을 꼭 아셔서 조심해야 합니다. 입력이 되면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나오고 더디 나오고 이것뿐이지, 그대로 입력이 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를 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정진한답시고 또는 밤 정진 한답시고, 기도 간답시고 가정을 등한시하고, 남편과 자식을 등한시하고 또는 부인과 자식을 등한시하고 이렇게 해서 그,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즉 말하자면 외로움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가서 외식을 하게 됩니다. 남편들은 나가서 간식을 하게 되고 자식은 나가서 방황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스님네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스님네들 이 도량이 둘이 아니라고 봅니다. 둘이 아니기에 아픔도 둘이 아니요, 가정이 파탄되는 것도 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안방에 들어가면 안방이 법당이요, 변소에 가면 변소가 법당이다.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법당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요. 내가 없다면 모든 게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산란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거기다 되돌려놓고 지켜보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 도량에 왔다가도 빨리 다녀가면 되는 것을, 그저 밤에도 정진한답시고 가정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과 남편을 배고프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요. 그전부터도 내가 밤 정진을 시키지 않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모두가 자기 가는 곳마다 부처가 계신데, 어떻게 밤에 여기서 정진을 한다고 해서 부처님이 자기를 돌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다고 해서 안 돌보겠습니까? 처처마다 부처고 처처마다 도량이고, 처처마다 자기가 그대로 법인데!

요즘 종교로 인해서 가정파탄이 나는 집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전부터도 그것을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절에 기도 들어간다, 기독교나 가톨릭교도 '기도 들어간다, 산기도 간다' 이럭하고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니면서 허황되게, 그렇게 자기의 진실을 찾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지팡이로 세우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헛된 시간을 보내면서 가정의 남편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모든 것을 등한시하면 기도를 아무리 백 번 천 번 해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안팎이 다 화목하고 아주 즐겁게 아무 외로움이 없이 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 그런 길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고, 행동에 달려 있고, 말에 달려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식탁 위에나 냉장고 문에나 글씨를 크게 해서 써 놓고 "얘들아,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나가니,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널 사랑해!" 하고 크게 써 붙여 놓고 나온다면,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마음의 그 에너지! 즉, 광력의 힘이 거기까지 미쳐 바로 그거를 떼어 보는 순간에 바로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을 하지 않게 되죠. 남편이고 자식이고 부인이고 모두가 말입니다.

여자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하루 24시간이 고달팠어도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했듯이, 말 한마디를 하게 되면 하루 24시간의 피로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솟아오릅니다. 애들이 이탈되는 것도 부모의 책임이 99%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양으로 나온 애들입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양으로 남편들이 그렇게 되고 부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참지 못하고 불끈불끈 내뱉고, 있는 정 없는 정이 다 떨어지게 만들고, 여자나 남자나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애들이 보고 배우는 게 뭐겠습니까?

종교라는 것이 절에 나와서 기도나 하고 정성이나 들이고 이러는 게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는 것은 이 우주 전체에, 인간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 세상에서 살고 돌아가는 이 자체가 종교입니다, 불교고. 지난번에 여기서 밤 정진을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굳이 말릴 필요는 없겠지만, 말려야 되겠습니다. 한 발짝 떼어 놓고 가는 것도 정진이요, 보는 것도 정진이요, 앉는 것도 정진이요, 눕는 것도 정진이요, 서는 것도 정진이고 일하는 것도 정진인데, 어떻게 그렇게들 생각을 하십니까?

항상 여러분한테 길을 가다 넘어지면 길을 짚고 일어난다고 말을 했죠. 그랬는데 허공을 허우적거리고 일어나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돼도 이만저만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있을 시간이 있다면, 바로 그 시간에 남편과 자식들을 돌보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태도가 그대로 정진입니다.

그거를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거지요. 자기 하나로 인해서 일체 만법이 벌어지고 일체 만법이 작용이 되고 일체 만법이 들고 나는 겁니다. 빛보다 더 빠르다고, 심력은 그렇게 빠르고 그렇게 힘이 있다고 항상 말을 했지요. 그랬는데 몇 시간 동안을 여기서 정진한답시고 졸고 자고 온통 그저 말 수단으로 말 오고 가는 데에 전념을 다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모두 하나하나, 항상 말하지만 화가 나고 어떠한 잘못이 있고 하늘이 무너지고 깨지고 이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다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맡겨 놓고,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동, 부드러운 뜻을 가지고 모든 것은 한군데서 일체 만법이 나고

☞ 22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나한테 다가오는 고난은 고가 아니라 나를 이끌어 주는 나의 수행이다

☞ 21면에서 계속

드니까 '나는 그런 데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오는 대로 심부름만 열심히 잘하면 된다.' 하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보십시오.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모든 거를 여러분의 차원대로 능력대로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는 몸까지 다 놓고 가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허공에서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냥 요만한 것만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저 야단들입니다. 지금 금방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이 그냥 한 찰나에, 찰나찰나에 돌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구를 붙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나 깨나 움죽거리는데, 이것도 (법상을 짚어 보이시며)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이것도 쉴 사이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 것 네 것 이렇게 마음으로 붙잡고 '요거를 해야 옳을까, 안 해야 옳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거를 붙들고 돌아가니까 이게 업이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 모두가 다가오는 대로 업을 지어서 외려 그 윤회성을 바로 입력시키게 됩니다, 그게. 애착을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니까.

이 에너지가 허공만 하게 큰 에너지가 있다 하면 그 에너지 덩어리는 여러분이 악으로 생각하면 악으로 쓰여지고 선으로 생각한다면 선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악이고 선이고 한군데서 나옵니다. 한 에너지 덩어리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악이다 선이다 하고 양단간으로 두 마디만 하지만, 그 천차만별의 악과 선은 가지가지로 다릅니다. 마음으로 악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 선을 짓고, 행동으로 선을 짓는가 하면 행동으로 악을 짓고, 말로 악을 짓는가 하면 말로 선을 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천차만별로 많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고(苦)가 고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차원을 높이기 위해 나한테 다가오는 재료로구나 하고선, 그냥 고가 아니라 바로 나를 이끌어 주는 나의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게 하나도 고가 될 수 없습니다. 고 하나만 떨어진다면 집착도 떨어지고 멸도 떨어지고 도도 떨어진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고집멸도(苦集滅道), 이 사제법이 하나만, 고 하나만 없다 한다면…, 여러분이 망상이 나오느니 뭐니 뭐니 뭐니 하는데 그런 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팥죽 솥에서 부글부글 끓는 팥죽 방울이 나오듯, 한 몸뚱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딴 데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제자리에다 놓으라는데도 그렇게 못 놓겠습니까? 그 팥죽 방울 나오는 대로 제자리에다가 놓는다면 팥죽이 익어서 방울은 다시 안 나옵니다. 이 팥죽 방울이 나온다고 불을 밀리고 놓고 밀리고 놓고 이래 보십시오, 팥죽이 익나.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팥죽 방울을 생각하지 말고, 팥죽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팥죽이다. 이것 전체가 팥죽이다.' 이런다면 아니, 뭐가 걱정입니까?

방편으로 말을 하자면 또 이런 게 있죠. 어느 집에 가서 머슴을 사는데 말입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됐지, 주인의 일을 안팎으로 일일이 걱정을 한단 말입니다, 참견을 하고. 그럼 주인도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머슴으로 살면, 종으로 살면 살았지 웬 주인 일에 그렇게 참견이 많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걸. 그리고 걱정 하나도 할 게 없어요, 주인이 다 살림을 하는 거니까. 그와 똑같은 얘깁니다.

여러분의 몸뚱이는 영원치가 못합니다. 종과 같습니다. 옷이 헐면 주인은 바로 옷을 다시 갈아입습니다. 그와 같이 몸뚱이도 역시 옷과 같습니다. 옷 입은 것은 수명이 짧고, 이 몸이라는 옷 입은 것은 수명이 좀 길다 뿐이지요. 또 옷이 맞지 않으면 후딱 벗어 버립니다. 벗어 버리고 딴 거 입습니다. 그와 같이 애들 적에도 죽는 수가 있고, 젊어서도 죽는 수가 있고, 늙어서 죽는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고 해도 나는 가져갈 수 있을지언정 참나는 가져갈 수 없느니라. 영원한 나는 영원하니라.' 한 겁니다. 영원한 그 자체가 바로 왜 똑같지 못합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하는 데서 잘못 돌아가는 겁니다. 욕심이 과하고 착이 많고 탐심이 많아서 이렇게 모두가 벌어지는 겁니다. 한 식구가 모여서 사는 것도 우리가 한 철 놀러 나와서 인연에 따라서 만나서 한 철 살다가 헤어질 때는 다시금 다 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무엇을 탐하고 무엇을 욕심내고 무엇을 집착하겠습니까?

나라는 조건 이 자체도 바로 헌신같이 버려야만 됩니다. 허나 이거는 부처님 뜻에도 그렇고, 육신을 낳아 준 부모의 뜻도 그렇고 또는 아래로는 자식들을 낳아서 기르는 소임도 다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육신도 잘 섬겨야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물질계와 정신계가 이렇게 서로 같이 돌아가야 되겠죠.

때로는 애들을 공부를 시킨다 하더라도 정신쇠약이 되면 공부할 생각이 안 나고 의욕이 생기지를 않고 몸이 나른하고 졸립기만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부모네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서, 남편이든지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로회복제, 간장약이 피로회복제입니다. 그거라도 먹여서 나른하고 아프고 졸린 걸 쫓아내고 정신 회복이 되게끔 이렇게 돋구어 줘야만 모자라지가 않죠? 용기가 나고 의욕이 생기고 그런 거지 여러분도 아파 보세요, 의욕이 생기나. 이거는 상식입니다.

여러분이 아침, 저녁, 점심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밥을 먹이는 것도 약과 같습니다. 약 아닌 게 없습니다. 밥도 약이요, 과일도 약이요, 모든 게 약 아닌 게 어딨습니까? 약이라고 이름을 지어 놨으니까 약이고 밥이라고 이름을 지어 놨으니까 밥이지, 밥 따로 약 따로 있습니까? 결론은 하나죠, 먹는 것이. 그러나 그것도 무조건 아무거나 먹여서 되는 건 아닙니다. 체질에 따라서 여러분이 자식들을 기르고 부모를 섬기려면 반의사는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 **한 식구가 모여 사는 것도**
> **인연에 따라 만나서 한 철 살다가 헤어지는 것입니다.**
> **그런데 그 기간에 무엇을 탐하고 무엇을 욕심내고**
> **무엇을 집착하겠습니까?**

모든 것에서 그렇게 진실하게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돌려놓는다면 아파서 돌려놓을 때는 바로 약사로 화해서 찰나에 약사가 됩니다, 내 주인공이. 일이 안 돼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거기다 맡길 때는 관세음이 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칠성이 되고, 독성이 되고, 용신도 되고, 지신도 되고 모든 게 자기의 용도에 따라서 거기다 놓는 대로 이렇게 화해서 바뀌지기 때문에 천백억화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여러분이 합격 기도를 붙인다고 하는데, 이 기도 붙이는 것도 스님네들이 얼마를 가져오라 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적든 많든 형편대로 지극하게 자기가 마음을 내서 정성을 들이는 것이라야지, 가게에 가서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살 때에 조금도 의심 없이 돈을 내고 물건을 사듯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가 가져오란다 하면 벌써 붙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부터 접수는 하되 돈은 얼마 얼마 가져오라는 법이 없어질 겁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일거일동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는 가정으로부터 내 마음, 내 몸, 내 식구 이것이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 법당 따로 있고 댁의 가정, 집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사찰이든지 매일 와서 정진하고 정성 들이고 그렇게 잘한다면, 그저 자주 와서 노상 살다시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스님네들은 다 좋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스님네들도 생각해 볼 점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왜냐? 그 가정이 내 가정이요, 그 사람들이 나요, 그 아픔이 나요, 모두가 나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어설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다들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 아픔이 내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도 가정 섬기듯 모두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모두가 남의 탓으로 돌리고 비판하고 온통 이렇게 돌아가니까 한마음이 될 수가 없죠. 내가 어떡하면 한 계단을 더 올라서나,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사단이 많고 그러는 반면에 국민들만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가정에서도 부부가 잘못하면 애들이 힘이 든단 말입니다. 애들한테 뭐라고 안 그래도 부부가 항상 싸움질이나 하고 항상 엇갈리고 사네 못 사네 하고 야단들을 한다면 그걸 듣는 자식들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구, 지겨워.' 이탈을 하게 되죠. 이게 쌓이고 쌓이면 터지게 되죠. 그러면 터진 연에 뭐를 붙들려고 그러느냐 하면 말로 해서 몸을 붙들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또. 몸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바로 마음으로써 마음을 붙들어야 육체는 저절로 오게 되고 따뜻하게 되죠.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종교가 어떠한 것인지, 이 불교다 하는 것이 종교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체가 바로 종교입니다. 그리고 불교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했죠. 불(佛)이라는 건 일체 모든 생명의 근본이 불이요, 바로 그 모든 일체 생명의 근본에서 서로가 교환하고 말하고 또는 통신이 되고 서로 이러는 것이, 안팎이 없이 통신되고 교류하고 돌아가는 거, 혼자 살지 않고 포괄적으로 모든 게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교(敎)라구요.

그러니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에 있습니까, 가톨릭교에 있습니까, 불교에 있습니까? '불'이라는, '교'라는 그 두 글자 속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를 놓고 만날 믿고, 상대를 놓고 찾고, 상대를 놓고 원하고, 상대를 놓고 기도하고…, 이게 뭔 짓들입니까?

"불법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니까 어떤 선지식이 주먹을 불끈 내밀었다 이겁니다. 그게 뭔 뜻입니까? "불법이 어떤 겁니까?" 하고 물으니 어떤 선지식은, 벌떡 뛰어 내려와서 그냥 멱살을 쥐고 발길로 차고 그냥 막 두들겨 팼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다." 하니까 "아이고, 죽겠다는 놈은 누구냐?" 하고 물었답니다. 말만, 그냥 좋은 말만 잘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식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경을 아주 달큼하게 다 읽었다 하더라도 그 속 내용을, 그 속 내용 하나에서 수만 가지로 화해서 돌아가는 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몸 떨어지면 입도 떨어지고 말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내가 말하는 것은, 못났든 잘났든 "너만이, 네가 걸음을 걷고 있다. 누가 대신 걸어 주지 않는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만이 자기를 걷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이리로 가게 하고 저리로 가게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 그것을 둘 아니게 다잡아서 다스리면서 가야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가요? 촛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데 촛불 심지가 비뚤어졌으면, 심지가 비뚤어졌으니까 불도 비뚤어지고 한편으로만 타 가지고 촛농이 줄줄줄줄 다 흘러내립니다. 그와 같이 사람도 마음이 그렇게 비뚤어졌으면 다시 다스려야죠. 촛불이 너무 길고 심지밥이 비뚤어졌으면 잘라 버리고 똑바로 세워 놓으면 촛농이 양면으로 흐르지도 않고 똑바로 잘 밝게 켜질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고삐를 쥐고서 똑바로 다스려라 하는 뜻은 소가 만약에 남의 집 파밭이나 배추밭이나 이런 데로 막 들어가서 짓밟아 놓으면 안 되니까, 고삐를 쥐고서 "똑바로, 길로 똑바로 가거라." 했던 거죠. 자기 고삐를 자기가 쥐고서 가는 거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으로도 그려 놓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 나라도 그렇고 어느 회사도 그렇고 어떠한 일을 하든, 여러분의 살림이 윤택해지고 잘해 나가려면 그렇게 마음을 다스려 나가라는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2년 10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 현불 논단 |

꽃은 져도 향기는 남는다



정운 스님
동국대 강사

꽃 · 나무에 존칭 썼던 故법정 스님
조선代 자비 스님, 만물에 '님'붙여
소동파는 '무정설법'에 오도송 읊어

'무정설법', 물아일체 경지 의미해
모든 산천초목도 우리에게 法 설파

울긋불긋 단풍, 가을 화장세계 장엄
무정중생들이 좋은 진리를 설해주니
어찌 모든 수목에 감사하지 않겠는가

故법정 스님이 입적하기 며칠 전 병상에 있을 때이다. 미황사 前 주지를 지낸 금강 스님이 동백꽃과 매화를 꺾어서 병실에 보냈다. 스님께서 그 꽃을 받고, 한 송이 한 송이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꽃들아, 올라오느라고 수고 많았다. 내가 보러 가야 하는데…."

법정 스님은 어느 글에서도 "청도 운문사에 '세월의 자취를 간직한 세 분이 계시다'"라고 운을 띄운 뒤, 비로자나불 · 은행나무 · 처진 소나무라고 언급했다. 또 법정 스님이 불일암에 머물 당시, 봄날에 출타를 하면서 도량에 피어있는 매화에게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고 떠났다.

이렇게 법정 스님은 꽃과 나무에게도 사람을 대하듯 존칭을 썼다. 조선 시대, 자비(慈悲) 스님도 그러했다. 스님은 성정이 곧아 재상이나 벼슬아치를 만나도 굽실대지 않았고, 어떤 물건이든지 누군가가 주면, 받아서는 그것을 남이 달라고 하면 모두 주었다. 어떤 물건을 일컬을 때도 '돌님' · '나무님' · '사자님' · '토끼님' 등으로 반드시 '님' 자를 붙였다.

송나라 때, 소동파(1037~1101)는 황룡파 동림 상총(東林常總, 1025~1091)의 법맥을 받은 사람이다. 소동파가 처음 상총 스님을 만났을 때의 일이다.

"스님, 제가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을 해결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스님께서 이 미혹한 중생을 제도해 주십시오."

"거사님은 이제까지 어느 스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여러 고을을 전전하며 스님들을 많이 만났지만, 아직도 공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참 뜸을 들이던 상총이 말했다. "거사님은 어찌 무정설법은 들으려 하지 않고, 유정설법만 청하십니까?"

소동파는 상총 스님의 '왜 무정설법은 들으려 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의문을 품고 집으로 가는 길녘에 마침 폭포 앞을 지나갔다. 이때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깨달은 뒤에 "시냇물 소리가 곧 부처님 설법이요, 산의 풍광 그대로가 부처님 법신이로다"라고 오도송을 읊었다. 동파는 선사의 말(화두)과 씨름하던 중 정각의 시절인연이 도래한 것이다.

불교에서는 꽃 · 풀 · 나무 등을 '무정(無情)중생'이라고 하고, 지각력을 가진 생명을 '유정(有情, 동물 · 사람)중생'이라고 한다.

〈열반경〉에서는 "초목국토인 무정물도 다 성불한다(草木國土 悉皆成佛)"고 하였고, 〈아미타경〉에서는 "물새와 수목(樹木)이 설법을 해준다"고 하였다. '무정이 법을 설한다(無情說法)'는 것은 실제로 무정이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가 그 물체와 동화된 마음자리, 물아일체(物我一切) · 심경일여(心鏡一如)의 측면을 말한다. 부처님만이 위대한 진리를 설하는 것이 아니라 초목들도 사람들에게 법을 설해준다는 뜻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정물이든 부처님만큼 존귀하지 않은 존재는 없다. 이런 만물의 존귀함에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일 때, 그들로부터 진리를 배운다.

만물이 결실을 맺는 계절이 왔다. 수많은 초목이 여름의 무더위 · 폭풍 · 바람 등 고통을 감내한 뒤에 가을을 맞이했다. 꽃은 져도 향기를 남기는 법, 붉은 단풍과 노란 은행나무, 군자라 불리는 국화 등이 가을의 낭만을 뽐내며 화장세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무정중생이 우리들에게 좋은 진리를 설해주고 있건만 어찌 수목에 감사하지 않으랴.

마음 기울여 무정중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바라보라. 바로 부처님 회상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社 說

MZ세대 포교 위한 콘텐츠 개발을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가상현실 · 증강현실 등 4차산업 기술들이 장족의 발전을 이루고 있다. 최근 들어 가장 각광을 받는 것이 '메타버스(Metaverse)'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한국형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 가상박물관 '힐링 동산'을 개관했다. 자신의 아바타로 접속해 퀘스트를 해결하고 국보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을 찾아가는 이 콘텐츠는 공개 4일 만에 95만 명이 방문했으며, 이중 93%가 해외방문자였다. 해외에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졸업식이 어려진 UC 버클리 학생들이 비디오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 직접 메타버스 캠퍼스를 세워 졸업식을 진행해 화제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포교 콘텐츠와 명상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포교에서 한발 뒤쳐졌던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어서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서산 보원사의 '보원사지 복원 대회 · 공모전'을 눈길을 끈다. 이 역시 '마인 크래프트'를 활용해서 이뤄진 것으로, 청소년들은 무한히 펼쳐진 가상 세계에서 자신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며 보원사지를 복원했다. 불교 역사와 사찰 구조 등을 배울 수 있던 것도 물론이다.

역사적으로 불교는 항상 시대를 선도해왔다. 구법승들이 가져온 많은 경전과 논서들은 당시 동아시아 문화와 지성사를 이끌었다. 작금의 불교도 이 같은 선학들의 의지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메타버스 등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기술들이다. 이를 배우고 활용해 불법을 전하는 것은 불교가 시대를 선도하는 일이다. 당장은 거창할 필요는 없다. 기존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하며 MZ세대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면 된다. 시대를 읽는 눈이 불교에 필요하다.

미등록법인 도제, 대승적 포용해야

조계종이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인법)' 등에 근거해, 미등록 법인과 미등록 사찰의 도제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등록 여부를 결정하거나 관리의 책임을 가지는 관리자 혹은 권리자가 아님에도, 단지 도제라는 이유로 교육과 수행,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조계종이 이같은 문제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에서는 도제 권리제한이 일종의 연좌제와 같으며,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자신의 선택과 행위를 넘어선 피해는 이들에게 상실감과 상처만 주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애초 도제들에 대한 권리 제한을 법에 담았던 취지와도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진다. 때문에 실익이 없다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애초 조계종이 도제 권리제한을 시행한 의도는 이를 통해 종단 등록 비율을 높이고자 했기 때문이다. 법인과 사찰 건립의 기반이 되는 삼보정재가 유실되지 않도록 한 최소한의 조치가 종단 등록이다. 때문에 종단 등록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한 노력으로, 도제들에 대한 권리제한을 시행한 셈이다.

그러나 종단 등록이 확대되기 보다는 되레 도제들에게 상처만 주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등록 여부를 떠나 모두가 조계종으로 출가한 스님들이다. 출가자수가 날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스님들 한명 한명은 불교, 그리고 종단의 소중한 인적자산이다. 활동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 그래야 도제들까지 종단에게서 등을 돌리는 안타까운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담마끼띠 스님의
다문화법당서 보낸 **편지**

종교 · 국적 넘어선 교류

마하위하라 사찰은 많은 분들의 봉사와 후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초기불교 수행 도량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의 참여와 도움으로 사단법인 단체임을 인정받아 1월 10일 자 '마하위하라 사원'이 '사단법인 마하위하라'가 되었습니다. 이는 함께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힘입어 전통 '초기불교'에 뿌리를 둔 마하위하라 사원이 한국에서 사단법인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월주산사 주지 공운 큰스님을 비롯한 많은 한국 스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마하위하라가 있습니다. 이 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스리랑카에서 생산되는 홍차를 지인들에게 팔아 마하위하라 건립에 기금을 지원해 주신 울산 이정수 보살님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감사 인사를 해야 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듯하지만 큰 저력을 지닌 우리의 힘들이 모여 오늘날의 마하위하라 사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에게 후원해 주신 분은 1만 5천 명 정도이며, 그중에 3000명이 한국분입니다.

스리랑카 사찰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진 한국분들이 다양한 인연으로 이처럼 모였습니다. 제가 법문 강의를 다니면서 이루어진 인연 혹은 오직 스리랑카가 좋아서 만나게 된 인연, 혹은 이주민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된 인연, 그리고 초기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로 모이게 된 인연 등 다종다양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교방송 포교사업단에서 주최한 스리랑카, 인도 성지순례를 참여하면서 담당자 분의 도움을 받아 더욱 많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이처럼 인연을 맺고자 하는 마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마하위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마하위하라를 사단법인으로 만들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님들을 비롯한 회원분들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와중에도 함께해 주신데 대해 지면을 빌어 감사를 전합니다.

마하위하라를 나날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애쓴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내어 사찰 정원에 아름다운 꽃을 심고 풀을 베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하위하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솔선수범을 보이는 불자님도 스리랑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6년간 매주 한 번씩 서울에서 내려와 한 주간 사찰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시는 그분의 선행에 많은 분들이 감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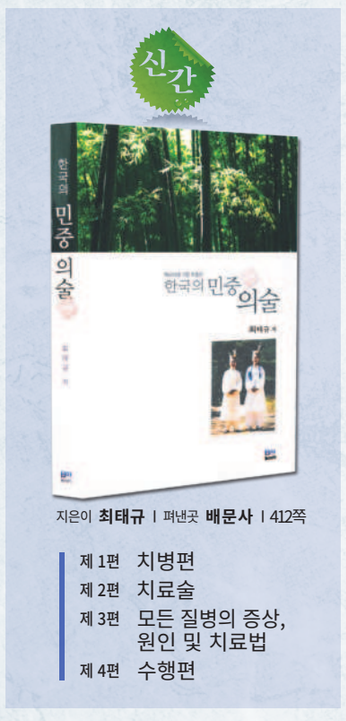
현재 마하위하라 사원에 100명 정도의 한국 불자님들께서 자동이체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웃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최초 설립 이념은 스리랑카인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심리적 지원을 하는 등 힘이 되는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한국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하위하라는 초기 불교를 배우고 스리랑카 문화도 경험할 수 있는 문화와 학문적 교류의 장(場)이 되었습니다. 부단히 부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실천 수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사원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5~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民衆醫術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6

부처님 당시 수천의 아라한은 다 어디로…



불 · 법 · 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선재불교대학) 도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충해공원 내) ☎ 055)633-6555

연등사에 인연이 되어 죽음의 길에서 새 생명을 얻었던 이들이 경험한 바 부처님의 바른 정법 수행만이 불보살의 가피(기적, 구원)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몇 해 전 연등사 법전에 멍석을 깔았었다.

네 분의 체험사례 발표를 각 15분씩하고 질의응답(즉문즉설)하였었다. 그날 참여한 이들은 타 종교인들이 많았고, 그중에서 조현병에 관심이 많았다. 불교인들 중에서는 선원, 명상 수련원, 센터를 운영하는 이들이 대다수였었다.

일반인들은 말기암, 전이된 암, 희귀병 등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종교인들은 조현병 환우와 가족에게 질문이 많았다.

그날 행사만으로는 부족해서 환우 가족들과 전번을 교환하며, 심지어 그 들 집에서 1박2일 기거하며 궁금한 내용들을 믿기 어려워 밤새도록 묻고 확인했다.

한 수련원 대표 일행은 홍보물을 내놓는데 보니 대학 강의는 물론 전국에 지원이 있고, 또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도 지원이 있었다. 그리고 가기 직전 이 소납을 만나서 여기에 온 이유와 궁금한 것이 많았었는데 직접 환우와 그 가족들을 통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사찰, 방송 스타스님, 유튜브스님, 일인자라 자처하는 목사, 전도사, 퇴마사, 방송 출연 무당, 방송 최면술사, 대학병원 교수, 한의사, 등등 직접 겪었던 얘기를 구구절절 들으니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에 위배되는 잡귀행상(사주, 철학, 관상, 삼재풀이, 기도, 부적, 물고기 방생, 성지순례, 산신기도, 용왕, 운, 재수기도, 큰등, 작은등, 인등 등)을 하지 않고 오로지 바른 정법의 길을 가는 그 수행력(법력)만이 해결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수련원(센터)에 수련을 하고자 오는 이 외에 이미 정신을 잃은 이, 정신을 놓은 이, 전도된 이, 환시, 환청 등 소위 조현병 환우들이 전화 및 찾아와서 고통을 호소하며, 매달린다는 것이다. 그때마다 황당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능력 밖이라 외면하거나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저 그들이 하는 수련의 목적은 예방 차원에서 수련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기의 한계를 느낀다고 했다. 그래서 소승을 만나러 왔다는 것이다. 뒷얘기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서 여기까지 오면서 규모가 큰 절부터 큰 단체의 제의를 많이 받았지만 그때마다 출가자의 본분을 얘기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 뇌경색

미리 예약된 환우기도 차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스님 일행(3명)이 교대로 운전하며 대전쯤 지나고 있을 때, 소승이 지금 태백산 ㅇㅇ절에 계시는 큰 스님을 뵈러 가자고 했다. 그때 스님들이 의아해하며 묻길래 가보면 안다 하며 태백산으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해서 큰스님을 뵙는데 많이 편찮으신 모습이다. 어떻게 불편하시냐고 물으니 병원에서 퇴원한지 열흘 정도 되었는데 며칠 전 외출길에 길을 잃어 신도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아마..하고 말을 흐린다. 알고 보니 3달전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전국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 3달간 입원치료하다 더 이상 차도가 없어 퇴원했는데 지금도 기억력이 없지만 더 큰 문제는 시야가 반만 보여 차를 팔았다고 한다. 조급함에 "스님 기도 받으시겠습니까" 하니 "응"하는 것이다. 지금 서울에 급한 환우 때문에 갔다가 이틀 후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나왔다. 약속한 날 스님 일행과 신도 3명 등 5명이 다시 스님을 뵙고 저녁에 스님 처소로 가겠습니다 하고 공양 후 큰스님 처소에서 기도를 하고는 스님께 내일 아침 예불 후 다시 들러기로 하고는 다음날 새벽예불 후 처소에서 기도하고 공양은 뒤로한 채 바로 떠났었다. 그리고 보름 후 신도 일행과 같이 절에 가니 절마당 한켠에 새 차가 보였다. "스님 마당에 차는 뭡니까?" 하니 이제 그전처럼 다 보이고 기억력도 살아나서 다시 차를 샀다는 것이다. 그 큰스님과의 인연은 소승이 태백산에 들어갔을 때 인연이 되었고, 시간이 흘러 서울로 공부 차 떠날 때 도움을 주셨던 분이다.

◉ 조현병, 설(혀)암

서울서부터 여기까지 20여 년 넘는 인연 보살이 전화가 왔다. 스님 죽은 줄 알았던 오빠(67세)가 인천 정신병원에 있다며 연락이 왔는데 가족관계를 묻자 맞다고 하니 지금 긴급한 일이 생겼으니 오빠를 데려가라는 것이다. 가서 보니 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조현병에다가 이미 혀가 녹아내리는 설(혀)암이 걸렸고, 주위에 전이가 되어 있다 하며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하고 조치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에서 제일 큰 ○○병원에 가서 병실(1인실)을 잡고 각종 검사를 예약했는데 문제는 조현병이 있어 어떻게 검사를 할 것인가 고민이다. 인천 정신병원장이 하는 말이 8년 병원에 있으면서 난리를 여러 번 쳤다는 것이다. 유명한 병원답게 예약자가 너무 많아 약 한 달 뒤 검사인데 조현병 때문에 어떡하면 되겠느냐고 한다. 우선 1인실에 넣고 여기 (연등사)와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폰으로 녹음을 떠서 환우 귀에 들려주라고 했다. 어쩔 수가 없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 중 1인만이 보호자로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내 손목에 있던 염주를 주며 환우 손목에 걸어주라고 했다. 혹 종교가 달라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 강요는 하지 말라고 했으나 사실 이 신도도 처음 올 때 기독교인이었고 몸이 너무 아파 소문 듣고 찾아왔었다. 알고 보니 가족 전체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병실에서 염주를 손에 끼려니 난리가 났다, 눈을 부릅뜨고 고함을 지르며 하느님이 벌줘 하며 거부하는 것이다. 그때 바로 귀에다 소승의 염불을 듣게 하니 갑자기 조용해졌다. 여기에 대한 일화는 많다. 그때 염주를 손목에 끼워주며 이제부터는 통증이 없을 테니 관세음보살을 하라고 하니 우둔한 소리로 관세음보살을 하더라는 것이다. 설(혀)암으로 인해 혀가 녹아내렸기 때문에 발음이 우둔할 수밖에..그래서 예정된 날짜에 검사를 할 수 있었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혀 복원수술도 무사히 할 수 있었고 혀 주위에 전이되었던 암들도 사라지고 없었다. 의사가 병실 올 때마다 이상하다는 것이다. 이때 보호자가 "예. 이상이 많이 있습니다" 하니 의사와 간호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나갔다. 수술 후 암 환자들이 다 고통스러워하는 방사선, 항암제 등이 기다리고 있다. 이 환우 역시 수술 후 1차 33번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금년 6월에 일어난 일이다. 그때 퇴원을 월요일에 했었고 그 주 목요일부터 1차 33번을 해야 한단다. 그래서 소납이 화요일 날 서울 환우 댁으로 가서 기도를 다시 해주고 여태껏 나의 기도를 받은 이들은 항암, 방사선을 받은 사람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 강요는 안 한다. 선택은 가족들이 하라 하며 수요일에 내려왔다. 그런데 다음날(목요일) 환우하고 보살이 절에 왔다. 그 당시 걸음도 못 걷고 했기에 다시 한번 기도를 해 주었다. 그렇게 절집에서 우선 생활하게 되자 하루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지는 것이다. 절마당, 법당, 도량 청소를 하는 것을 신도들이 주일마다 그 장면을 보았다. 그렇게 지내는 와중에 보살 자신이 미안한 지 요양원을 알아보던 차 지인으로부터 경기도에 있는 요양원을 소개받아 거처를 옮기게 되었고 거기서 약 한 달 지나갈 무렵에 급한 연락이 왔다. 그때 전화 온 시간이 07시경이었다. 환우가 새벽 4시경부터 발작을 하여 지금도 발작을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 보호자가 놀랄 수밖에. 그럼 인근 큰 병원으로 빨리 옮겨달라고 하고는 소납 한테 전화가 왔다. 그날 소납은 서울에 예약돼 있었던 환우 집에서 기도 중이었고, 마치는 대로 같이 가자고 했다. 병원에 도착하니 시간이 10시였다. 소납은 보호자가 아니라서 일반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보호자는 응급실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아직도 발작을 하고 있단다. 장장 6시간이나 발작을 멈추어야 검사를 할 텐데 걱정이다.

그때 소납이 대기실에서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가 끝나고 시간을 보니 10시 30분이다. 보호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발작이 멈추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자 응급실 간호사가 이제 막 멈추었다 하며 바로 검사실로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2~3일에 걸쳐 검사가 끝나자 소납이 바로 휠체어는 병원에 두고 절에 데리고 와서 기도 후 지금은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스스로 도량 청소도 더 열심히 하며, 절은 물론 매일 반야심경도 1편씩 사경하고 있다. 병원 암 수술 당시 170이 넘는 키에 45킬로였던 환우(67세)가 방사선 항암제 투여했으면 머리카락은 물론 지금쯤 고통으로 인해 먹지 못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못 믿겠다, 거짓말이다, 사기다 할 것이 아니라 와서 보고, 묻고, 또 묻고, 확인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종교, 종파를 떠나 누구나 참여하여 수행 결과(신통묘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장을 열고 자 한다. 여기에 불상을 모시고, 불교를 빙자해 하는 행위가 잡상인에 불과한 술, 담배, 커피, 사주, 철학, 관상, 띠삼재기도 풀이, 부적, 운,재수기도, 금모자, 금장옷, 각종 돌, 산신, 용왕, 생일, 진산식, 원장, 관장, 이사장, 고급 가사, 장삼, 각종 합격, 승진기도, 큰등, 작은등, 인등, 등은 외도들이 하는 것이라 이들은 제한한다.

법화경 묘장엄 왕 본 사품에 외도에 빠져있는 국왕인 아버지를 제도키 위해 부처님의 제자인 아들 둘이 어머니의 명을 받아 신통을 보이는 장면이 있다. 국왕 앞에서 아들이 허공에서 수직으로 수평으로 순식간에 이동하며 멈추기도 하고, 최고 최상의 교설도 통하지 않고 외도에 빠져있는 이 장면을 본 왕이 눈이 휘둥그레지며 너의 스승이 누구냐며 바로 데려가 달라고 한다. 여기서 아들이 보인 신통 묘유는 육신통중 신족통에 해당한다. 신족통(神足通) :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하늘을 날 수 있고, 벽을 통과하며,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병 등을 낫게 해서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지금 한국불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락에 떨어졌다. 법당엔 노보살님 몇 분이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법당은 물론 마당까지 불자들로 가득했다.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한참 늦었다.

이때야말로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 어떤 교설도 통하지 않던 국왕을 신통묘유로 제도하듯이 참수행자가 체득한 것을 보여주고 말은 뒤에 해야 할 것이다. 어느 큰스님처럼 득한 게 없으면 솔직해야 한다. 조현병이나 환우들이 수행력(법력)이 없어서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며 법문 시 사부대중 앞에 고하며 평생 참회한다고 하셨다. 부처님 당시 수천에 달하던 아라한(신통묘유)는 다 어디로 가고 지금 절집엔 연일 말잘하는 앵무새들만 득실 거린다.

◈ 수행자 대회 시험내용은 말기암(전이된 암), 희귀병, 조현병을 기도로써 완쾌 시킬 수 있는 이
◈ 기도 시간은 하루 10분~30분해서 2일까지 가능
◈ 경, 진언, 다라니 등은 할 수 있으나 무속인이나 퇴마사들이 하듯이 신체를 압박하는 행위, 너 누구냐?, 너 나와라? 등등, ○○○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등등은 안됨.
◈ 방송스타 성직자, 유튜브 성직자, 말로 유명한 성직자, 신통방통하다는 성직자 등등은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행자대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불자 여러분들이 많은 성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 혹여 대도시 가까이 장소를 제공해 주실 분 있으면 연락 요망합니다.
※ **접수처 055-633-6555**
연등사(선재불교대학) | **도 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우:53211)

사례자 연락처

· 010-3466-9991 (김00)
· 010-4807-6932 (박00)
· 010-5699-3173 (박00)
· 010-9143-0098 (김00)
· 010-8291-9423 (변00)



❖ 본 내용은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